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배옥현(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5. 06. 30.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 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4년 11월 기준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는 2019년에 23만 9,159건에서 2021년 19만 2,507건으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함(통계청, 2019; 통계청, 2021)
- 전국의 민간 예식장은 2018년 770개에서 2023년 581개로 189개(24.5%) 감소한 반면, 경북은 같은 기간 44개에서 32개로 12개(27.3%)가 줄어 전국 평균보다 2.8% 더 큰 감소폭을 보임(통계청, 2018; 통계청, 2023)
- 최근 2024년 11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1만 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7건(11.3%) 증가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통계청, 2024)

□ 작은 결혼식 사업은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과 연계하여 감소하고 합리적인 혼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에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작은 결혼식'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아시아경제, 2024.2.23.)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공공예식장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생활맞춤형서비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공공예식장 정책을 통합·정비하게 되었음(더스쿠프, 2024.11.6.)
- 그러나 작은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식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예비부부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매력적인 예식 공간의 발굴·확대, 그리고 복잡한 결혼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파악

- 본 연구에서는 결혼식 및 결혼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가장 중요한 요소,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로 예식장 수의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과 최근 혼인 건수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에 의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예식장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 시켜 전반적인 예식장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동시에 작은 결혼식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요구도를 파악하며, 공공예식장 운영 서비스 등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예비부부의 예식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작은 결혼식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점과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첫째, 작은 결혼식의 개념과 관련 현황,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자료집,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작은 결혼식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살펴봄
- 둘째, 경북 도내 미혼자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식과 결혼비용, 결혼문화

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정성적 자료확보를 위해 작은 결혼식 관련 담당자(해당 공무원 및 사업 운영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공공예식장이 아닌 경우 포함)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
- 셋째,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북지역에서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전국 및 경상북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함

□ 설문 및 심층조사

- 경북 지역의 예비부부 및 기혼자 총 4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심층조사에서는 관련 사업담당자(해당 공무원 및 사업 운영자)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설문 및 심층조사 기간은 2025.4.14.~2025.4.25.까지이며 조사기관의 조사요원을 활용한 웹조사 및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표본 조사의 확인 및 중간 점검 등의 최종 조사 과정을 진행하였음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및 조사설계, 조사내용의 타당성, 조사범위의 적정성, 정량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등을 확보함

3) 연구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연구 방향 설정	▶ 착수연구사업심의위원회	▶ 기본수립 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 착수보고
구체화 단계	▶ 자료분석 및 조사설계	▶ 작은 결혼식 개념 및 현황, 특성 및 선행연구,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파악 ▶ 설문 및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설계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단계	▶ 조사(실태 및 심층) 분석	▶ 예비부부 및 기혼자 대상 작은 결혼식 관련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 중간보고	▶ 조사(실태 및 심층) 결과 분석 ▶ 요약 및 시사점
최종보고 및 보고서 발간	▶ 최종 연구사업 심의 위원회	▶ 연구결과 시사점 논의 및 정책제언 ▶ 최종보고 및 결과 반영, 보고서 수정 및 보완 ▶ 보고서 발간 및 홍보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경북 도내 20~49세에 해당하는 미혼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응답자 일반적 특성, 결혼식 및 결혼비용**(결혼 연도, 결혼식 장소 및 선택 기준,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및 금액, 축소하고 싶은 항목, 결혼비용의 부담 정도, 결혼식 관련 정보 경로), **결혼문화**(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결혼문화와 관련한 동의 정도),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인지 정도 및 가장 적합한 장소, 이용 시 고려요소),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인지 정도 및 인식, 그 이유, 작은 결혼식 경험 및 장소, 장소 선택의 이유, 만족도,

예식비용 및 결혼식 비용 절감 의향, 자립적 결혼 가능 정도, 작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분석함.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주요 결과		시사점
결혼식 및 결혼 비용	- 결혼식 장소: 예식장/웨딩홀이 81.6%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공공시설은 0.8%에 그침 -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비용의 경제성(예산)·교통, 주차의 편리성이 각 23.9%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 중 최다 지출 항목: 혼수가 67.8%로 압도적임 - 결혼비용: 평균 1,645만 원 정도, 1,000만 원~1,500만 원이 40.8%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 중 축소 희망 항목: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각 23.5%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의 부담 정도: 평균 3.90점(5점 기준), ‘다소 부담’ 45.9%, ‘매우 부담’ 26.3% 순임 - 결혼식 정보 획득 경로: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30.2%), 웨딩플래너(29.0%) 등의 순임	- 결혼식 장소 선택 시 비용과 하객의 편의가 중요한 고려사항임 - 결혼비용 평균(1,645만 원)은 듀오(1,456만 원)보다 많은 편임 -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부담으로 작용 -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임 -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웨딩플래너와의 협업 방안 모색 필요
결혼 문화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부정적 응답 57.9% - 이유: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29.9%),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각 23.0%) 등의 순임 - 결혼문화와 관련한 동의 정도: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3.46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대체로 낮은 수준 -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 여성, 미혼(결혼 예정 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동의를 보임 - 신랑의 신혼집 마련, 남들 만큼의 예단비, 부모의 결혼식 비용 부담: 남성, 미혼(결혼 예정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동의를 보임	- 결혼 절차와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 및 과시 문화를 개선할 필요 - 결혼문화 개선을 위해 성별, 소득수준별 격차 고려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 사항	- 공공예식장 인지도: 절반(48.5%) 정도가 ‘들어본 적은 있다’, ‘잘 알고 있다’는 13.8%에 그침 -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공공시설(28.5%)과 공원 및 야외 공간(28.1%)이 높게 나타남 -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저렴한 비용(34.4%)과 시설 및 환경(30.6%) 등임	- 공공예식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요구 - 공공예식장 및 야외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저렴한 대관료 유지 및 시설과 환경 수반 필요
작지만 특별한 결혼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도: 들어본 적은 ‘있다’가 43.1%, ‘잘 알고 있다’는 15.0%에 그침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식도: 58.4%가 긍정적으로 인식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요구

주요 결과		시사점
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 정책	- 이유: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34.6%)이 가장 높음 - 중요 요소: 예식과 비용의 효율성(35.1%)이 가장 높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올린 경험: 2.4%(6건)에 불과 - 장소: 학교 및 교육기관(50.0%), 전통 문화시설(33.3%), 공원 및 야외 공간(16.7%) 순임 - 이유: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했기 때문(3건)으로 나타남 - 만족도: 평균 4.17점(5점 기준)으로 높은 편임 - 예식 비용: 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각 33.3%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할 의사: 있다(72.9%)가 높음 - 예식 운영 서비스: 예식장 대관(3.88점),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 메이크업·모바일 청첩장(각 3.83점)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다양한 정보 제공(4.15점),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4.03점) 등의 순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금: 200~400만 원(33.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예식 장소 발굴 및 운영 관련 부대 서비스 연계 필요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결혼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혼수 비용 일부(가전제품 등) 추가 할인 또는 지원 요구도 높음

4. 심층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심층조사에서는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은 결혼식의 운영 형태 또는 방식, 지원금액, 주요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선사항,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기타 의견 등을 조사·분석함.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주요 결과		시사점
작은 결혼식의 형태 또는	• 시군 지자체는 작은 결혼식을 협력업체와의 협업,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명소·공공예식장 대관의 형태로 운영 • 대상자 및 지원금액: 해당 지역을 주소로 두어야 하고, 하객 인원(100~150명 이하)과 지원금액(150	• 작은 결혼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협업하는 시군이 많으며, 타시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함

주요 결과		시사점
방식	만 원~500만 원)은 지역별로 상이 - 타지역의 경우: 공공예식장 대관 및 협력업체와 연계 운영, 지원금 100만 원, 하객인원 제한 없으며 증빙서류 청구 시 지원금 지급 • 주요 지원 서비스: 예식장 대관(21.2%),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각 18.2%),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지원(15.2%), 스튜디오, 야외 촬영(12.1%) 순임 - 향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전통의상 및 예복 대여, 지역 공예품을 활용한 식기 및 기념품 제작 등	- 하객 인원(100~150명 이하) 및 지원금액(150만 원~500만 원)은 지역별로 상이함 - 주요 지원 서비스는 예식장 대관, 예복 및 메이크업, 웨딩 세팅 관련 물품 등임
관련 사업 추진시 애로점	• 애로점: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객 인원과 초혼의 예비 신혼부부 우선 지원 - 부조에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 해야한다는 부모님의 인식 변화 어려움 -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과 야외 예식 진행 시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실내 예식장을 모색하거나 우천시 사용 가능한 천막 대여 비용을 포함함 - 협력업체 확보 어려움이 있음 • 해결방안: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확대, 결혼협력업체 신규 발굴, 인식개선 캠페인 및 혼주교육	• 하객 인원제한과 지원금 중심의 운영은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유발, 인식개선 필요 - 야외 예식의 경우 우천을 감안한 실내 예식장 연계 필요. 하지만 실내 예식장 자체가 부족 • 홍보 강화, 협력업체 발굴,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21.7%),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17.4%), 결혼식 지원금 및 세금 감면(10.3%), 공간 확충·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기존 결혼식장과 협업 구축·혼수비용 일부 추가 할인 또는 지원(각각 8.7%) 순임	• 긍정적 이미지 제고, 공공예식장 설립 확대, 실질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정착 및 지역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 필요
기타 의견	• 기존 운영 지역은 유지하고 추가 지역 확보 및 지원 확대 -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확대 - 고연령의 미혼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한 결혼 매칭 사업 시행하여 혼인을 향상을 도모할 필요 • 관내 우수 협력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를 지역 내에서 집행하도록 유도 • 결혼식의 규모보다 예비 신혼부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 설계 필요 - 공공시설이 아닌 잘 갖추어진 야외장소 개방 모색	•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과 같이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진행 • 고연령층 미혼 농촌 총각 대상의 결혼 매칭 사업 시행, 혼인 기회 확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혼식 모델 설계 요구

5.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경북도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경북형 작은 결혼식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규모 예식 공간 다각화’, ‘예비부부 경제 지원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지역특화 모델 개발’, ‘정책추진 기반 구축’의 5개 영역에 따른 10개 정책 과제를 제안함.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비전	경북도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정착				
정책목표	경북형 작은 결혼식 문화 활성화				
정책영역	소규모 예식 공간 확대	예비부부 경제 지원 강화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정책추진 기반 구축
추진 과제	▶ 지역 특화 장소 (한옥, 공원 등) 예식 공간화 ▶ 공공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민관 협력	▶ 결혼 비용 실비 지원 확대 ▶ 예식 패키지 지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강화 ▶ 혼수(가전·가구) 비용 지원 확대	▶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우수 모델 홍보 강화	▶ 자연친화적, 공공예식 연계 테마웨딩 모델 개발 ▶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결혼 문화 기획	▶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제정

1) 소규모 예식 공간 다각화

가. 지역 특화 자원(한옥, 공원 등) 예식 공간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식 공간 확보 지원 확대

- 야외 예식 공간 발굴 및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은 ‘있다’가 2.4%로 매우 낮았으나, 이들이 선택한 예식 장소는 학교 및 교육기관(50.0%), 전통 문화시설(33.3%), 공원 및 야외 공간(16.7%)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한다’(50.0%)와 ‘매우 만족한다’(33.3%)가 전체의 83.3%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4.1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 심층조사 결과, 허례허식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예비부부들이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장소, 야외공원, 소규모 레스토랑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객 100명 내외의 소규모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경주,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공원, 정원, 문화회관, 종교시설(성당, 교회), 관공서 등을 결혼식 장소로 적극 활용한 소규모 예식 인프라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음. 반면, 야외 예식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문화 공간을 예식 장소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예식 공간 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야외 예식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등 지역 특화 장소를 예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원형 예식장 등 공공예식 공간을 신규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작은 결혼식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는 야외 예식 공간 발굴이나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즉, 공원, 숲길, 강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장소를 발굴하여 계절별 테마 야외 결혼식장으로 조성하고, 무대, 전기, 음향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또한, 서원, 고택, 향교 등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혼례 테마 예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의 특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브랜드화함으로써 전통문화시설의 결혼식장 활용을 활성화함

○ 지역 간 협력 모델 및 ‘모바일 예식장’ 모델 도입 검토

- 이외에도, 인접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예식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예약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비와 장식을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예식장(버스 또는 트럭 기반)’ 모델을 도입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순회형 이동식 예식 서비스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나. 공공 유희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 공공건축물 유희공간 리모델링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예식 공간 확보 지원 확대
- 공공시설 개방, 리모델링 및 비상업적 공간 소유주와 협력 등 예식 공간화
 - 설문조사 결과, 공공예식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공공시설(시·군·구청 예식장, 공공 회관 및 문화센터)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및 야외 공간(도립·국립공원 내 예식장, 도심 공원)이 28.1%, 전통문화시설(향교·서원, 고궁 및 한옥마을)이 19.9%, 공공기관 부속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 내 강당, 체육관 및 다목적홀)이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공공예식장을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저렴한 비용(대관료 및 부대비용: 음식, 장식, 추가 옵션 등)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환경이 30.6%, 접근성과 위치가 14.9%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층조사 결과, 시군 단위의 웨딩홀 및 공공시설 기반 예식장은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세련되고 사적인 분위기의 결혼식을 연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야외 예식의 경우 우천 등 불확실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결혼식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실내 예식 공간의 대체 확보가 불가피함
 - 따라서 관공서, 도서관, 마을회관, 문화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내 유희공간에 대해 전수조사 및 활용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간의 규모, 접근성, 주차 여건, 구조적 안전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식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 대상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예식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장소에 대해 특별교부세 또는 지역균형발전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예산은 설계비, 인테리어, 조명·음향 설비, 예식용 가구(의자, 테이블 등) 구비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에 적합한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인테리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연채광, 프라이버시 확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디자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화 설계가 필요함

- 한편,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기업 위탁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소요 감면 제도 도입, 작은 결혼식 연출 및 지역 음식 제공 등 예식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외에도 지역 내 교회, 성당(서울의 명동성당, 도림동성당 등), 사찰, 문화센터 등 지역 내 비상업적 공간 소유주와 협력하여 일반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청년(상주 명주정원)들이 예식 공간 운영, 장식, 음식 등 예식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2) 예비부부 경제적 지원 강화

가. 결혼예식 비용 실비 지원 확대

- 실제 결혼비용을 반영한 ‘작은 결혼식’ 지원금 상향 조정
 - 결혼비용 부담률 58.2%, ‘작은 결혼식’ 평균 예식비용 866.7만 원
 - 설문조사 결과, 전체 결혼비용은 평균 1,645.1만 원으로, 1,000만 원~1,500만 원(40.8%)이 가장 많았고, 1,500만 원~2,000만 원(26.3%), 2,000만 원 이상(17.6%) 순으로 조사됨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45.9%가 ‘다소 부담된다’, 26.3%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나타났음. 전체 응답의 평균 점수는 3.90점(5점 기준)으로, 결혼비용에 대한 체감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나타냄
 - 아울러,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의 부담이 결혼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58.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2025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서 결혼비용 부담률이 58.8%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수준임
 - 한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실제로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4%(6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평균 예식비용은 866.7만 원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해 듀오 결혼리서치에서 조사된 소규모 결혼식의 평균 예상 비용인 891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또한, 시·도의 소규모 결혼식 지원사업의 경우, 대다수의 시·도에서 1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충북 등에서는 공공예식장 활용 또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예식 실비지원 명목으로 1백만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소규모 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총 6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시·군에서는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원금 규모는 지역별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포항시(협력업체 100만 원 별도 지원)와 고령군이 예식 당사자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봉화군 100만 원, 경주시 3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상주시와 성주군은 각각 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금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33.3%가 200~400만 원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400~600만 원 27.1%, 600만 원 이상 24.2%, 200만 원 미만 15.4%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예비부부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결혼식 지원금이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설계 시 보다 현실적인 실비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실제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사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예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체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 내부자료, 2025)
- 특히,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규모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결혼에 소요되는 평균 예식비용과 현재 지원금 간의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여건과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금 규모를 실비 중심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조정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혼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나. 예식 패키지 지원(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강화

- 결혼비용의 23.5%를 차지하는 스투메 중심 웨딩 패키지 집중 지원 연계 필요
- 공공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약을 통한 예비부부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
 - 설문조사 결과,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중 가장 절감하고 싶은 항목은 예식홀과 웨딩패키지가 각각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물(16.1%), 예단(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예식의 형식적 요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응답자의 72.9%가 결혼식을 다시 준비할 경우 결혼비용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간소한 결혼식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보여줌
 - 이외에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위한 예식 운영 서비스 항목 중에서 예식장 대관이 평균 3.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 모바일 청첩장 및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 서비스(각 3.83점), 신랑신부 예복 지원(3.59점) 순으로 조사됨. 이는 결혼식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 그러나 심층조사 결과, 포항, 경주, 상주 등은 전문 결혼업체 지정을 통해 웨딩패키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고령, 봉화 등 일부 지역은 이러한 지원 없이 예비부부가 모든 준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준비과정에

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듀오 결혼리서치(2025)에 따르면, 결혼준비 과정에서 축소하고 싶은 지출 항목은 남성의 경우 웨딩패키지(26.4%), 예단(20.2%), 이바지(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이바지(28.4%), 예단(26.0%), 웨딩패키지(18.2%) 순으로 응답함. 이는 남녀 모두 웨딩패키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웨딩플래너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토메 중심의 웨딩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비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 혼수(가전·가구) 비용 지원 확대

-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가전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지원(3.79점) 욕구 큼
- 결혼 준비과정에서 혼수(67.8%) 항목에 대한 지출이 큼
 - 설문조사 결과,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혼수(67.8%)였으며, 다음으로 신혼여행(15.7%), 예식홀(8.6%), 예물(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출이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울러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에 대한 부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90점(5점 기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수준임
 - 한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살펴본 결과, 혼수 비용 중 가전제품 등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지원방안이 평균 3.79점(5점 기준)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25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 지출 항목 중 예식홀(38.6%)에 이어 혼수(35.2%)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듀오 결혼리서치(2025)의 혼수 품목별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 가구 항목에서는 침대가 97.4%, 대형가전 중에서는 냉장고(88.1%), 소형가전 중

에서는 청소기(50.6%)가 가장 필수적인 품목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혼수 항목 중에서도 특히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가전·가구에 대한 지원이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경상북도는 20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사업’을 통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할 예정임.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신청방법은 별도 안내될 계획임
-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원대상을 20대 신혼부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서울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신혼부부가 결혼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혼수(67.8%)에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현재 경상북도는 혼수비용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미 LG전자와 MOU 체결과 같은 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ESG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러한 접근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대안 용어 사용 필요
- 명칭의 정확성과 상징성 확보가 정책 전달력 및 인식개선에 핵심적 요소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2.4%(6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응답자의 예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7점(5점 만점)

척도)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다소 만족한다’ 50.0%, ‘매우 만족한다’가 33.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이는 실제로 작은 결혼식을 경험한 이들의 체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향후 작은 결혼식이 기존 결혼문화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자리 잡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다수 시군 지자체에서의 ‘작은 결혼식’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축소된 결혼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식은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작은 결혼식을 바람직한 결혼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이 단순히 예산을 절감한 결혼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부는 물론 이를 기획·운영하는 주체 모두가 고급스러움과 감성적 요소를 반영한 예식 연출과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사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적인 결혼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다시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를 사업명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음. 이는 정책 명칭의 정확성과 상징성 확보가 정책의 전달력 제고 및 인식개선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 서울 ‘마이웨딩’, 경기 ‘웨딩마루’, 충북 ‘함께웨딩’, 인천 ‘리본웨딩’ 등

-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마이웨딩(My Wedding)’이라는 명칭을 도입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한 결혼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는 ‘웨딩마루’, 충북은 ‘함께웨딩’, 인천은 ‘리본웨딩’ 등의 명칭을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정책 수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명칭 대신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025년부터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운동 일환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자칫 경제적 제약이나 축소된 결혼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결혼문화를 강조하는 가치 중심적 의미를 담은 명칭 도입이 필요함

○ ‘도민 공모전’ 추진 방식을 통한 ‘작은 결혼식’에 대한 대안 명칭 선정

- ‘작은 결혼식’에 대한 도민의 정책 수용성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 ‘도민 공모전’ 등의 참여적 방식을 통해 대안 명칭을 선정하고 이를 공식 정책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러한 접근은 시민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모전의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공모 명칭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이름 공모전”으로 설정하고, 주제는 ‘작은 결혼식’을 대체할 따뜻하고 가치 있는 명칭을 공모하는 것으로 함. 참여 대상은 해당 도민 전체로 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심사 기준은 창의성, 상징성, 공공성, 사용 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시상은 최우수작(상금+상장), 우수작(상품권), 장려작 등의 형태로 운영함. 선정된 명칭은 향후 도의 공식 정책 브랜드로 활용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 개발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반영함
- 공모전과 같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는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입소문 확산이 이루어져 정책의 인지도 제고와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우수 모델 홍보 강화

□ 문화적·심리적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 작은 결혼식을 환경친화적, 가족친화적, 감성 중심 의례로 결혼문화의 질적 전환이라는 방향에서 인식 전환 유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응답자의 43.1%가 ‘들어본 적은 있다’, 41.9%는 ‘모른다’, 15.0%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해당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전반적인 인식 평가는 평균 3.63점(5점 만점 기준)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44.2%, ‘보통이다’ 33.3%, ‘매우 긍정적이다’ 14.2%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경향을 보였음
 - 그 이유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혼식(19.6%), 부부 중심의 프라이빗(개인적인, 사적인) 결혼식(17.6%), 의미 있는 결혼식(15.5%), 개성 있는 결혼식(11.9%), 친환경적 결혼(1.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의 병행이 필요함
 - 인식개선 캠페인의 주요 추진 전략은 작은 결혼식을 단순히 ‘저비용 예식’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프레이밍에서 벗어나, 이를 환경친화적(eco-friendly), 가족친화적(family-centered), 감성 중심(emotion-focused) 의례로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또한 결혼의 본질을 당사자 간의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인식하고, 가치 중심적, 관계 중심적, 스토리 중심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결혼문화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감성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확산하거나, MZ 세대 맞춤형 플랫폼 활용한 해시태그 캠페인 운영
- 구체적인 홍보 전략으로는 첫째, 스토리 중심의 브랜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실제 참여 커플의 결혼 이야기와 사진, 선택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성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임. 둘째, 공공지원의 규모를 강조하기보다는 ‘선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결혼식 장소와 콘셉트, 방식 등을 소개하는 “이런 결혼식도 있어요” 캠페인(예: 북카페 결혼식, 공원 피크닉 웨딩, 고택 전통혼례 등)을 통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제시함. 셋째, MZ 세대를 주요 홍보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릴스(Reels), 유튜브 숏츠(Shorts),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등 세대 맞춤형 플랫폼을 활용함. ‘#결혼식다르게해봤다’ 등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 전략을 병행함

○ 결혼박람회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

- 한편, 결혼박람회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홍보하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소규모 웨딩의 다양한 사례와 장점을 소개하고, 예비부부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또한, 웨딩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상담, 할인 혜택,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면 실질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 ‘작은 결혼식’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은 결혼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가치 있는 결혼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나아가 이러한 박람회는 지역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성공 사례 발굴 및 미디어 활용 홍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캠페인 개최

○ 결혼식의 의미, 준비과정, 만족도, 특징 등을 중심으로 영상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배포

- 설문조사 결과, 결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웨딩플래너(컨설팅업체)가 29.0%, 지인으로부터의 정보(16.9%), 예식장 및 물품 서비스 판매자(12.5%), 그리고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7.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실제 작은 결혼식을 경험한 신혼부부와 그 가족, 지자체 사례 등을 인터뷰 및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다양한 연령 및 사회·경제적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사례를 발굴·소개함으

로써, ‘작은 결혼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된 선택이 아닌, 누구나 실현 가능한 보편적 결혼문화의 하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결혼지원 포털 내에 전용 홍보 탭을 개설하고, 실제 참여자의 체험 수기와 사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작은 결혼식 주간(Small Wedding Week)’ 운영하고 민간 결혼 관련 산업과의 협업
 -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민단체, 종교 기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은 결혼식 주간(Small Wedding Week)’을 운영함으로써, 대체형 결혼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기간 동안 전통혼례, 자연 속 결혼식, 박물관 예식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결혼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인식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등 민간 결혼 관련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웨딩 상품을 기획하고, 공동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작은 결혼식을 지속 가능한 산업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소년 및 예비부부 대상 사전 교육, 프레이밍 전략 및 메시지 설계
 -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생활문화 교육’ 또는 ‘결혼과 가족’ 관련 교과목 및 특별활동 과정에 ‘작은 결혼식’의 개념과 의미, 다양한 결혼문화에 대한 선택권 교육을 포함시켜, 청소년 및 청년층이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결혼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지자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예비부부 대상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작은 결혼식’과 관련된 실용적 정보(예식 장소, 비용 구성, 절차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선택 가능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작아서 더 기억에 남는 결혼식”, “작은 결혼, 큰 의미”, “함께 웃고, 함께 준비하는 결혼” 등과 같은 긍정적 메시지와 상징을 담은 홍보 문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체계화하고, 관련 산업 및 교육계와의 협업을 통해 작은 결혼식의 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가. 자연 친화적, 공공예식 연계 테마웨딩 모델 개발

- ‘작은 결혼식’은 자연 친화적인 야외 공간(그린 뷰, 소규모 숲속 공간) 선호 등
- 날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외 복합형 예식 공간 조성 및 보완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우리사회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2.41점(5점 척도 기준)으로, 부정적 평가(58.3%)가 긍정적 평가(10.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공예식장으로 선호되는 장소로는 ‘공공시설’(28.5%)과 ‘공원 및 야외 공간’(28.1%)이 각각 상위를 차지함. 이는 예식 장소에 대한 수요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 공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심층 조사결과, 최근 예비부부들 사이에 자연 친화적 환경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한옥,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그린 뷰 공간, 소규모 숲속 공간 등과 같은 야외형 예식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외 예식이 기후 및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 결혼식 진행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적 변수는 예비부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야외 예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상 변화에 대비한 대체 공간 마련, 임시 구조물 설치, 사전 안내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공공예식장과 야외공간을 연계한 복합형 예식 인프라 조성

-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야외 결혼식장(예: 북서울 꿈의 숲, 수원 화성행궁 야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사전 예약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낮은 편임
- 또한, 기상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하여 우천 시 예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작은 결혼식’ 정책은 기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내외 복합형 예식 공간의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외 결혼식 인프라를 발굴·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공예식장과 야외 공간을 연계한 통합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상 악화 시 대체 공간 제공 및 장비 지원이 가능한 기상 대응형 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내 예식 공간 확보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규모·개성 중심의 예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예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기존 공공시설을 예식에 적합한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인식조사 및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는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공간 및 예식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발굴 및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 반영하고 있음

나.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결혼문화 기획

□ 공간, 인프라, 서비스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지역의 민간 전문가(플로리스트, 공예가, 소규모 스튜디오 등)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별 서비스를 모듈화함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위한 예식 운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는 예식장 대관(3.88점),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모바일 청첩장(3.83점),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3.83점), 신랑신부 예복(3.59점), 케이터링(차, 다과 등)(3.48점) 등의 순임. 이는 예비부부들이 예식 공간과 연출, 편의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4.1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4.02점),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3.91점) 등의 순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와 인프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임.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공공예식 공간의 접근성 확대, 예식 진행에 필요한 운영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지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협력업체의 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가 자신들의 수요와 선호에 기반한 결혼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예식장 대여료를 제외한 진행비, 음향, 꽃, 비품, 피로연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 관련 업체와 상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예식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공공이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세부적인 예식 구성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전략으로 해석됨. 이는 작은 결혼식이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5) 정책추진 기반 구축

가.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제정

□ ‘작은 결혼식’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뒷받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결혼식 지원 조례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2025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을 비롯해 총 10곳이며(2024년 3월 14일 기준), 인천, 광주, 전북, 울산, 제주 등 5개 지역은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조례제정 현황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경상북도 고령군, 봉화군에서 「결혼예식장 이용 및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결혼식에 대한 장려금 지원의 기준, 신청자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상주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출산·전입 등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은 결혼식을 선택한 예비부부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결혼을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서 결혼문화 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과 함께 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3
2. 연구내용 및 방법	07
3. 연구 절차	09
II. 이론적 배경	11
1. 작은 결혼식 개념 및 현황	13
2.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	18
3. 작은 결혼식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31
4. 소결	44
III.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결과	47
1. 조사 개요	49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52
3. 심층조사 분석 결과	90
4. 소결	101
IV.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05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07
2.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1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표 목 차

<표 I-1> 설문조사 내용	08
<표 II-1> 혼인 및 조혼인률 현황(2020~2024)	15
<표 II-2> 민간 예식장 현황(2018, 2023)	15
<표 II-3> 경북 및 전국의 공공예식장 현황(2024)	16
<표 II-4>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	20
<표 II-5> 작은 결혼식 관련 지원 조례 현황	32
<표 II-6> 작은 결혼식 사업 관련 시군별 운영 현황(25년 기준)	36
<표 III-1> 설문조사 내용	49
<표 III-2> 심층조사 내용	51
<표 III-3> 설문조사 - 응답자 일반적 특성	52
<표 III-4> 결혼 연도	53
<표 III-5> 결혼식 장소	54
<표 III-6>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56
<표 III-7>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58
<표 III-8>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59
<표 III-9>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61
<표 III-10>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62
<표 III-11>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64
<표 III-12> 결혼문화 동의 정도	66
<표 III-13>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67
<표 III-14>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순위별 가중치)	69
<표 III-15>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순위별 가중치)	71
<표 III-1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72

<표 Ⅲ-1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74
<표 Ⅲ-1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순위별 가중치)	75
<표 Ⅲ-19>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장소 선택 이유	77
<표 Ⅲ-20>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79
<표 Ⅲ-2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순위별 가중치)	81
<표 Ⅲ-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83
<표 Ⅲ-23>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① ..	86
<표 Ⅲ-24>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② ..	87
<표 Ⅲ-2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89
<표 Ⅲ-26> 심층조사 - 참여자 일반적 특성	90
<표 IV-1>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07
<표 IV-2> 심층조사 주요 결과 및 개선점	109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 절차	9
[그림 Ⅲ-1] 결혼 연도	53
[그림 Ⅲ-2] 결혼식 장소	54
[그림 Ⅲ-3]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55
[그림 Ⅲ-4]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	56
[그림 Ⅲ-5]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	57
[그림 Ⅲ-6]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58
[그림 Ⅲ-7]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 정도	59
[그림 Ⅲ-8]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의 결혼 시기 영향 여부 ...	60
[그림 Ⅲ-9]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61
[그림 Ⅲ-10]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62
[그림 Ⅲ-11]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63
[그림 Ⅲ-12] 결혼문화 동의 정도	65
[그림 Ⅲ-13]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67
[그림 Ⅲ-14]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순위별 가중치)	68
[그림 Ⅲ-15]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순위별 가중치)	70
[그림 Ⅲ-1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72
[그림 Ⅲ-1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73
[그림 Ⅲ-1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순위별 가중치)	74
[그림 Ⅲ-19]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	76
[그림 Ⅲ-20]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	76
[그림 Ⅲ-2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이용 만족 정도	77
[그림 Ⅲ-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비용(웨딩홀 및 웨딩 패키지)	78
[그림 Ⅲ-23]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78

[그림 Ⅲ-24] 자립 결혼(주택 구입자금 제외) 가능 정도	80
[그림 Ⅲ-2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순위별 가중치)	80
[그림 Ⅲ-2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82
[그림 Ⅲ-2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84
[그림 Ⅲ-2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88
[그림 Ⅲ-29] 작은 결혼식 지원 서비스(복수 응답)	93
[그림 Ⅲ-30] 작은 결혼식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복수 응답)	93
[그림 Ⅲ-31] 작은 결혼식 활성화 필요 정책(순위별 가중치)	97
 [그림 IV-1]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	1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절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최근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는 2019년에 23만 9,159건에서 2021년 19만 2,507건으로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함(통계청, 2019; 통계청, 2021)
 -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및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결혼식 취소 및 연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전국의 민간 예식장은 2018년 770개에서 2023년 581개로 189개(24.5%) 감소한 반면, 경북은 같은 기간 44개에서 32개로 12개(27.3%)가 줄어 전국 평균보다 2.8%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 통계청, 2023)
 - 한편, 「100대 생활업종 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예식장 수는 718개이며, 경북 지역은 504개로 파악됨(100대 생활업종 현황 총괄표, 2024)
- 최근 2024년 11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1만 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7건(11.3%) 증가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통계청, 2024)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 수요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정부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이처럼 결혼식 증가로 인해 예식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도심 및 인기 웨딩홀의 예약이 급증하고 있음. 동시에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예식장 및 하우스웨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예식장에서는 대관료와 식대 등의 예식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식장에는 예비부부들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예약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예식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지자체 등에서는 공공시설이나 대학 내 컨벤션 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대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작은 결혼식 사업은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과 연계하여 검소하고 합리적인 혼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한편, 작은 결혼식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보도자료, 2013.12.9.), ‘공공시설 예식장’ 운영과 더불어 검소하고 합리적인 혼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이코노미뉴스, 2016.4.4.; 정여진 외, 2018)
 - 정부는 2015년부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공동협력 TF를 운영하고, 검소하고 합리적인 혼례문화 조성을 목표로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및 작은 결혼 박람회를 개최하고, 작은 결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정여진 외, 2018)
 -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작은결혼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작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전국 공공기관 예식장을 추천해 왔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이나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발생함(아시아경제, 2024.2.23.)
 - 경상북도 역시 2019년 고비용 결혼 문화로 인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개 시군(영주, 문경, 영양, 영덕, 봉화)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지역 기반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한 바 있음(경상북도 내부자료, 2019)
- 최근에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작은 결혼식’ 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아시아경제, 2024.2.23.)

-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비용과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76.9%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3.8%p 증가한 수치임. 또한, 도시 지역(77.4%)이 농어촌 지역(74.5%)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통계청, 2024)

□ '24년 3월 공공예식장 사업 및 정책을 재개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공공예식장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생활맞춤형서비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공공예식장 정책을 통합·정비하게 되었음(더스쿠프, 2024.11.6.)
- 즉, 정부는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48개를 추가로 개방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 또한,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며,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6.26.)
- 전국의 공공예식장은 국립시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 총 384개가 있으며, 경북에는 총 60개가 있음. 그러나 포항, 영천, 문경, 의성, 청도, 칠곡, 울진, 울릉 8개 지역은 공공예식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인터넷 웹(www.eshare.go.kr) 또는 앱 '공유누리', 2024)
-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사례로 서울시는 '나만의 결혼식' 예약 시기를 기존 예식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구시는 작은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 80쌍에게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원하였음(대구 프레스, 2024.1.12.)
- 그러나 울산 중구는 지난해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서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으며, 인천시도 2022년 '인천형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중단한 바 있음(아시아경제, 2024.2.23.)
- 2025년 현재 경북 도내에서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은 6곳(포항, 경주, 상주, 고령, 성주, 봉화)이며, 이 중 고령과 봉화는 관내 예식장 이용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결혼 협력업체를 지정하고,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식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예비부부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매력적인 예식 공간의 발굴·확대, 그리고 복잡한 결혼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식 및 결혼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가장 중요한 요소,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운영 형태, 지원 금액, 주요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선사항,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로 예식장 수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과 최근 혼인 건수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로 인해,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예식장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시켜 전반적인 예식장 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동시에 작은 결혼식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의 요구도를 파악하며, 공공예식장 운영 서비스 등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예비부부의 예식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작은 결혼식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점과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첫째, 작은 결혼식의 개념과 관련 현황,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 연구,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자료집, 단행본,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작은 결혼식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살펴봄
- 둘째, 경북 도내 미혼자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식과 결혼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수요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5개 영역으로 응답자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결혼 상태, 최종 학력, 종교, 월평균 개인 소득), 결혼식 및 결혼비용(결혼한 연도, 결혼식 올린 장소 및 선택 기준,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및 금액, 축소하고 싶은 항목, 결혼비용의 부담 정도,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결혼문화(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결혼문화와 관련한 동의 정도),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인지 정도 및 가장 적합한 장소, 이용 시 고려 요소),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인지 정도 및 인식, 그 이유, 작은 결혼식 경험 및 장소, 장소 선택의 이유, 만족도, 예식비용 및 결혼식 비용 절감 의향, 자립적 결혼 가능 정도, 작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정여진 외, 2018; 듀오, 2023) 등을 파악함

<표 I-1> 설문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일반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결혼 상태, 최종 학력, 종교, 월평균 개인 소득
결혼식 및 결혼비용	- 결혼 연도, 결혼식 장소 및 선택 기준,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 및 금액, 가장 축소하고 싶은 항목, 결혼비용의 부담 정도, 결혼식 관련 정보 경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결혼 문화와 관련한 동의 정도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사항	- 공공 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공공 예식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 공공 예식장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 정책	-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작은 결혼식을 올린 경험 및 장소, 장소 선택의 이유, 만족도, 작은 결혼식 예식비용 및 결혼식 비용 절감 의향, 자립적 결혼 가능 정도 - 작은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및 필요도

- 또한 정성적 자료확보를 위해 작은 결혼식 관련 담당자(해당 공무원 및 사업 운영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공공예식장이 아닌 경우 포함)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
- 셋째,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북지역에서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 관련 선행연구와 전국 및 경상북도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함

○ 실태조사

- 경북 지역의 예비부부 및 기혼자 총 4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관련 사업담당자(해당 공무원 및 사업 운영자)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3명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함
- 조사 기간은 2025.4.14.~2025.4.25.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및 조사설계, 조사 내용의 타당성, 조사 범위의 적정성,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자료를 확보함

3. 연구 절차

○ 연구 절차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I-1]과 같음

단계	주요 내용	
연구 방향 설정	▶ 착수연구사업심의위원회	▶ 기본수립 방향 및 연구방법 논의 ▶ 착수보고
구체화 단계	▶ 자료분석 및 조사설계	▶ 작은 결혼식 개념 및 현황, 특성 및 선행연구,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파악 ▶ 설문 및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설계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단계	▶ 조사(실태 및 심층) 분석	▶ 예비부부 및 기혼자 대상 작은 결혼식 관련 인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 중간보고	▶ 조사(실태 및 심층) 결과 분석 ▶ 요약 및 시사점
최종보고 및 보고서 발간	▶ 최종 연구사업 심의 위원회	▶ 연구결과 시사점 논의 및 정책제언 ▶ 최종보고 및 결과 반영, 보고서 수정 및 보완 ▶ 보고서 발간 및 홍보

[그림 I-1] 연구 절차

II. 이론적 배경

1. 작은 결혼식 개념 및 현황
2.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
3. 작은 결혼식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4. 소결

II. 이론적 배경

1. 작은 결혼식 개념 및 현황

1) 작은 결혼식의 개념

□ 작은 결혼식의 개념

- 결혼(結婚)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표준국어대사전)”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며,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함. 반면, 혼인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일(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되며,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함”(대한민국 민법 제 815조)
 - 즉, 결혼은 법적·사회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결혼(結婚) 또는 혼인(婚姻)은 사회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결혼식은 부부로 인정받는 자리임. 또한, 결혼식은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선언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로서 의미를 지님
 - 이에 결혼식은 문화에 따라 형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여겨지는 중요한 통과의례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식 결혼식과 전통혼례가 공존하며,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선택되어 왔음
 -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결혼은 과도한 상업화와 획일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즉,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과 획일적인 형식으로 인해 대다수 한국인들이 결혼식을 치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정현목, 2018)
- 이런 상황에서 대안적인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른바 ‘작은 결혼식’ 또는 ‘스몰웨딩’임(정현목, 2018)
 - ‘작은 결혼식’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예물과 예단이 부담이 없는 결혼식”을 의미함(이명선 외, 2015; 정현목, 2018)

- 즉,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결혼식을 의미함
- 작은 결혼식은 ‘스몰 웨딩(Small Wedding)’, ‘미니멀 웨딩(Minimal Wedding)’, ‘에코 웨딩(Eco Wedding)’ 등의 다양한 용어로도 불림
- 스몰 웨딩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규모로 예식을 진행하는 형태를 말함. 기존의 일반적인 혼례식과 달리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검소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강정희, 2018)
- 즉, 스몰웨딩은 정형화된 예식장 공간을 벗어나 야외공원, 카페나 레스토랑의 소규모 하우스, 공공기관, 고궁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식을 진행할 수 있음(이선택 외, 2018)
- 이와 같은 색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식으로는 친환경 전통 혼례식, 야외 결혼식, 집 또는 펜션 결혼식, 공공기관 결혼식, 레스토랑, 카페(소규모 하우스) 결혼식 공간 등이 있음(이선택 외, 2018)
- 최근 결혼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랑·신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인 결혼식의 형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잘 보여 주는 결혼문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의 작은 결혼식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용어 정의를 내리고자 함
- 즉, 신랑·신부 양가의 친밀한 하객들과 함께 공공예식장, 야외공간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비용을 통해 특별하고 행복함의 의미를 더한 결혼식을 의미함
- 형식적 축하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고, 가족과 절친 위주의 하객이 함께하는 결혼문화를 만들고 확산하는 것을 지원함
- 따라서 경북형 ‘작은 결혼식’은 하객 수 100명 이하(신랑·신부 양가 합산)로 제한하고, 공공예식장을 활용하며, 형식보다 결혼의 의미를 우선 생각하는 결혼식을 의미함(경상북도 내부자료, 2025.5.)

2) 작은 결혼식 관련 현황

□ 경북 및 전국 혼인 건수 및 조혼인률

- 2023년 경북의 혼인 건수 8,128건, 조혼인률 3.2%를 차지함
 - <표 II-1>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경상북도의 혼인 건수 8,128건이며, 조혼인률 3.8%로 나타남. 혼인 건수는 2022년 대비 52건 감소하였고, 조혼인율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3)
 - 반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1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7건(11.3%) 증가하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24)

<표 II-1> 혼인 및 조혼인률 현황(2020~2024)

(단위: 건, %)

구분	혼인건수	조혼인율
2024.11(전국)	18,581건	-
2023/23.11 (전국)	193,657/16,694건	3.8
2023	8,128	3.2
2022	8,180	3.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2024

□ 경북 및 전국 민간 예식장

- 2023년 경북의 민간 예식장 수는 32개, 2018년에 비해 27.3% 감소함
 - <표 II-2>의 통계청 민간 예식장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경상북도의 민간 예식장 수는 32개로, 2018년 44개에서 12개(2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민간 예식장 수는 770개에서 581개로 189개(24.5%) 줄어듦.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2.8%p 더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통계청, 2018, 2023)

<표 II-2> 민간 예식장 현황(2018, 2023)

(단위: 개)

구분	2018	2023
경북	44	32
전국	770	581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 2023

□ 경북 및 전국 공공예식장

- 2024년 경북의 공공예식장 수는 총 60개, 전국은 총 387개로 집계됨
 - <표 II-3>의 ‘공유누리 공유지도 우리마을 예식장소 대관 안내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의 공공예식장 수는 총 60개로 집계되었음
 - 이 중 김천(17개), 경산(13개), 고령(11개) 등 3개 지역은 1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5개), 성주(3개), 안동(2개), 예천(2개) 등 4개 지역은 2개 이상 5개 이하의 공공예식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7개 지역(구미, 영주, 상주, 청송, 영양, 영덕, 봉화)은 각각 1개의 공공예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포항, 영천, 문경, 의성, 청도, 칠곡, 울진, 울릉 등 8개 지역은 공공예식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전국의 공공예식장 수는 총 387개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이 65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60개, 경기 51개, 인천 41개, 서울 34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3> 경북 및 전국의 공공예식장 현황(2024)

(단위: 개)

구분		구분	
경상북도	60	전국	387
포항시		서울	34
경주시	5	부산	14
김천시	17	대구	17
안동시	2	인천	41
구미시	1	광주	5
영주시	1	대전	2
영천시		울산	2
상주시	1	세종	1
문경시		경기	51
경산시	13	강원	65
의성군		충북	19
청송군	1	충남	11
영양군	1	전북	13

구분		구분	
영덕군	1	전남	26
청도군		경북	60
고령군	11	경남	26
성주군	3	제주	
칠곡군			
예천군	2		
봉화군	1		
울진군			
울릉군			

자료: 인터넷 웹(www.eshare.go.kr) 또는 앱 '공유누리', 2024

2.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

1) 작은 결혼식 특성

□ 작은 결혼식의 경제적 합리성

- 결혼비용 절감은 신혼부부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저축 여력이 확보한 데 기여하여 향후 주택 구매 및 자녀 양육에 긍정적 영향 미침. 이는 궁극적으로 결혼율 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통적인 결혼식은 예식장 대여료, 식사 비용, 웨딩 패키지 등으로 인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작은 결혼식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이로운넷, 2019)
- 고급 호텔이나 대형 웨딩홀 대신 공공 웨딩홀, 작은 예식장, 야외공원, 카페 등을 활용하고, 하객 수를 최소화하여 식대를 절감하며, 뷔페 또는 코스 요리를 선택함
- 또한, 드레스와 메이크업은 간소한 스타일로 선택하며, 예물 및 혼수는 최소화하고, 사회, 축하, 이벤트 등의 부대비용을 줄임으로써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결혼문화를 실현할 수 있음

□ 작은 결혼식의 친환경적 요소

- 작은 결혼식은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자원 낭비, 음식물 쓰레기, 탄소 배출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 재활용 가능한 자재, 친환경 식단 등을 활용할 경우 더욱 환경친화적인 결혼식이 가능함
- 종이 청첩장 대신 QR 코드 초대장, 이메일, 모바일 청첩장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청첩장 사용을 통해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음
- 드레스, 장식, 테이블 세팅에 친환경 소재(재활용 원단, 대나무 식기 등)를 활용하고, 일회성 꽃 장식 대신 건조된 꽃(드라이플라워) 또는 생화 화분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웨딩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작은 결혼식의 개인 맞춤형 결혼식

- 신랑·신부의 개성과 가치관 및 취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보다 의미 있고 특별한 맞춤형 결혼식을 기획할 수 있음
 - 야외 공원, 카페, 갤러리, 해변, 산장, 개인 정원 등 특별한 공간은 물론, 예술적·자연 친화적·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등 맞춤형 예식 장소 선택이 가능함
 - 전통적인 드레스 및 예복 맞춤형 대신, 신부나 신랑의 개성을 반영한 웨딩 스타일(한복, 캐주얼, 수트 스타일 등) 또는 테마에 맞춘 의상 선택이 가능함
 - 결혼식 형식을 신랑·신부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스토리를 반영한 이벤트 구성이나 신랑·신부가 직접 준비한 노래, 댄스 공연 등 맞춤형 웨딩 프로그램도 연출할 수 있음
 - 신랑·신부의 취향을 반영한 음식 제공이나 테마에 맞춘 특별한 음식 연출이 가능하며, 맞춤형 웨딩 장식 및 소품, 친환경 및 DIY 웨딩 아이템 활용, 맞춤형 기념품과 감사 선물 등 모든 요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음

□ 작은 결혼식의 가족 및 친밀한 관계 중심성

- 가족과 친밀한 관계의 하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결혼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하객 한 명 한 명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 결혼식을 가족 간의 진정한 축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신랑·신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척들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음
 -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랑·신부와 하객 간의 감성적인 교류가 가능함. 또한, 포토 타임을 통해 하객과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

2)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

□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

-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II-4>와 같음

<표 II-4>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정현목 (2018)	작은 결혼식의 대두에 따른 의식 변화와 실천: 결혼 당사자의 탈정형적 예식 추구에 관한 사례연구	- 기존의 예식 방식에 회의적인 젊은 예비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이를 실천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한국 사회의 결혼문화는 부조금, 예물, 예단 등 부모 세대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큰 만큼 자녀 세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자녀 세대는 비교적 변화를 시도하기 쉬운 예식 당일의 절차에 집중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결혼식의 탈정형화를 시도함 - 본 연구는 결혼식의 탈정형화를 추구하는 자녀 세대와 전통 및 친족 의무를 중시하는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사례연구임
정현목 (2021)	한국의 예식문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작은 결혼식’의 대두 배경과 의미	- 젊은 예비부부들은 과도한 비용 부담과 획일적인 형식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 전반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이로 인해 결혼 문화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상업화되고 획일적인 고비용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었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의 구체적인 형태나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작은 결혼식은 ‘예식의 탈정형화 추구’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님
정현목 (2024)	‘코로나19 시대’의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결혼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례연구	- ‘코로나19 시대’에 결혼식을 치른 부부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 살펴본 사례연구임 - 이들은 엄격한 방역지침 아래 제한된 하객 인원수에 맞춰 예식을 준비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 - SNS와 동영상 등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결혼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냄 - 팬데믹 기간을 겪으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결혼식의 일부 요소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이 같은 변화는 이미 잠재해 있었으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문화적 관성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움직임이 팬데믹과 방역지침을 기회 삼아 현실화한 측면이 있음
이명선 (2015)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	- 본 조사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선호하는 결혼의 방식, 결혼식 규모 및 비용부담, 결혼 관련 정보 수집방법, 결혼 요소별 인식과 실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 및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조사함 - 결혼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가 가장 큰 문제임. 선호 결혼식은 ‘실속있는’, ‘소규모’의 ‘당사자 주도형’ 결혼식임 - 결혼비용 준비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또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한,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이란 경제적 부담이 적고 결혼의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면서 예물·예단 부담이 없는 결혼식을 말하며, 정부에서는 예식장소 및 물품대여 지원이 시급함 -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예식 장소 대여, 결혼 관련 물품대여, 결혼 자금 융자지원의 항목은 ‘결혼 과정에서의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작은 결혼식’을 포함한 다양한 결혼 관련 정보에 대해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모델의 개발-홍보’에 대해서는 남성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은 결혼식의 확대와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김소영 · 홍승아 · 이아름 (2014)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고비용의 결혼문화는 결혼당사자들뿐 아니라 부모세대에게도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 지연,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결혼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결혼한 기혼자(또는 결혼 예정자)와 혼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혼자 400명 중 73.6%가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 호화·사치 결혼풍조의 원인으로는 ‘남만큰은 결혼식을 뒤흔치지 않게 치러야 한다는 의식’(27.6%), ‘물질만능주의 사회 풍조’(24.6%), ‘사회 지도층의 과시적 결혼식’(21.5%)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체면 중시 문화와 과시적 경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한편, ‘신뢰하고 따를 만한 모범적이고 건전한 결혼 모델이 부족한 점’(17.4%)도 호화·사치 풍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새로운 결혼문화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응답자의 50.9%는 ‘가까운 친척과 친구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으며, 작은 결혼식 캠페인에 대해서는 69.6%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으로는 ‘홍보 캠페인 전개’(26.3%), ‘다양한 정보 제공’(22.4%), ‘작은 결혼식에 동참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대출 금리 인하’(18.5%) 순으로 응답함 - 정책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과시·체면 결혼식 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족 관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안함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정여진 · 신승배 (2018)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는 가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과시적 소비문화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고비용 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결혼문화 전반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성차별적 관행 또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제주지역은 호텔 결혼식이 매우 대중화된 상황에서, 신랑·신부 및 혼주를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와 결혼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성평등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혼예식 및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예식장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 - 봉화군, 고령군, 괴산군 등에서는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치르는 지역 주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결혼 지원 사업보다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함. 주요 내용은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콘텐츠 발굴, 마을 결혼식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공공시설 예식장과 연계한 작은 결혼식 확산 등임 - 연차별로 2016~2018년도까지 50백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18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없음 - 제주지역 공공 예식장은 2017년 기준 2곳으로 전통 혼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남원생활체육관은 결혼 전담 인력이 없으며, 1984년부터 합동결혼식을 진행해 왔고(2016년 12월 기준 555쌍),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예식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휴먼라이프 연구소가 발표한 『2018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자금은 2억 2,974만 원으로 나타남 -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자금은 3억 3,050만 원으로 나타남(듀오, 2023.7.6) - 각 항목별 평균 비용은 주택 2억 7,977만 원, 혼수 1,573만 원, 예식홀 1,057만 원, 예단 797만원, 예물 739만 원, 신혼여행 485만 원, 웨딩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333만 원, 이바지 89만 원임 -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중 3명(75.4%)이 우리 사회의 결혼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를 과도하다고 응답함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 정책 제언, 단기과제는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 발굴·지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혼부부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 제주 결혼포털 사이트 구축 및 결혼 멘토단 운영임. 중기과제로는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웨딩 박람회 정례화 및 활성화가 있으며, 장기과제로는 합리적 결혼문화 진작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제안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시대 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론회	- 호화 혼수와 과시적 결혼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일반 서민들의 모방 관행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 우리 사회 혼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혼례문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통계청 보도자료 (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음.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데, 그 차이는 11.5%포인트이며, 특히 미혼 남녀 간에는 1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음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15.4%), ‘고용 상태 불안정’(12.9%) 순으로 나타남 -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4명은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함 -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 및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9%로, 2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함. 도시 지역(77.4%)이 농어촌 지역(74.5%)보다,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문호 (2014)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전국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관혼상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체 응답자의 56.1%가 ‘혼례’를 꼽아,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과거부터 지속된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과제인 ‘비정상적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과제가 선정됨 -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우리나라 혼례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합리적인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혼례문화 실태와 문제점 분석(경제적 측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40.4%,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평균 결혼비용은 여성이 2,883.3만 원, 남성이 9,588.1만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원으로 조사됨 - 결혼비용 중 당사자가 스스로 마련하는 금액은 남성이 4,443.2만 원(46.3%), 여성이 1,450.7만 원(50.3%)으로, 전체 결혼비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혼례비용을 1인당 GNP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 미국의 4.8배, 일본의 3.3배, 영국의 3.2배, 대만의 3.7배, 싱가포르의 7.3배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적 측면: 한국갤럽이 2013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식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결혼식 개선 필요사항으로 ‘호화·사치 결혼식’이 31%로 가장 많이 지적됨 - 우리나라의 양가 하객 총 규모는 평균 343명인 반면, 미국·일본·영국·대만·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체로 50~100명으로, 우리나라 하객 규모의 15~30% 수준에 그침. 결혼 성수기인 3~5월과 10~12월에는 월 1천만 명 이상, 연간 1억 명 이상이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됨 - 문제점: 혼례의식의 사치화, 남녀 불평등한 혼례의식 존속, 과도한 하객 초청에 따른 교통혼잡 등 사회 불편사항이 지적되고 있음 - 공공사례: 청와대 사랑채 혼인예식장 운영, 행정안전부 결혼식 장소 무료 개방,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00쌍’ 캠페인, 그리고 혼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 민간사례: ‘1000명 작은 혼인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 (사)청년여성문화원 ‘작은 혼례 운동 사업단’ 운영, 포스코 ‘작은 결혼식’ 운동 등이 있음 - 시사점: 소극적인 법률 제한, 정부의 노력 대비 효과 미미한 성과, 민간의 노력 한계, 무료예식장 중심의 사업 구조가 지적됨 - 추진 방향: ‘작은 결혼식’을 실천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음. 이를 위해 검소한 혼례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검소하면서도 개성 있는 혼례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지도층과 공식사회가 건전한 혼례문화를 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 추진과제: 민·관 협력 도민 인식 캠페인 전개 및 참여 확산, 예비부와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검소한 공공형 혼례 모형 개발 및 보급,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대, 경북 도 문화자원과 연계한 전통 예식 권장, 그리고 ‘작은 결혼식’ 정보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음
여성가족부 (2016. 12)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결혼은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최근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혼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음 -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혼 준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방안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 고비용 혼례문화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적 기반으로 혼례문화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을 검토해야 함. 또한, 법적 기반으로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실태조사 결과: ‘대국민인식조사(2012)’ 결과, 전 세대가 호화 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결혼문화 및 비용에 관한 인식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결혼비용은 예상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방안 조사(2014)’에서 주목할 점은 응답자의 약 절반이 ‘가까운 친척과 친구만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했으며, 반면 작은 결혼식 캠페인에 대해서는 약 3분의 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임 -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인식적으로는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민간업체인 웨딩플래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오히려 작은 결혼식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결혼식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결혼비용에 대한 부모 의존,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대행 서비스 이용에 따른 문제가 지적됨.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대뿐 아니라, 결혼준비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대행업체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강화: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건전혼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건전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결혼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결혼준비 대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편입, 표준약관 제정, 그리고 결혼준비 대행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결혼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준비 대행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편입, 표준약관 제정,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김두환 (2013)	결혼비용 실태 및 소비자	- 본 조사 대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식장, 사진, 드레스, 피로연 등의 선택 정보를 조사한 결과, ‘웨딩플래너 컨설팅업자’ 이용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예식장 관련 사업자’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인식 조사	23.2%, ‘온라인 개인 블로그 및 카페’ 22.1%, ‘가족·친지·친구’ 16.7%, ‘정부 공공기관’ 6.2%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절차, 예식, 풍습 등의 정보 취득 경로는 ‘가족·친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개인 블로그 및 카페’ 23.6%, ‘예식장 관련 사업자’ 23.0%, ‘웨딩플래너 컨설팅업자’ 22.6% 순으로 나타남 - 결혼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별 소비자의 신뢰도는 ‘가족·친지·친구’가 9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웨딩플래너 컨설팅업자’ 75.7%, ‘온라인 개인 블로그 및 카페’ 69.9%, ‘정부 공공기관’ 69.1%, 결혼식장 및 사진, 드레스, 피로연 등의 사업자 53.7% 순으로 나타남 - 결혼식 장소로는 예식장 및 웨딩홀이 6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교시설 19.0%, 공공시설(관공서, 학교, 회사 등) 9.4%, 호텔 6.1%, 별장 0.1% 순으로 나타남 - 결혼식장 선정이유는 비용의 경제성(31.4%), 교통 및 주차 편리성(30.2%), 고급스러운 분위기(15.4%), 부대시설 편리성(11.6%), 충분한 예식 시간(6.7%), 경건한 분위기(4.4%) 순으로 나타남 -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결혼에 호화·사치 풍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85.0%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건전한 편’이라는 응답은 15.0%에 그쳤음 - 결혼문화가 호화사치 풍조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남들만큼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는 의식’이 27.6%로 가장 높았고, ‘물질만능 사회풍조’ 24.6%, ‘사회지도층의 과시적 혼례 모방’ 21.5%, ‘건전한 결혼 사례 및 모델 부재’ 17.4%, ‘결혼사업자 및 언론의 호화사치 조장’ 6.1%, ‘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2.8% 순으로 나타남 - 모범적 결혼문화 사례로는 공공시설에서 비용을 절감한 작은 결혼식과, 최소한의 하객 초청 및 라이브 음악을 통한 축제 분위기의 개성 있는 결혼식이 있음 - 개선방안으로는 건전한 결혼 소비문화 진작, 결혼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비교 정보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 결혼시설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강정희 (2018)	스몰웨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해 젊은층의 결혼 포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0.4%, 여성 19.4%에 이르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높은 결혼 비용은 경제적 부담일 뿐 아니라, 획일적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스몰웨딩은 경제적이면서 차별화된 결혼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임 - 2017년 여성가족부는 스몰웨딩을 저비용·검소한 결혼문화를 지향하는 캠페인 속에서 ‘예식 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결혼식’으로 정의함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 양서린(2014)은 스몰웨딩을 과소비를 줄이는 검소하고 건전한 결혼식으로, 김연수·이인성(2016)은 개성을 반영한 특별한 결혼식으로 각각 정의함 - 한국 스몰웨딩 문화는 미국의 일반 예식 스타일에 근거하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용 웨딩 공간이 부족해 집, 교회, 관공서 등에서 결혼식을 올림. 집에서의 결혼식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가족과 친지가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이것이 스몰웨딩의 본질에 가장 가까움 - 스몰웨딩은 웨딩플래너 없이 당사자가 직접 준비하는 셀프웨딩으로, 획일적인 형식을 벗어나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며, 지인과의 추억을 쌓고 시간·장소에 제약이 적음 - 스몰웨딩의 유형에는 숲속, 해변, 캠핑, 야외 수영장, 카페·레스토랑, 콘서트, 펜션·게스트하우스, 전통혼례, 공공시설, 종교 예식, 뮤지컬 웨딩 등이 있음 - 스몰웨딩 활성화를 위해 인식 전환, 온라인 마켓 및 디렉팅 서비스 활용, 가상 커플 전시회, 캠페인 서약 운동, 무료 결혼식장 제공, 공유 공간 지원, 산림청 숲속 결혼식 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제안됨
이선영 · 김주덕 (2018)	스몰웨딩에 관한 소비자 인식 및 선호도 연구	- 결혼식 선호도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스몰웨딩을 선택했으며, 일반 웨딩과 호텔 웨딩이 뒤를 이었음. 스몰웨딩 선호 이유 중 ‘본인의 의사’가 가장 많았음 - 스몰웨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대다수가 이를 알고 있었고, 48.5%가 ‘소규모 결혼식’을 떠올렸으며, 스몰웨딩 참여 의향도 높게 나타남 - 스몰웨딩 시 43%의 소비자가 장소 선택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꼽았으며, 적합한 장소로는 소규모 하우스나 카페를 가장 많이 인식하였음 - 스몰웨딩 진행 시 사진 촬영은 62.3%가 전문 작가에게 맡기길 선호했으며, 신랑과 신부의 당일 의상으로는 75.8%가 드레스와 턱시도를 선택했음.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는 49.5%가 전문 샵에서 준비하겠다고 응답함
임소희 (2017)	작은 결혼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작은 결혼식은 기존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최소화하고 결혼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의를 지님. 특히, 소비자의 인식이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작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여 작은 결혼식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것임 - 소비자들은 작은 결혼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작은 결혼식이 본래 추구한 허례허식 탈피와 경제적 효율성 인식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시장 판도를 바꾸는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웨딩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함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이순기 (2021)	한국 웨딩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웨딩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커서, 2011년 고용노동부는 이를 신성장산업 8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 이를 통해 웨딩 종사자들의 일자리 확대와 웨딩 전문인력 양성 시대를 열었음 - 웨딩산업은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으나, 새로운 마케팅 소재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발전 방안으로는 정부의 결혼 지원 정책 강화, 한류 문화를 활용한 웨딩산업의 글로벌화, 환대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스몰웨딩 및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언택트(비대면) 결혼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음
김현미 (2019)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작은 결혼식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 작은 결혼식에 대해 Kang(2016)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담을 주는 요소와 절차를 줄이거나 생략한 경제적인 결혼식이라고 정의하였고, Son(2014)은 허례허식과 고비용 혼례절차를 배제하며 결혼의 의미를 살린 검소하고 간소한 결혼식으로 설명함 - Lee(2018)는 작은 결혼식을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 가까운 지인만을 초대해 결혼의 의미와 가치, 개성을 존중하는 차별화된 결혼식으로 정의하였고, Im(2018)은 확실성, 체면,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전통 결혼식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린 간소화된 의례 의식이라고 설명함 - Ju & Hong(2015)은 작은 결혼식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음. 첫째,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결혼비용을 최소화하며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시하는 ‘실속 있는 의미추구형’, 둘째, 일반 웨딩홀을 벗어난 장소에서 색다르게 구성하여 기억에 남는 ‘차별화된 특색추구형’, 셋째, 축의금을 받지 않고 초대 인원과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하는 ‘탈관행적 예식추구형’임 - 사례 분석 결과, 작은 결혼식에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항목으로는 장소 대여비용, 피로연 비용, 예복 비용, 화환 및 장식 비용, 사진 촬영 비용 등이 많았으며, 혼수, 주택 및 신혼 비용, 예단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TV 광고보다 인터넷 광고를 더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홍보 및 광고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보도와 소비자의 관심 유발이 필요함 - 소비자들은 작은 결혼식 장소로 공공기관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랑신부를 만족시킬 만한 예식 여건을 갖춘 공공시설이 부족함을 의미함.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장소 대여를 넘어 지리적 적합성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선정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색형 작은 결혼식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웨딩 장식, 음향, 조명 등의 장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가의 대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하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 작은 결혼식을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과정에서 장소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장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대여업체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작은 결혼식의 특성들을 모듈화하여 신랑신부와 가족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듈을 조합해 적용하는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즉,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신랑신부가 명품 드레스를 착용하더라도 종교 시설에서 소수의 인원만 초대하고 피로연을 생략하는 경우도 작은 결혼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또한, 호텔에서 소규모 가족과 친지만을 모시고 축의금이나 화환을 생략한 경우도 작은 결혼식의 모델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작은 결혼식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그 개념을 확대·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신랑신부가 명품 드레스를 착용하더라도 종교시설에서 많은 인원을 초대하고 피로연을 생략하는 경우나, 호텔에서 소규모 가족과 친지만을 모시고 축의금과 화환을 생략하는 경우도 작은 결혼식의 모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결혼 문화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 체면치레 등 주변 사람들의 인식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예식비용만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수, 예단, 신혼여행, 주택 등 예식 외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 절감 사례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과 관련한 현행 문제점 개선, 다양한 모델 제안, 정책 개발 등이 공개적이고 활발하게 논의될 때 비로소 결혼식 문화의 개선과 질적 성장이 가능함
임소희 · 이미혜 (2020)	작은 결혼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인지적 태도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결혼비용의 과다 부담 등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작은 결혼식이 모범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결혼 당사자인 최근 소비자들은 작은 결혼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남 - 작은 결혼식은 획일적이고 체면이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결혼문화에서 벗어나, 허례허식과 과시적 절차를 배제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린 스몰웨딩, 하우스웨딩, 셀프웨딩 등 간소화된 의례 의식으로 정의됨 - 소비자 인식과 구전 의도에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인지적 태도와 구전 의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반면, 경제적 요인은 인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구전 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작은 결혼식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 작은 결혼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웨딩 이벤트 업계에서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지양하고, 예식 장소 장식에 필요한 플라워, 조명 등의 소품 공유와 같은 실용적인 상품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시급함 - 웨딩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준거집단, 구전, SNS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로 교류되지만, 실제 하객으로 참여해 경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김성연, 2017). 이에 감소한 결혼식의 대안 장소로 인식되는 공공시설 대관 활성화를 통해 물리적 시설을 확충하고, 매력 요소를 체험할 기회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작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새로운 결혼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결혼문화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숙과 계몽 정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3. 작은 결혼식 관련 법적 근거 및 국내 사례

1) 작은 결혼식 관련 법적 근거

□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 조례 제정의 의의와 목적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성 사업의 범위 및 지자체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주로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들어「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이에 따라 작은 결혼식 활성화, 공공예식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공예식장 이용에 따른 비품 및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또한 함께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작은 결혼식 관련「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2024년 3월 14일 기준으로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2곳임.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작은 결혼식 활성화, 공공예식장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공예식장 이용에 따른 비품 및 운영비 지원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대전 서구는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 조례가 논의되던 2019년 당시 혼인 건수는 약 2,200건으로 15년 전보다 28%나 감소한 상태임(대전 MBC뉴스, 2020.11.16)
- 충남, 전남, 경남 김해시는 각각 2021년 2월과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이후 2022년에는 부산, 2023년에는 전남 완도, 대구, 강원 강릉, 서울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됨. 2024년에는 세종, 경남 양산, 대전에서, 2025년에는 충남 당진에서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 아직까지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광주, 전북, 울산, 제주 등 총 5곳임

<표 II-5> 작은 결혼식 관련 지원 조례 현황

지역명	법령명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여성가족과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족친화과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가족과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인구여성가족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여성보육과
강원도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녹지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당진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치행정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년인구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인구정책실
고령군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가족행복과
봉화군	봉화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교육가족과

2)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관련 운영 현황 및 국내 사례

- 공공예식장은 운영 주체, 시설 유형, 서비스 및 지원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 운영: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 내 일부 공간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형태임
 -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지방자치단체가 예식장 운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모델
- 시설 유형에 따른 공공예식장 분류
 - 행정기관 내 예식장: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공공건물 내 마련된 예식장으로, 주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서비스를 제공(서울시청 ‘작은 결혼식장’, 부산광역시 행복결혼식장)함
 - 공원 및 자연 공간 활용 예식장: 도심공원, 국립·도립공원, 수목원, 해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공공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예식장(서울숲 작은 결혼식, 남산공원 작은 결혼식)
 - 문화·역사 시설 내 예식장: 박물관, 미술관, 전통문화재(고택·한옥마을) 등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예식장(덕수궁 정관헌 결혼식, 전주 한옥마을 전통혼례장)
 - 복합 커뮤니티 시설 내 예식장: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컨벤션센터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되는 다목적 예식장(성동구 작은 결혼식장)
 - 종교 및 공공기관 연계 예식장: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예식장(봉은사 전통혼례, 성당 내 작은 결혼식)
- 서비스 및 지원 방식에 따른 분류
 - 무료 또는 저비용 대관형: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며, 예식 진

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인력만 지원

- 패키지 지원형: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일부 장식, 사회자, 사진 촬영 등 기본적인 결혼식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식
- 맞춤형 선택형(Customized Model): 예식 장소만 제공하고, 부가적인 서비스는 신랑·신부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 국내 공공예식장의 문제점

- 작은 결혼식 관련 공공예식장은 첫째,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둘째, 예약 경쟁 및 접근성 문제 셋째, 홍보 및 인식 부족 넷째, 행정적 지원 부족 및 지속 가능성 문제, 다섯째, 문화적·사회적 수용 한계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짐
-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민간 웨딩홀에 비해 시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수용 능력이 제한적임. 일부 공공예식장은 기본 조명, 음향, 편의시설이 미흡해 예식 운영에 불편이 있으며, 예식 공간의 다양성이 부족해 일반 실내 예식 외에 맞춤형 웨딩을 원하는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예약 경쟁 및 접근성 문제: 수도권 지역 공공예식장은 예약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서울시, 2022). 반면, 지방은 공공예식장이 적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공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홍보 및 인식 부족: 공공예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많은 예비부부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신혼부부는 공공예식장이 민간 웨딩홀에 비해 격식이 덜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선호도가 낮은 경우도 있음
- 행정적 지원 부족 및 지속 가능성 문제: 공공예식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정 지원이 부족하며, 운영 인력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적·사회적 수용 한계: 공공예식장의 소규모 결혼식 형태가 일부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며, 고급 호텔 웨딩, 맞춤형 결혼식 등 상업화된 결혼식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예식장의 단순한 형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는 예식 공간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운영 방식 개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선, 다양한 결혼식 형태 도입,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함
- 홍보 강화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예식장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야 함.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 모델 도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운영 현황

○ 작은 결혼식 사업 시군별 운영 현황

- 2024년 기준 경북 도내 작은 결혼식 사업은 경주(3커플 지원/커플당 300만원), 상주(6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고령(7명 지원/1명당 150만원), 성주(2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봉화(3명지원/1명당 100만원) 등에서 추진되었음
- 2025년 기준으로는 포항(5커플 지원/커플당 150만원), 경주(4커플 지원/커플당 350만원), 상주(6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고령(7명 지원/1명당 150만원), 성주(2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봉화(3명 지원/1명당 100만원)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경북 도내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시군은 2024년 기준 5개, 2025년에는 6개에 불과함. 이는 일부 지역에만 사업이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 주요사업 내용은 결혼협력업체 지정 및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임

- 상세히 살펴보면, 포항과 경주는 결혼협력업체 지정하고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장소, 웨딩세팅, 신랑신부 예복/헤어/메이크업, 부케, 혼수일체 등)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상주는 식비를 제외한 예복,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을 지원하며, 고령은 관내 예식장 이용 시 장려금을 지원함. 성주는 관내 희망 장

- 소 식장 세팅, 웨딩용품(예복, 메이크업 등), 기념액자 비용경감 지원, 보조 인력, 사진촬영 인력 지원, 케이터링(차, 다과) 등을 지원함
- 한편, 경북도는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영주, 문경, 영양, 영덕, 봉화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작은 결혼식장을 조성한 바 있음(경상북도 내부자료, 2019)
 - 하지만 최근 일부 시군에서는 작은 결혼식 사업이 취지에 맞게 하객 인원 제한 등의 지원 조건을 두고 있으나,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내 작은 결혼식장 외 예식장이 없거나 예식 수요가 너무 적은 지역도 있음

<표 II-6> 작은 결혼식 사업 관련 시군별 운영 현황(25년 기준)

지역명	사업명	사업내용	기타
포항	작은 결혼식	- 결혼협력업체 지정 및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 (장소, 웨딩세팅, 신랑신부예복/헤어/메이크업, 부케, 혼수일체 등)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함
경주	작은 결혼식	- 결혼협력업체 지정 및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 지원(웨딩세팅, 예복, 헤어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	
상주	작은 결혼식	- 식비를 제외한 예복,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 지원)	
고령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관내 예식장 이용 시 장려금 지원	
성주	작은 결혼식	- 관내 희망 장소 식장 세팅, 웨딩용품(예복, 메이크업 등), 기념액자 비용경감 지원, 보조인력, 사진촬영 인력 지원. 케이터링(차, 다과) 등	
봉화	작은 결혼식	-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또는 혼주	관내 예식 수요가 적음

자료: 경상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 내부자료, 2025.3.18.

□ 작은 결혼식 관련 국내 사례

○ 서울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서울숲 야외 예식장, 남산공원, 문화비축기지 등 다양한 공공 공간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은 예식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서울시, 2022)

■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 운영공간: 북서울 꿈의숲 등 23개소(신규 19개소, 기존 4개소)
- 운영방법: 결혼 운영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상담 및 예식 진행
 - 서울시 장소 제공, 결혼업체 예식 운영하는 공동협력사업(비예산)으로 추진
 - 결혼식 예약정보시스템 운영(패밀리서울), 상담전화 운영(☎1899-2154)
- 사업내용: 예식공간 제공 + 웨딩상담·기획 + 예식진행



- 진행절차: 북서울 꿈의숲 등



※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보도자료(2023.3.27.)

○ 경기도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 사업’

-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활용

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음. 경기도는 신랑·신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기획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경기도청, 2021)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 사업」

- 운영대상: ‘작은 결혼식’은 실속 있는 야외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경기도 운영공간: 수원시(잔디마당, 수원시박물관 옥외시설), 부천시(행복놀이터, 한옥체험마을 잔디광장, 소향관, 소사홀), 용인시(시민예식장), 성남시(너른못), 여주시(감고당), 고양시(일산호수공원), 의왕시(의왕시청 대회의실)
- ※ 경기도 공공웨딩홀 모음집
- 운영방법: 경기공유서비스 공공웨딩홀 대관에서 예약 신청함
 - － 경기도내 총 10개소 장소 제공 소개, 유료 3곳, 무료 7곳 예약 가능
 - － 결혼식 예약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전화 신청 접수



○ 전통혼례와 결합한 작은 결혼식(전주 한옥마을)

- 전북 전주는 전통혼례 문화와 작은 결혼식을 접목해 한옥마을에서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는 전통문화 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전주시청, 2020)

○ 카페·야외 정원에서 진행되는 작은 결혼식

- 최근에는 카페, 펜션, 야외 정원 등에서 소규모 하우스 웨딩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주도의 ‘소소웨딩’은 한적한 자연 속에서

30~50명 규모의 예식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제주관광공사, 2021)

- 제주형 작은 결혼식은 작은 결혼식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결혼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민 대상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음(생활공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2018)
- 작은 결혼식 정보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한 UCC공모전, 작은 결혼식 플랜 & 스토리 전시회, 작은 결혼식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음(생활공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2018)

○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부산시는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과 예비부부 결혼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예식 관련 비용(꾸밈비용, 대관료, 촬영, 이벤트 등)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경남도민뉴스, 2025.2.6.)
- 예비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식장을 먼저 예약한 후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 됨. 예식장의 상세 정보와 예약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내 ‘공공예식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을 거쳐 예약을 진행할 수 있음(경남도민뉴스, 2025.2.6.)
- 지원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예식비용을 청구하면, 사실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됨
- 현재 부산지역 내 개방된 공공예식장은 충렬사 야외마당(전통혼례), 서구청 다목적홀, 남구 평화공원 등 12곳이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예식장으로 활용 가능한 청사,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방할 계획임(경남도민뉴스, 2025.2.6.)

■ 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 지원액: 1쌍당 최대 100만 원 이내 →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신청자격) 1명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은 둔 예비부부
- (예식전)
 - 예식장 예약: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상세내용 시 누리집 참조 > www.busan.go.kr/depart/family07
 - 사업지원 신청: ①보조금24 누리집 신청(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검색) 또는 ②이메일(baetae04@korea.kr) 접수
※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사업참여 동의서
- (예식후) ※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신청 : 이메일(baetae04@korea.kr) 접수
※ 제출서류: ①지원금 신청서 ②지출증빙자료
※ 본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타인 명의(배우자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제외)
 - 선정방법: 시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선정 ▶ 선정자 개별 통보('25. 3. 7.한)
※ 구·군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1
※ 부산시 2025년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제 2025-646호

○ 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

- 대구시는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한해

동안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대구시 예비부부 각 80쌍을 대상으로 예식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대구광역시 뉴스룸, 2024.1.11)

- 지원 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비용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다만,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친지 식사, 연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이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대구광역시 뉴스룸, 2024.1.11.)
-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 예식 장소, 예식비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비용 청구를 하면, 사실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됨(대구광역시 뉴스룸, 2024.1.11.)

■ 대구: 「2023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

- 신청조건: 예비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 신청장소: 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공공 및 종교시설, 공원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 예식비용: 총 1,000만 원 이하 소요
 - ※ 포함항목: 대관료, 식대, 스프레드, 촬영, 예복(턱시도 포함),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 주례, 도우미, 답례품, 청첩장, 혼주 한복, 폐백 등(참고: 결혼식 세부비용 참조)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붙임1~3)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결혼식 장소 증빙서류(계약서, 장소 확인서 등)
- 신청방법: (시청 동인청사 6층 출산보육과(중구 공평로 88)로 방문 또는 이메일(piglet0153@korea.kr) 접수
- 비용지원절차: 결혼식 전 신청 → 예식 후 비용 청구(증빙서류 첨부) → 검토 후 지원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143호

○ 인천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에서는 결혼‘식’이라는 형식의 간소화를 넘어, 결혼의 ‘가치’가 중심인 ‘참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해 ‘인천형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함(인천광역시 고시/공고, 2021.8.25)

- 인천시는 2025년부터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아이(i)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커플 축제’와 ‘나만의 결혼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아시아 경제, 2025.2.10.)
- ‘나만의 결혼식’사업은 인천시 소재 공공시설 15곳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 대관해 주고, 예식비용 일부(최대 100만원)를 지원하여 예비부부의 결혼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는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혼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2025.5.)
- 나만의 결혼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부부에게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 사업을 안내하여, 주거 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계획임. 아이 플러스 집드림 핵심내용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과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추가 이자 지원’ 사업임(아시아 경제, 2025.2.10.)

■ 인천: 「2025년 i + 맺어드림(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예비부부(한명만 거주해도 가능)
 - 지원규모: 예비부부 40쌍
 - 지원내용: 인천소재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무료 대관 및 예식 비용 일부 지원
 - 대상시설: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예식공간 무료 지원
 - 지원금액: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1쌍 당 100만원 범위 내)
 - 지원자격
 - 지원연령: 자격없음
 - 지원조건: 인천소재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예식 진행
 -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5.4~12(예정)
-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충청북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 사업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경향신문, 2025.4.29.)
- 충청북도는 총비용 1,200만 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청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지원 대상은 충북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함(경향신문, 2025.4.29.)
- 충청북도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상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경향신문, 2025.4.29.)

■ 충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 목적: 획일적인 결혼식 문화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사업대상: 도내 19세~ 39세 초혼 신혼부부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 사업내용: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사업량: 100쌍
- 지원조건: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증빙자료 징구)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 지급
-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 5. 20. ~ 2025. 12. 12.
※ 충청북도 공고 제2025-717호

4. 소결

□ 경북형 작은 결혼식의 개념

- 작은 결혼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랑·신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결혼문화로서,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잘 보여줌
 - 경북형 '작은 결혼식'은 하객 수 100명 이하(신랑·신부 양가 합산)로 제한하며, 공공예식장을 활용하며, 형식보다 결혼의 의미를 우선 생각하는 결혼식을 의미함(경상북도 내부자료, 2025.5.)

□ 작은 결혼식 관련 현황

- 2023년 경북의 혼인 건수 8,128건, 조혼인률 3.2%를 기록함. 한편, 2024년 11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1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87건(11.3%) 증가하며,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24)
- 2023년 경상북도의 민간 예식장 수는 32개로, 2018년 44개에서 12개(2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전국의 민간 예식장 수는 770개에서 581개로 189개(24.5%)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2.8%p 더 큰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기준 전국의 공공예식장 수는 총 387개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이 65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60개, 경기 51개, 인천 41개, 서울 34개 순으로 나타남
 - 3개 지역(김천 17개, 경산 13개, 고령 11개)은 각각 10개 이상의 공공예식장이 있으며, 경주(5개), 성주(3개), 안동(2개), 예천(2개) 등 4개 지역은 2개 이상~5개 이하의 공공예식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개 지역(구미, 영주, 상주, 청송, 영양, 영덕, 봉화 각 1개)은 각각 1개의 공공예식장이 있으며, 반면 포항, 영천, 문경, 의성, 청도, 칠곡, 울진, 울릉 등 8개 지역은 공공예식장이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남

□ 작은 결혼식 특성 및 관련 선행연구

- 작은 결혼식은 경제적 합리성, 친환경적, 가족 및 친밀한 관계 중심성, 그리고 신

혼부부의 개성과 가치관을 반영한 의미 있고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특성을 지님

- 작은 결혼식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작은 결혼식은 ‘예식의 탈정형화 추구’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으며(정현목, 202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호화사치 풍조의 이유가 ‘신뢰하고 따를만한 모범적, 건전한 결혼모델이 없는 점’(17.4%)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새로운 결혼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김소영 외, 2014)
 - 이외에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캠페인 전개’(26.3%), ‘다양한 정보제공’(22.4%), ‘동참한 신혼부부 주택 대출금리 인하’(18.5%)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또한,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정책 제언으로 단기과제는 다양한 결혼식 장소 및 협력업체 발굴지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혼부부 주택정책 수립 및 홍보, 제주 결혼포털 사이트 구축 및 결혼 멘토단 운영이며, 중기과제로는 작은 결혼식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 웨딩 박람회 정례화이며, 장기과제로는 합리적 결혼문화 진작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제안하고 있음(정여진 외, 2018)
 - 아울러, 작은 결혼식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새로운 결혼식의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결혼문화로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숙과 계몽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음(임소희 외, 2020)
- 작은 결혼식 관련 법적 근거
 -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 결혼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구정책 지원 조례」등을 기반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2024년 3월 14일 기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12곳임
 - 지원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광주, 전북, 울산, 제주 등 총 5곳임

□ 국내 공공예식장의 문제점

- 첫째,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둘째, 예약 경쟁 및 접근성 문제 셋째, 홍보 및 인식 부족 넷째, 행정적 지원 부족 및 지속 가능성 문제, 다섯째, 문화적·사회적 수용 한계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짐

□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운영 현황

- 경북 도내 작은 결혼식 사업은 2024년 기준 경주(3커플 지원/커플당 300만원), 상주(6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고령(7명 지원/1명당 150만원), 성주(2커플 지원/커플당 500만원), 봉화(3명지원/1명당 100만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기준으로는 포항(커플당 150만원)을 포함하여 6개 시군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포항과 경주에서는 결혼협력업체 지정하고, 웨딩 관련 주요 서비스(장소, 웨딩세팅, 신랑신부 예복/헤어/메이크업, 부케, 혼수일체 등)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상주시는 식비를 제외한 예복,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은 관내 예식장 이용 시 장려금을 지원함. 성주군은 관내 희망 장소 식장 세팅, 웨딩용품(예복, 메이크업 등), 기념액자 비용경감 지원, 보조인력, 사진촬영 인력 지원, 케이터링(차, 다과) 등을 지원함

□ 작은 결혼식 관련 국내 사례 현황

- 서울시의 ‘나만의 작은 결혼식’, 부산시의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인천시의 ‘나만의 결혼식’, 충청북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원규모는 서울, 부산, 인천에서 최대 100만 원, 충북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방식은 부산과 충북은 직접지원, 서울과 인천은 보조사업자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의 경우 서울·부산·인천은 신청자 중 1인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며, 별도의 거주 기간 제한은 없음. 반면 충북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또한, 서울·부산·인천은 공공예식장 활용을 전제로 하는 반면, 충북은 민간 작은 결혼식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Ⅲ.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심층조사 분석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Ⅲ.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결혼문화 및 비용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 활용 가능성, 작은 결혼식에 대한 태도 및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작은 결혼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1) 조사 대상 및 방법

- 공공예식장의 활용 가능성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20~49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도내 미혼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웹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하여 도민 480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음
- 또한 경상북도 내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는 경상북도 내 지자체의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2) 조사 내용

- 경상북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는 응답자 일반적 특성, 결혼식 및 결혼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Ⅲ-1>과 같음

<표 Ⅲ-1>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적 특성	- 성별	- 연령대
	- 권역(거주지)	- 결혼 상태
	- 최종 학력	- 종교
	- 월평균 개인 소득	

구분	내용
결혼식 및 결혼비용	- 결혼 연도 - 결혼식 장소 -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 정도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의 결혼 시기 영향 여부 -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 결혼문화 동의 정도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사항	-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장소 선택 이유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이용 만족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비용(예식홀 및 웨딩 패키지) -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 자립 결혼(주택 구입자금 제외) 가능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심층조사는 작은 결혼식의 형태 또는 방식, 지원 서비스 및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 사업 추진 시 애로점 및 개선사항 및 향후 대책, 기타 의견 등을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III-2>와 같음

<표 Ⅲ-2> 심층조사 내용

구분	내용
심층조사	-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운영 관련 - 작은 결혼식의 형태 또는 방식 - 작은 결혼식 참여 기준 및 지원 금액 - 작은 결혼식의 측정된 예식비용 - 작은 결혼식 지원 서비스 - 작은 결혼식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 -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 시 애로점 - 애로점 개선사항 및 향후 대책 - 현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활성화 필요 정책 - 경북도 협력 사업 활성화 방안 - 기타 연구 과정에서 도움 될 만한 고언

3) 자료처리 및 분석

- 회수된 설문지는 확인, 검수하는 작업을 거쳐 충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코딩(Coding), 에디팅(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자료를 대상으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평균값(Mean),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t-test, ANOVA) 등 조사내용에 적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현황은 성별은 남성(51.5%)이 여성(48.5%)에 비해 많았고, 연령대는 30대(55.0%), 권역은 동부권(37.7%), 결혼 상태는 기혼/이별/사별(53.1%),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76.9%), 종교는 없음(60.2%), 월 평균 개인 소득은 200~400만 원(60.6%)이 가장 많았음

<표 Ⅲ-3> 설문조사 - 응답자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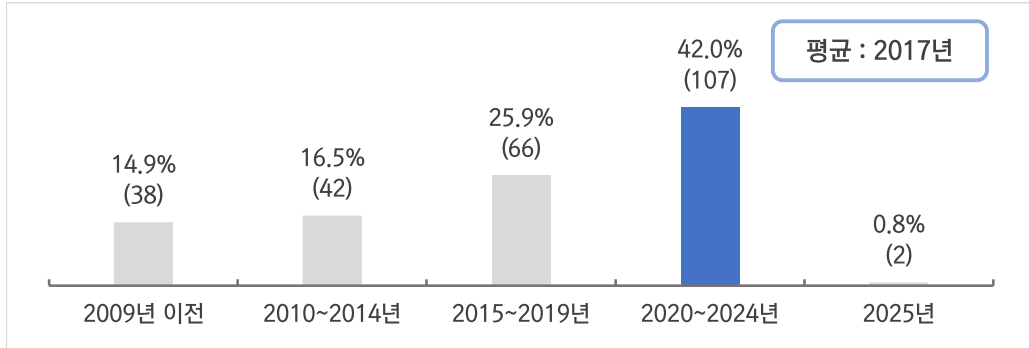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80	(100.0)
성별	남성	247	(51.5)
	여성	233	(48.5)
연령대	20대	82	(17.1)
	30대	264	(55.0)
	40대	134	(27.9)
권역(거주지)	서부권	151	(31.5)
	북부권	148	(30.8)
	동부권	181	(37.7)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24.6)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22.3)
	기혼/이혼/사별	255	(53.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23.1)
	대졸 이상	369	(76.9)
종교	있음	191	(39.8)
	없음	289	(60.2)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16.5)
	200~400만 원	291	(60.6)
	400~600만 원	80	(16.7)
	600만 원 이상	30	(6.3)

2) 결혼식 및 결혼비용

(1) 결혼 연도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 연도는 2020~2024년이 4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15~2019년(25.9%), 2010~2014년(16.5%), 2009년 이전(14.9%), 2025년(0.8%) 순이며 평균 2017년으로 나타남



[그림 Ⅲ-1] 결혼 연도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 연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종교·월평균 개인 소득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대는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결혼 연도가 빠르며, 종교별로는 종교 있는 경우 평균 결혼 연도가 빠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연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Ⅲ-4> 결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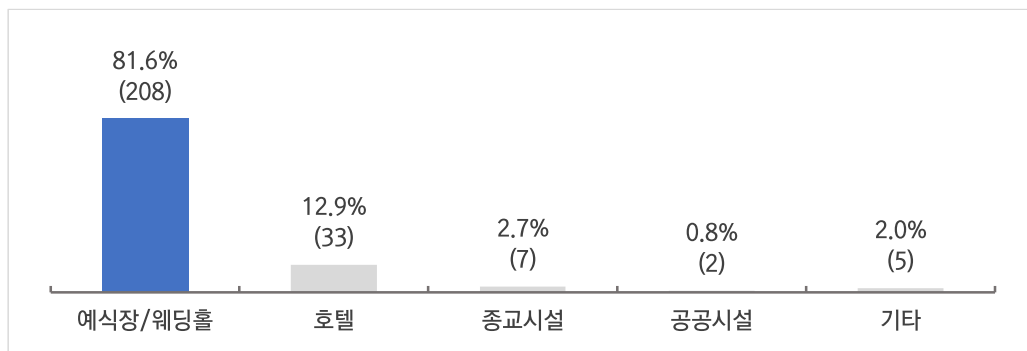
(단위: 명, %, 년)

구분		2009년 이전	2010~ 2014년	2015~ 2019년	2020~ 2024년	2025년	평균	t / F
전체		255	38 (14.9)	42 (16.5)	66 (25.9)	107 (42.0)	2 (0.8)	2017
성별	남성	131	16 (12.2)	22 (16.8)	28 (21.4)	64 (48.9)	1 (0.8)	2018
	여성	124	22 (17.7)	20 (16.1)	38 (30.6)	43 (34.7)	1 (0.8)	2016
연령대	20대	16	- -	1 (6.3)	- -	15 (93.8)	- -	2023
	30대	140	1 (0.7)	6 (4.3)	47 (33.6)	85 (60.7)	1 (0.7)	2020
	40대	99	37 (37.4)	35 (35.4)	19 (19.2)	7 (7.1)	1 (1.0)	2011
종교	있음	106	20 (18.9)	22 (20.8)	23 (21.7)	41 (38.7)	- -	2016
	없음	149	18 (12.1)	20 (13.4)	43 (28.9)	66 (44.3)	2 (1.3)	2017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39	5 (12.8)	4 (10.3)	11 (28.2)	19 (48.7)	- -	2017
	200~400만 원	140	14 (10.0)	22 (15.7)	41 (29.3)	61 (43.6)	2 (1.4)	2017
	400~600만 원	52	16 (30.8)	11 (21.2)	10 (19.2)	15 (28.8)	- -	2015
	600만 원 이상	24	3 (12.5)	5 (20.8)	4 (16.7)	12 (50.0)	- -	2016

주. * $p<0.05$, ** $p<0.01$, *** $p<0.001$

(2) 결혼식 장소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식 장소는 예식장/웨딩홀이 8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호텔(12.9%), 종교시설(2.7%), 공공시설(0.8%) 순으로 나타남(기타 2.0%)
- 기타 의견으로는 스몰웨딩(2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음(2건)이 있음



[그림 Ⅲ-2] 결혼식 장소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식 장소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개인 소득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예식장/웨딩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5> 결혼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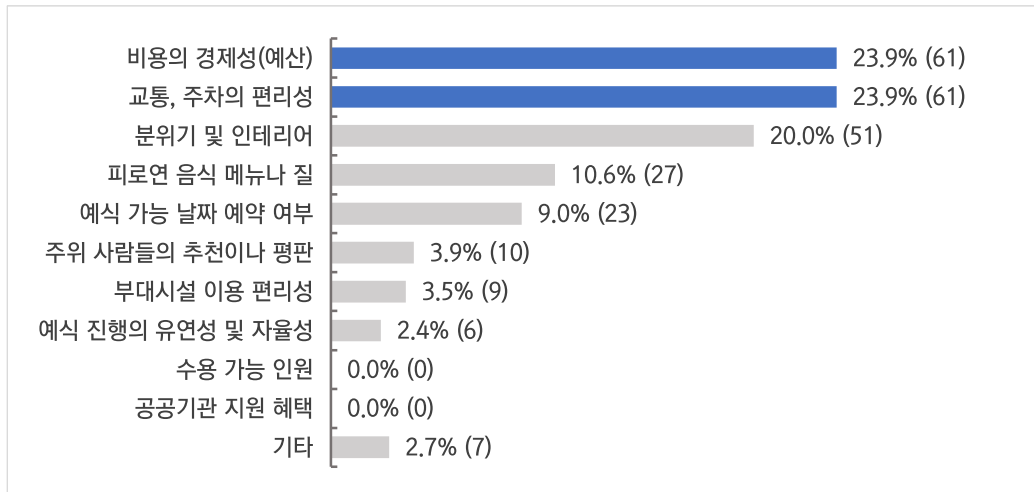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예식장/ 웨딩홀		호텔		종교시설		공공시설		기타		X ²		
전체			255	208 (81.6)	33 (12.9)	7 (2.7)	2 (0.8)	5 (2.0)	20.085*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39	33 (84.6)	2 (5.1)	1 (2.6)	-	-	3 (7.7)							
	200~400만 원	140	120 (85.7)	16 (11.4)	2 (1.4)	1 (0.7)	1 (0.7)								
	400~600만 원	52	38 (73.1)	11 (21.2)	3 (5.8)	-	-	-							-
	600만 원 이상	24	17 (70.8)	4 (16.7)	1 (4.2)	1 (4.2)	1 (4.2)								

주. * $p < 0.05$

(3)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은 비용의 경제성(예산)·교통, 주차의 편리성이 각 2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분위기 및 인테리어(20.0%), 피로연 음식 메뉴나 질(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7%)
- 기타 기준으로는 모든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2건), 가까운 거리(1건), 부모님 하객의 접근 편의성(1건), 예식장 위치(1건), 종교(1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음(1건)이 있음



[그림 Ⅲ-3]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을 살펴본 결과, 권역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권역별로는 서부권·동부권은 비용의 경제성(예산), 북부권은 교통, 주차의 편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6>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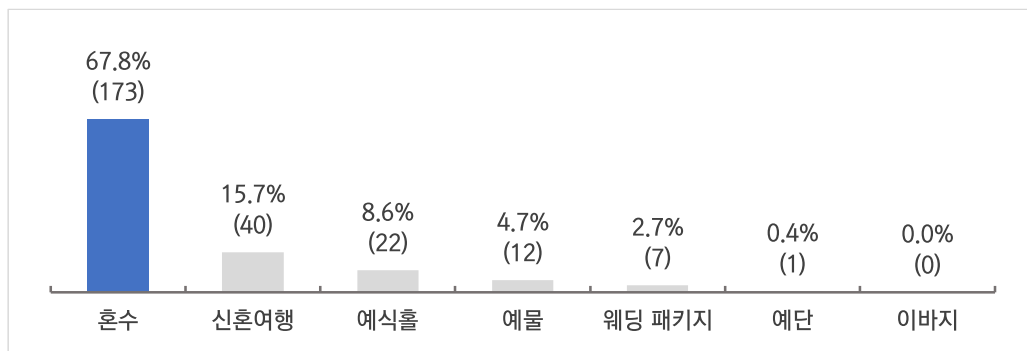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비용의 경제성 (예산)	분위기 및 인테리어	교통, 주차의 편리성	부대시 설이용 편리성	피로연 음식 메뉴나 질	예식 가능 날짜 예약 여부	예식 진행의 유연성 및 자율성	주위 사람들 의 추천이 나 평판	기타	X ²
전체	255	61 (23.9)	51 (20.0)	61 (23.9)	9 (3.5)	27 (10.6)	23 (9.0)	6 (2.4)	10 (3.9)	7 (2.7)	28.794*
권역	서부 권	19 (22.1)	19 (22.1)	16 (18.6)	4 (4.7)	10 (11.6)	10 (11.6)	4 (4.7)	3 (3.5)	1 (1.2)	
	북부 권	8 (12.7)	13 (20.6)	15 (23.8)	1 (1.6)	11 (17.5)	7 (11.1)	1 (1.6)	2 (3.2)	5 (7.9)	
	동부 권	34 (32.1)	19 (17.9)	30 (28.3)	4 (3.8)	6 (5.7)	6 (5.7)	1 (0.9)	5 (4.7)	1 (0.9)	

주. *p<0.05

(4)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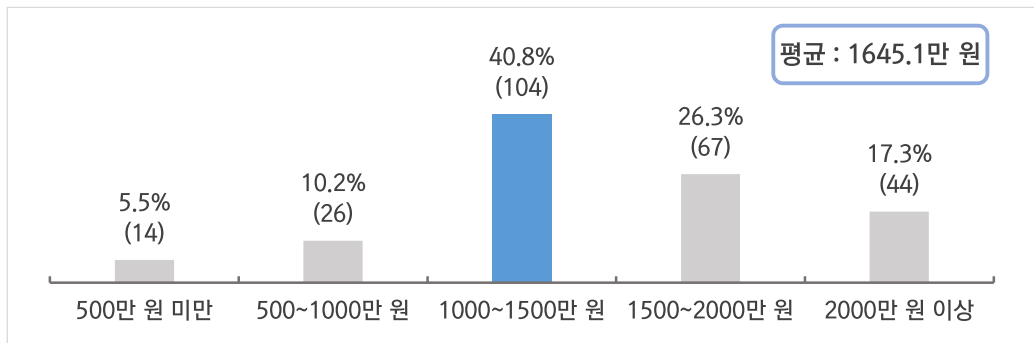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은 혼수가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혼여행(15.7%), 예식홀(8.6%), 예물(4.7%), 웨딩 패키지(2.7%), 예단(0.4%), 이바지(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4]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

(4-1)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 기혼/이별/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은 1,000~1,500만 원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00~2,000만 원(26.3%), 2,000만 원 이상(17.3%), 500~1,000만 원(10.2%), 500만 원 미만(5.5%) 순이며 평균 1,645.1만 원으로 나타남



[그림 Ⅲ-5]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개인 소득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최다 지출 항목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최다 지출 항목별로는 예물, 혼수, 예식홀, 신혼여행, 웨딩 패키지, 예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웨딩 패키지와 예단은 표본수가 10개 미만으로 작으므로 단순 참고로 활용할 것을 권함

<표 Ⅲ-7>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최다 지출 항목의 지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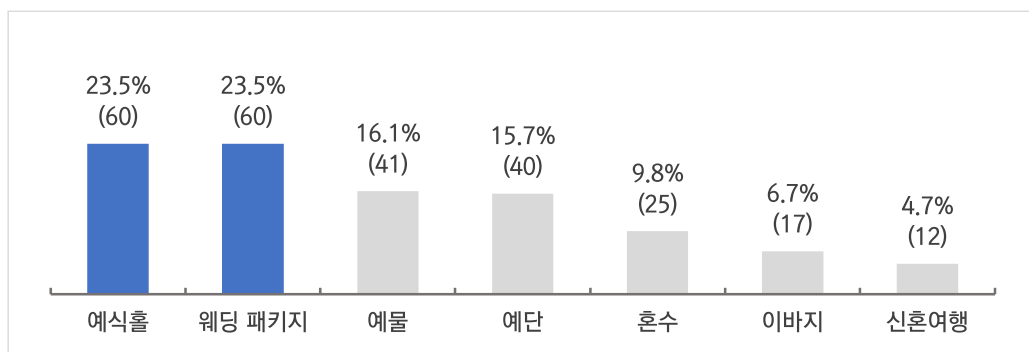
(단위: 명, %, 만 원)

구분		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1000~1500만 원	1500~2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평균	t / F
전체		255	14 (5.5)	26 (10.2)	104 (40.8)	67 (26.3)	44 (17.3)	1645.1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39	2 (5.1)	5 (12.8)	14 (35.9)	10 (25.6)	8 (20.5)	1620.5
	200~400만 원	140	9 (6.4)	16 (11.4)	62 (44.3)	34 (24.3)	19 (13.6)	1507.8
	400~600만 원	52	2 (3.8)	3 (5.8)	22 (42.3)	14 (26.9)	11 (21.2)	1848.1
	600만 원 이상	24	1 (4.2)	2 (8.3)	6 (25.0)	9 (37.5)	6 (25.0)	2045.8
최다 지출 항목	혼수	173	4 (2.3)	14 (8.1)	59 (34.1)	55 (31.8)	41 (23.7)	1850.9
	예식홀	22	2 (9.1)	3 (13.6)	12 (54.5)	5 (22.7)	-	1211.4
	신혼여행	40	5 (12.5)	8 (20.0)	23 (57.5)	4 (10.0)	-	1077.5
	예단	1	1 (100.0)	-	-	-	-	100.0
	예물	12	-	1 (8.3)	5 (41.7)	3 (25.0)	3 (25.0)	1925.0
	웨딩 패키지	7	2 (28.6)	-	5 (71.4)	-	-	905.9
	이바지	-	-	-	-	-	-	-

주. *p<0.05, ***p<0.001

(4-2)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은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각 2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물(16.1%), 예단(15.7%), 혼수(9.8%), 이바지(6.7%), 신혼여행(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6]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8>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축소 희망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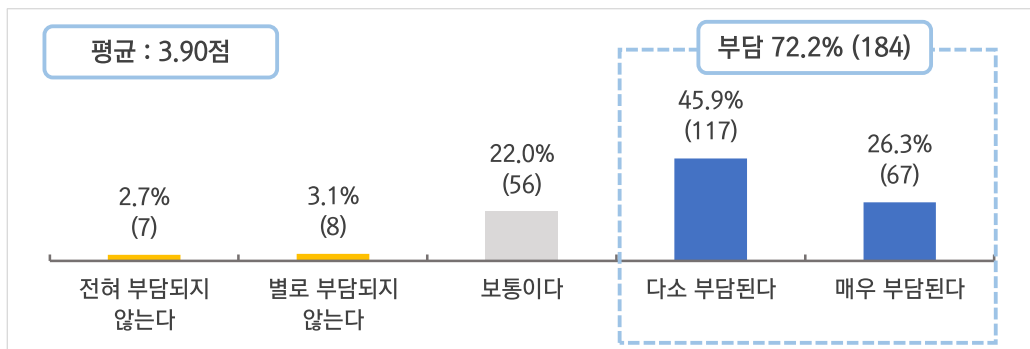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혼수	예식홀	신혼여행	예단	예물	웨딩 패키지	이바지	χ^2
전체		255	25 (9.8)	60 (23.5)	12 (4.7)	40 (15.7)	41 (16.1)	60 (23.5)	17 (6.7)
성별	남성	131	16 (12.2)	29 (22.1)	11 (8.4)	15 (11.5)	24 (18.3)	29 (22.1)	7 (5.3)
	여성	124	9 (7.3)	31 (25.0)	1 (0.8)	25 (20.2)	17 (13.7)	31 (25.0)	10 (8.1)

주. * $p < 0.05$

(5)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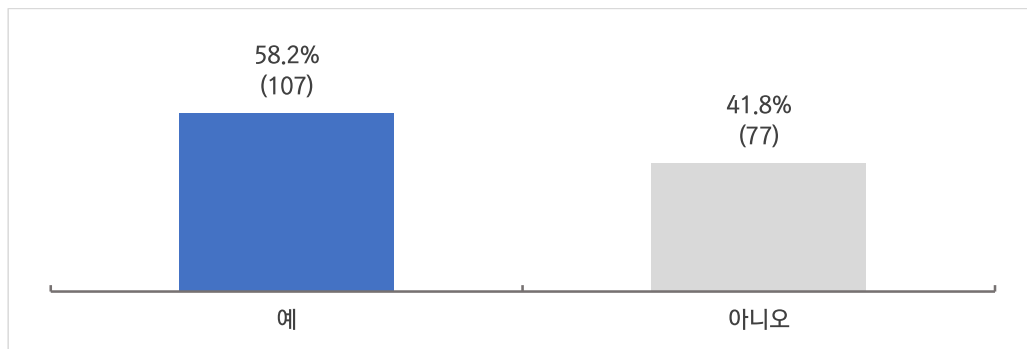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72.2%(다소 부담된다 45.9% + 매우 부담된다 26.3%)로 나타났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3.90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7]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 정도

(5-1)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의 결혼 시기 영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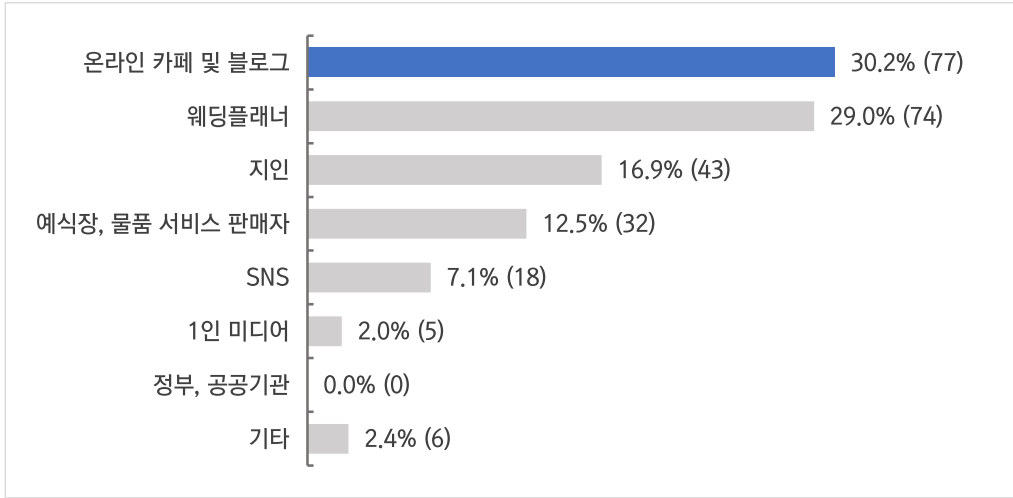
- 결혼비용 부담 응답자 184명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의 결혼 시기 영향 여부는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8.2%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41.8%)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Ⅲ-8]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 부담의 결혼 시기 영향 여부

(6)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255명의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는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가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웨딩플래너(29.0%), 지인(16.9%), 예식장, 물품 서비스 판매자(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4%)
- 기타 경로로는 웨딩박람회(3건), 와이프가 알아온 정보(1건), 온라인(1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음(1건)이 있음



[그림 Ⅲ-9]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본 결과, 성별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은 웨딩플래너, 여성은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9> 결혼식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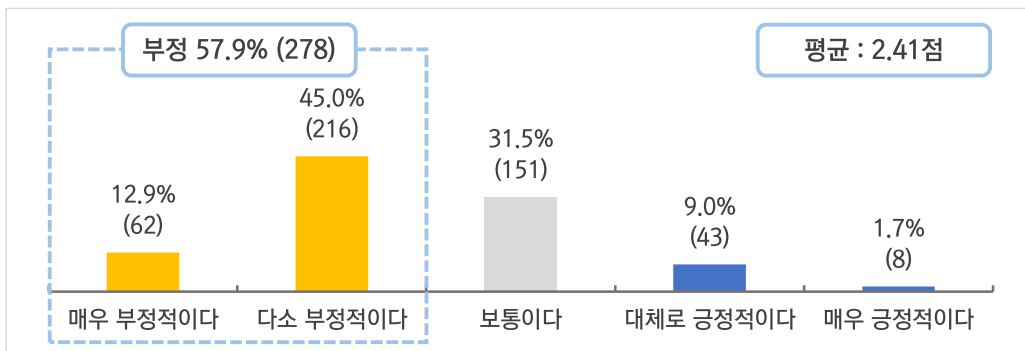
구분		웨딩플래너	예식장, 물품 서비스 판매자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1인 미디어	SNS	지인	기타	χ^2
성별	전체	255	74 (29.0)	32 (12.5)	77 (30.2)	5 (2.0)	18 (7.1)	43 (16.9)	6 (2.4)
	남성	131	39 (29.8)	11 (8.4)	36 (27.5)	3 (2.3)	7 (5.3)	32 (24.4)	15.127*
	여성	124	35 (28.2)	21 (16.9)	41 (33.1)	2 (1.6)	11 (8.9)	11 (8.9)	

주. * $p < 0.05$

3) 결혼문화 및 결혼문화 개선방안

(1)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7.9%(매우 부정적이다 12.9% + 다소 부정적이다 45.0%)로 나타났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2.41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10]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결혼 상태별로는 기혼/이별/사별, 미혼(결혼 예정 있음), 미혼(결혼 예정 없음) 순으로 긍정 정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표 Ⅲ-10>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긍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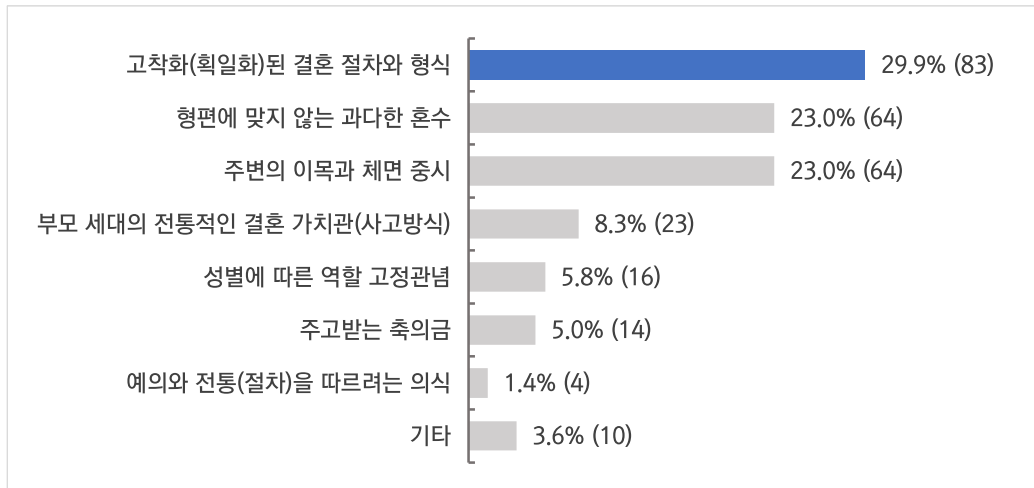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t / F
전체		480	62 (12.9)	216 (45.0)	151 (31.5)	43 (9.0)	8 (1.7)	2.41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21 (17.8)	62 (52.5)	26 (22.0)	8 (6.8)	1 (0.8)	2.20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10 (9.3)	59 (55.1)	29 (27.1)	8 (7.5)	1 (0.9)	2.36
	기혼/이혼/사별	255	31 (12.2)	95 (37.3)	96 (37.6)	27 (10.6)	6 (2.4)	2.54

주. ** $p < 0.01$

(1-1)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278명의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은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이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각 23.0%),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사교방식)(8.3%)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3.6%)
- 기타 문제점으로는 결혼 비용(4건), 보기의 모든 내용(3건), 웨딩 업계의 문화(추가금, 비싼 가격)(3건), 선택지 중 다수(결혼 절차와 형식 및 축의금 문화, 주변 시선과 체면으로 인한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출 및 절차)(2건)가 있음



[그림 Ⅲ-11]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 응답자 특성별로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성별·권역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대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상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은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 여성은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는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 40대는 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부권·북부권은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 동부권은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결혼 예정 없음)은 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 미혼(결혼 예정 있음)·기혼/이별/사별은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11>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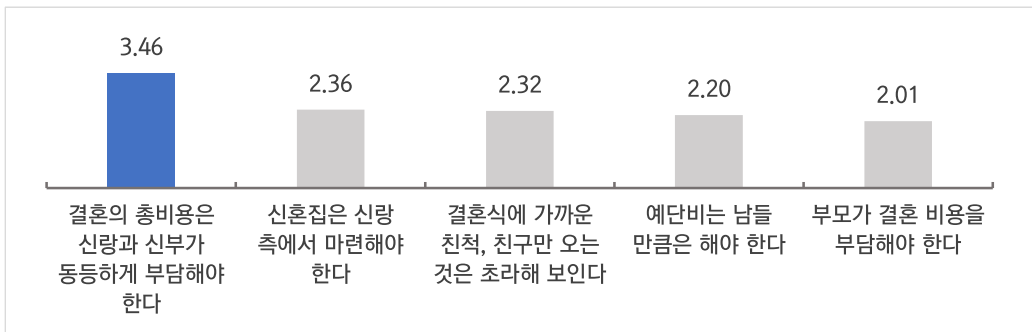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형편에 맞지않는 과다한 혼수	고착화 (획일화)된 결혼 절차 와 형식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결혼가치관 (사교방식)	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	주고 받는 축의금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	예의와 전통(절차)을 따르려는 의식	기타	X ²
전체		278 64 (23.0)	83 (29.9)	23 (8.3)	64 (23.0)	14 (5.0)	16 (5.8)	4 (1.4)	10 (3.6)	18.572*
성 별	남 성	140 42 (30.0)	32 (22.9)	8 (5.7)	39 (27.9)	5 (3.6)	7 (5.0)	3 (2.1)	4 (2.9)	
	여 성	138 22 (15.9)	51 (37.0)	15 (10.9)	25 (18.1)	9 (6.5)	9 (6.5)	1 (0.7)	6 (4.3)	
연 령 대	20 대	41 10 (24.4)	11 (26.8)	2 (4.9)	8 (19.5)	1 (2.4)	4 (9.8)	-	5 (12.2)	30.378**
	30 대	160 39 (24.4)	54 (33.8)	15 (9.4)	36 (22.5)	4 (2.5)	9 (5.6)	1 (0.6)	2 (1.3)	
	40 대	77 15 (19.5)	18 (23.4)	6 (7.8)	20 (26.0)	9 (11.7)	3 (3.9)	3 (3.9)	3 (3.9)	
권 역	서부 권	81 18 (22.2)	27 (33.3)	1 (1.2)	19 (23.5)	3 (3.7)	7 (8.6)	3 (3.7)	3 (3.7)	25.988*
	북부 권	95 16 (16.8)	30 (31.6)	8 (8.4)	25 (26.3)	4 (4.2)	6 (6.3)	-	6 (6.3)	
	동부 권	102 30 (29.4)	26 (25.5)	14 (13.7)	20 (19.6)	7 (6.9)	3	1 (1.0)	1 (1.0)	
결 혼 상 태	결혼 예정 없음	83 20 (24.1)	16 (19.3)	5 (6.0)	22 (26.5)	1 (1.2)	12 (14.5)	1 (1.2)	6 (7.2)	41.843***
	결혼 예정 있음	69 15 (21.7)	29 (42.0)	3 (4.3)	14 (20.3)	2 (2.9)	3 (4.3)	-	3 (4.3)	
	기혼/ 이별/ 사별	126 29 (23.0)	38 (30.2)	15 (11.9)	28 (22.2)	11 (8.7)	1 (0.8)	3 (2.4)	1 (0.8)	

주. *p<0.05, **p<0.01, ***p<0.001

(2) 결혼문화 동의 정도

- 결혼문화 동의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혼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2.36점),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2.32점), 예단비는 남들 만큼은 해야 한다(2.20점), 부모가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2.0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2] 결혼문화 동의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결혼문화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최종 학력·종교·월평균 개인 소득은 일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 상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이 높으며, 결혼 상태별로는 결혼 비용의 동등한 부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미혼(결혼 예정 있음) 응답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은 신혼집과 예단비 및 부모의 결혼 비용 부담 문항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결혼 비용의 동등한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냄

<표 III-12> 결혼문화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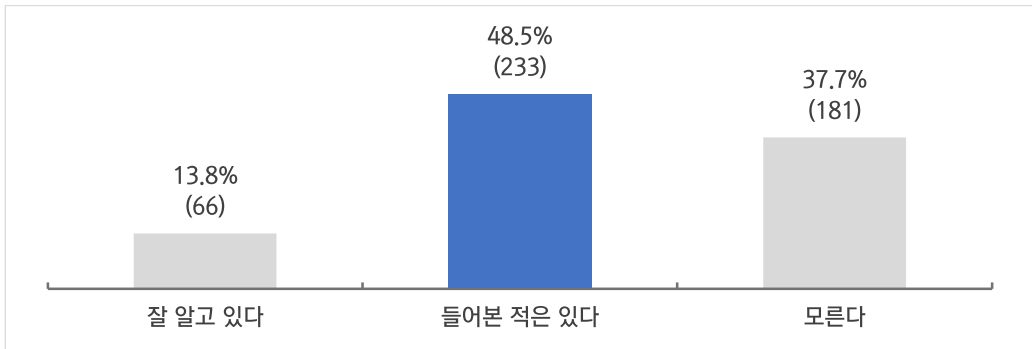
구분			신혼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	예단비는 남들 만큼은 해야 한다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부모가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480	2.36	2.20	3.46	2.32	2.01
성별	남성	247	2.48	2.32	3.41	2.48	2.09	
	여성	233	2.23	2.06	3.52	2.16	1.93	
	t		2.513*	2.648**	-1.041	3.040**	1.682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2.21	2.10	3.66	2.23	1.85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2.69	2.53	3.18	2.57	2.23	
	기혼/이혼/사별	255	2.29	2.10	3.49	2.26	2.00	
	F		6.443**	6.732**	5.477**	3.167*	3.63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2.50	2.41	3.45	2.43	2.06	
	대졸 이상	369	2.32	2.13	3.47	2.29	2.00	
	t		1.476	2.220*	-0.151	1.131	0.558	
종교	있음	191	2.38	2.29	3.47	2.51	2.12	
	없음	289	2.34	2.13	3.46	2.20	1.94	
	t		0.380	1.569	0.022	2.784**	1.628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2.33	2.33	3.63	2.41	2.18	
	200~400만 원	291	2.22	2.07	3.49	2.27	1.86	
	400~600만 원	80	2.75	2.44	3.41	2.43	2.26	
	600만 원 이상	30	2.73	2.50	2.87	2.33	2.40	
	F		6.094***	3.995**	3.604*	0.525	5.341**	

주. *p<0.05, **p<0.01, ***p<0.001

4)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사항

(1)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가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른다(37.7%), 잘 알고 있다(13.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3]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종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개인 소득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종교별로는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600만 원 이하는 들어본 적은 있다, 600만 원 이상은 잘 알고 있다·모른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13> 공공예식장 인지 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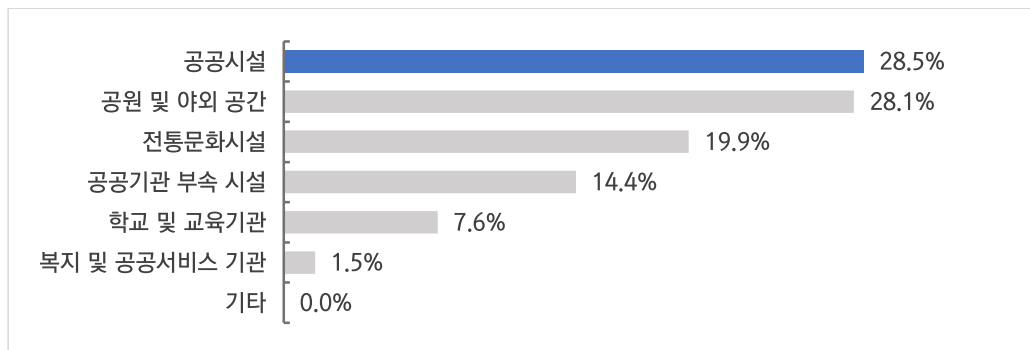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χ^2
전체		66 (13.8)	233 (48.5)	181 (37.7)	12.643**
종교	있음	33 (17.3)	104 (54.5)	54 (28.3)	
	없음	33 (11.4)	129 (44.6)	127 (43.9)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χ^2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9 (11.4)	34 (43.0)	36 (45.6)	24.928***
	200~400만 원	291	36 (12.4)	148 (50.9)	107 (36.8)	
	400~600만 원	80	9 (11.3)	45 (56.3)	26 (32.5)	
	600만 원 이상	30	12 (40.0)	6 (20.0)	12 (40.0)	

주. *p<0.05, **p<0.01, ***p<0.001

(2)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는 공공시설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원 및 야외 공간(28.1%), 전통문화시설(19.9%), 공공기관 부속 시설(14.4%), 학교 및 교육기관(7.6%), 복지 및 공공서비스 기관(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순위별 가중치)

- 응답자 특성별로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은 공공시설, 여성은 공원 및 야외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공공시설, 30대는 공공시설과 공원 및 야외공간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40대는 공원 및 야외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부권·동부권은 공공시설, 북부권은 공원 및 야외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은 공원 및 야외공간, 기혼/이별/사별은 공공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공공시설, 대학교 졸업 이상은 공원 및 야외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교별로는 종교 있음은 공원 및 야외공간, 종교 없음은 공공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400~600만 원·600만 원 이상은 공공시설, 200~400만 원은 공원 및 야외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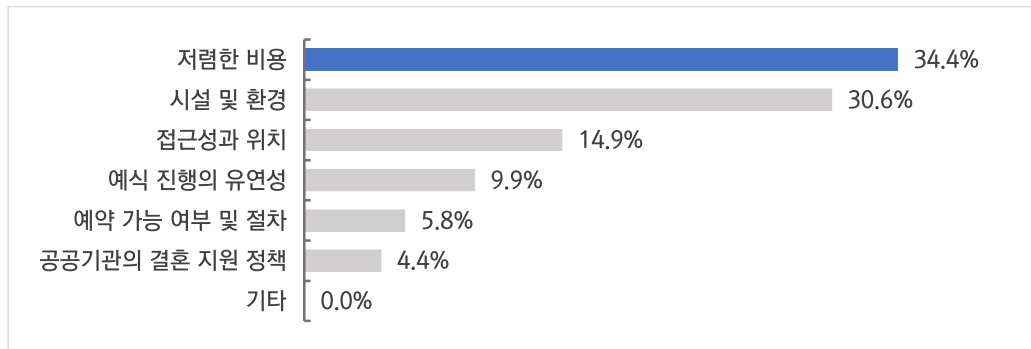
<표 Ⅲ-14>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순위별 가중치)

(단위: 명, %)

구분		공공시설	공원 및 야외 공간	공공기관 부속 시설	학교 및 교육기관	전통문화 시설	복지 및 공공 서비스 기관
전체		480 (28.5)	(28.1)	(14.4)	(7.6)	(19.9)	(1.5)
성별	남성	247 (32.9)	(24.7)	(16.7)	(6.7)	(17.3)	(1.6)
	여성	233 (23.9)	(31.6)	(11.9)	(8.4)	(22.7)	(1.4)
연령대	20대	82 (32.1)	(29.7)	(11.0)	(6.9)	(18.7)	(1.6)
	30대	264 (28.7)	(27.9)	(13.3)	(8.5)	(20.1)	(1.6)
	40대	134 (26.1)	(27.4)	(18.7)	(6.2)	(20.4)	(1.2)
권역	서부권	151 (28.7)	(26.5)	(13.5)	(9.7)	(20.1)	(1.5)
	북부권	148 (23.2)	(30.2)	(14.6)	(5.2)	(24.8)	(2.0)
	동부권	181 (32.8)	(27.6)	(14.9)	(7.7)	(15.8)	(1.1)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24.9)	(28.0)	(16.4)	(8.8)	(20.9)	(1.1)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29.0)	(29.0)	(15.9)	(5.0)	(19.9)	(1.2)
	기혼/이혼/사별	255 (30.1)	(27.7)	(12.8)	(8.1)	(19.5)	(1.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4.2)	(26.7)	(11.4)	(7.5)	(18.0)	(2.1)
	대졸 이상	369 (26.8)	(28.5)	(15.3)	(7.6)	(20.5)	(1.4)
종교	있음	191 (29.7)	(30.7)	(11.7)	(8.9)	(17.3)	(1.7)
	없음	289 (27.8)	(26.3)	(16.1)	(6.7)	(21.7)	(1.4)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30.8)	(28.7)	(14.8)	(8.4)	(15.2)	(2.1)
	200~400만 원	291 (25.3)	(29.9)	(14.4)	(7.9)	(21.6)	(0.8)
	400~600만 원	80 (33.8)	(21.3)	(16.7)	(5.8)	(19.6)	(2.9)
	600만 원 이상	30 (40.0)	(26.7)	(6.7)	(6.7)	(16.7)	(3.3)

(3)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

-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는 저렴한 비용이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 및 환경(30.6%), 접근성과 위치(14.9%), 예식 진행의 유연성(9.9%), 예약 가능 여부 및 절차(5.8%), 공공기관의 결혼 지원 정책(4.4%)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5]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 (순위별 가중치)

- 응답자 특성별로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성별·연령대·최종 학력·종교 유형에서 저렴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부권·동부권은 저렴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북부권은 저렴한 비용과 시설 및 환경이 엇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결혼 예정 있음)·기혼/이별/사별은 저렴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미혼(결혼 예정 없음)은 저렴한 비용과 시설 및 환경이 엇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별은 200만 원 미만·400~600만 원·600만 원 이상은 저렴한 비용, 200~400만 원은 시설 및 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15>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 고려 요소 (순위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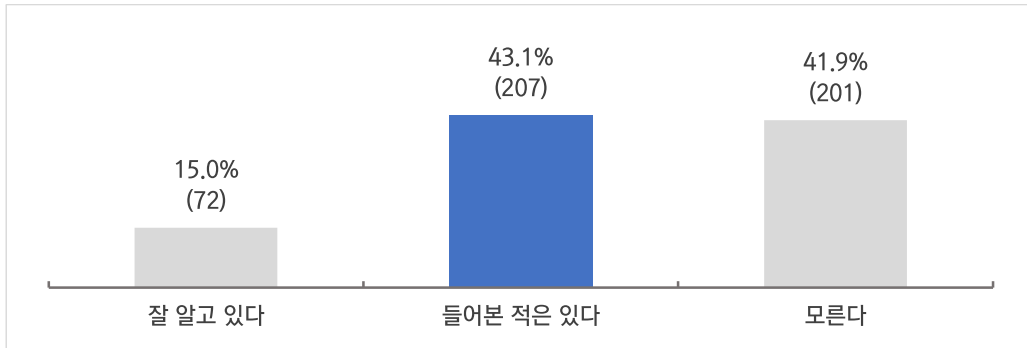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지럼한 비용	시설 및 환경	접근성과 위치	예약 가능 여부 및 절차	예식 진행의 유연성	공공기관의 결혼 지원 정책
전체		480 (34.4)	(30.6)	(14.9)	(5.8)	(9.9)	(4.4)
성별	남성	247 (37.1)	(30.0)	(14.0)	(7.6)	(6.9)	(4.5)
	여성	233 (31.5)	(31.2)	(15.9)	(4.0)	(13.0)	(4.4)
연령대	20대	82 (32.5)	(31.7)	(13.4)	(6.5)	(8.9)	(6.9)
	30대	264 (35.5)	(30.4)	(12.9)	(6.3)	(10.0)	(4.9)
	40대	134 (33.3)	(30.1)	(19.9)	(4.5)	(10.2)	(2.0)
권역	서부권	151 (34.2)	(29.4)	(13.7)	(6.2)	(12.6)	(4.0)
	북부권	148 (32.2)	(32.7)	(15.8)	(3.4)	(10.4)	(5.6)
	동부권	181 (36.3)	(29.8)	(15.3)	(7.6)	(7.2)	(3.9)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33.3)	(33.6)	(12.1)	(5.6)	(11.9)	(3.4)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35.5)	(28.3)	(18.1)	(4.0)	(7.2)	(6.9)
	기혼/이혼/사별	255 (34.4)	(30.1)	(14.9)	(6.7)	(10.1)	(3.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9.6)	(30.3)	(10.5)	(5.7)	(7.5)	(6.3)
	대졸 이상	369 (32.8)	(30.6)	(16.3)	(5.9)	(10.6)	(3.9)
종교	있음	191 (37.2)	(27.7)	(13.6)	(6.3)	(9.8)	(5.4)
	없음	289 (32.5)	(32.4)	(15.8)	(5.5)	(9.9)	(3.8)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41.8)	(30.4)	(10.5)	(5.9)	(5.9)	(5.5)
	200~400만 원	291 (31.7)	(33.3)	(15.9)	(4.9)	(10.9)	(3.2)
	400~600만 원	80 (36.3)	(22.9)	(15.8)	(6.7)	(10.8)	(7.5)
	600만 원 이상	30 (35.6)	(24.4)	(14.4)	(12.2)	(7.8)	(5.6)

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

(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는 들어본 적은 있다가 4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른다(41.9%), 잘 알고 있다(15.0%)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결혼 상태·종교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권역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개인 소득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권역별로는 서부권·동부권은 들어본 적은 있다, 북부권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상태별로는 결혼 예정 여부에 관계없이 미혼은 모른다, 기혼/이혼/사별은 들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교별로는 종교 없음은 들어본 적은 있다, 종교 없음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 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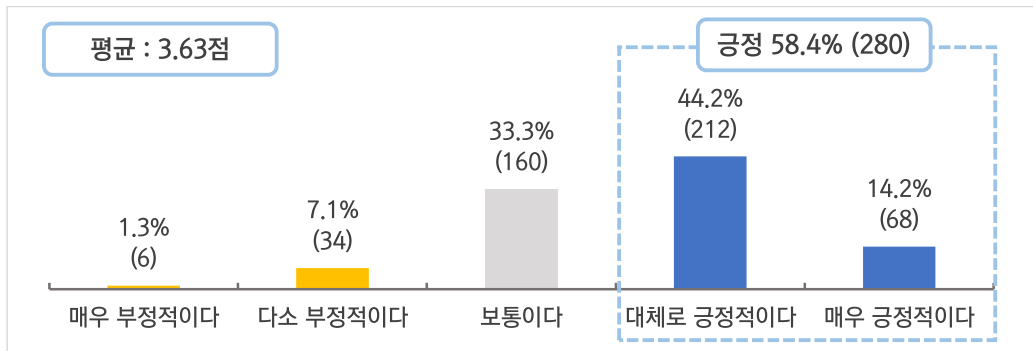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χ^2
전체		72 (15.0)	207 (43.1)	201 (41.9)	13.944**
권역	서부권	28 (18.5)	68 (45.0)	55 (36.4)	
	북부권	16 (10.8)	52 (35.1)	80 (54.1)	
	동부권	28 (15.5)	87 (48.1)	66 (36.5)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χ^2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11	(9.3)	50	(42.4)	57	(48.3)	10.918*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16	(15.0)	38	(35.5)	53	(49.5)	
	기혼/이혼/사별	255	45	(17.6)	119	(46.7)	91	(35.7)	
종교	있음	191	33	(17.3)	93	(48.7)	65	(34.0)	8.037*
	없음	289	39	(13.5)	114	(39.4)	136	(47.1)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8	(10.1)	27	(34.2)	44	(55.7)	30.126***
	200~400만 원	291	39	(13.4)	129	(44.3)	123	(42.3)	
	400~600만 원	80	12	(15.0)	43	(53.8)	25	(31.3)	
	600만 원 이상	30	13	(43.3)	8	(26.7)	9	(30.0)	

주. *p<0.05, **p<0.01, ***p<0.001

(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8.4%(대체로 긍정적이다 44.2% + 매우 긍정적이다 14.2%)로 나타났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3.63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1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대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최종 학력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Ⅲ-1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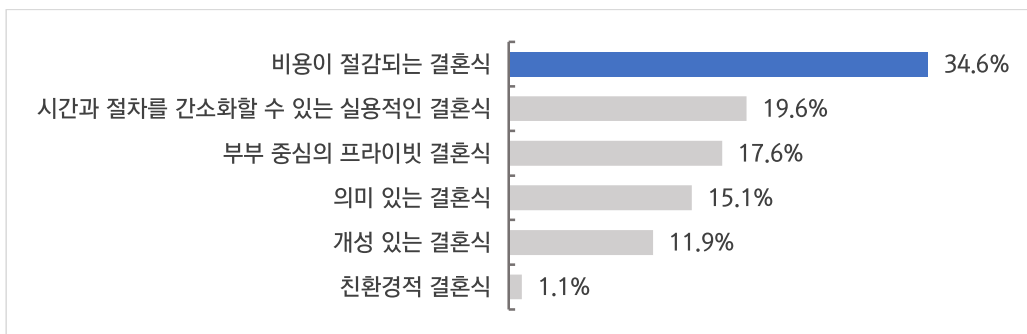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부정적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평균	t / F
전체		480	6 (1.3)	34 (7.1)	160 (33.3)	212 (44.2)	68 (14.2)	3.63
연령대	20대	82	1 (1.2)	13 (15.9)	29 (35.4)	30 (36.6)	9 (11.0)	3.40
	30대	264	3 (1.1)	15 (5.7)	91 (34.5)	118 (44.7)	37 (14.0)	3.65
	40대	134	2 (1.5)	6 (4.5)	40 (29.9)	64 (47.8)	22 (16.4)	3.7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 (2.7)	8 (7.2)	47 (42.3)	43 (38.7)	10 (9.0)	3.44
	대졸 이상	369	3 (0.8)	26 (7.0)	113 (30.6)	169 (45.8)	58 (15.7)	3.69

주. *p<0.05, **p<0.01

(2-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280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는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이 3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혼식(19.6%), 부부 중심의 프라이빗 결혼식(17.6%), 의미 있는 결혼식(15.1%), 개성 있는 결혼식(11.9%), 친환경적 결혼식(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 (순위별 가중치)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를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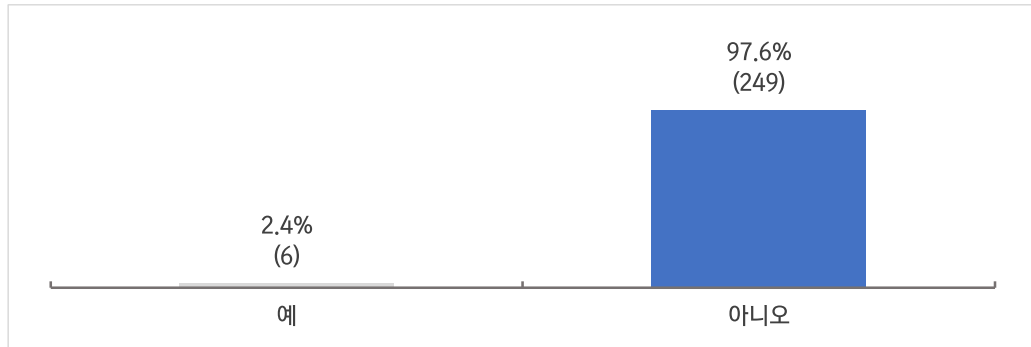
<표 Ⅲ-1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긍정 이유 (순위별 가중치)

(단위: 명, %)

구분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	개성 있는 결혼식	부부 중심의 프라이빗 결혼식	의미 있는 결혼식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혼식	친환경적 결혼식
전체		280 (34.6)	(11.9)	(17.6)	(15.1)	(19.6)	(1.1)
성별	남성	134 (34.6)	(12.2)	(16.9)	(15.2)	(19.4)	(1.7)
	여성	146 (34.7)	(11.6)	(18.3)	(15.1)	(19.9)	(0.5)
연령대	20대	39 (32.5)	(12.0)	(19.7)	(13.7)	(22.2)	
	30대	155 (37.0)	(12.0)	(17.6)	(14.4)	(17.8)	(1.1)
	40대	86 (31.4)	(11.6)	(16.7)	(17.1)	(21.7)	(1.6)
권역	서부권	91 (30.8)	(15.8)	(19.4)	(15.4)	(17.9)	(0.7)
	북부권	93 (34.8)	(8.6)	(16.8)	(14.3)	(24.4)	(1.1)
	동부권	96 (38.2)	(11.5)	(16.7)	(15.6)	(16.7)	(1.4)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67 (33.8)	(10.9)	(19.4)	(13.9)	(21.4)	(0.5)
	미혼(결혼 예정 있음)	55 (35.2)	(12.1)	(19.4)	(13.3)	(19.4)	(0.6)
	기혼/이혼/사별	158 (34.8)	(12.2)	(16.2)	(16.2)	(19.0)	(1.5)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3 (30.8)	(17.6)	(13.8)	(21.4)	(14.5)	(1.9)
	대졸 이상	227 (35.5)	(10.6)	(18.5)	(13.7)	(20.9)	(0.9)
종교	있음	115 (30.1)	(12.8)	(21.2)	(14.2)	(19.7)	(2.0)
	없음	165 (37.8)	(11.3)	(15.2)	(15.8)	(19.6)	(0.4)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41 (35.0)	(11.4)	(21.1)	(17.1)	(14.6)	(0.8)
	200~400만 원	179 (36.3)	(11.4)	(15.5)	(15.6)	(20.5)	(0.7)
	400~600만 원	44 (29.5)	(10.6)	(21.2)	(15.2)	(22.0)	(1.5)
	600만 원 이상	16 (29.2)	(22.9)	(22.9)	(4.2)	(16.7)	(4.2)

(3)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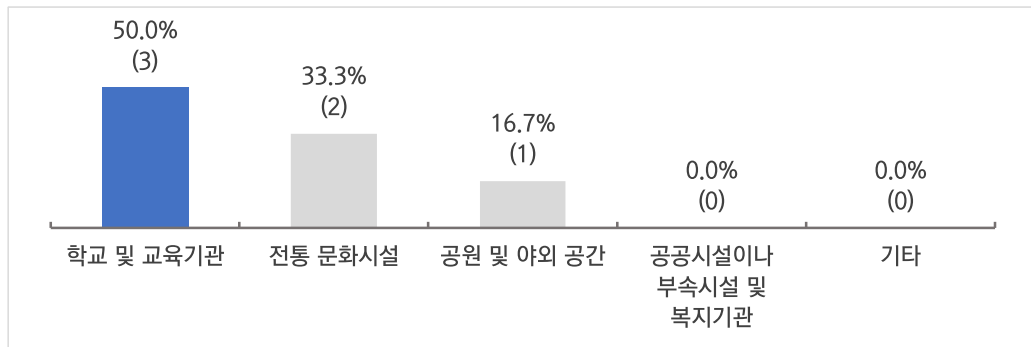
- 기혼/이별/사별 응답자 255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97.6%로 있다는 응답(2.4%)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Ⅲ-19]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

(3-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는 학교 및 교육기관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통 문화시설(33.3%), 공원 및 야외 공간(1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0]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

(3-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장소 선택 이유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진행 장소 별 이유는 <표 Ⅲ-19>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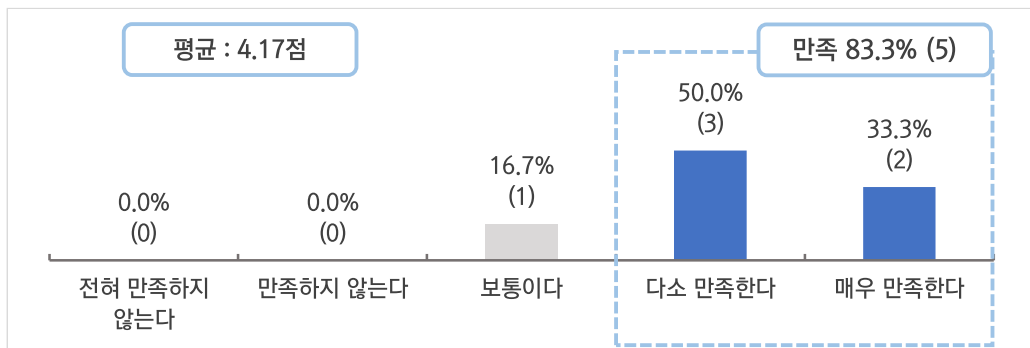
<표 Ⅲ-19>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장소 선택 이유

(단위: 건)

결혼식 진행 장소	장소 선택 이유	빈도
공원 및 야외 공간 (n=1)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1
학교 및 교육기관 (n=3)	내 생각으로	1
	자주 방문하는 익숙한 장소라서	1
	정형화되지 않은 특별한 결혼식 희망	1
전통 문화시설 (n=2)	감성 때문	1
	특별한 장소라서	1

(3-3)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이용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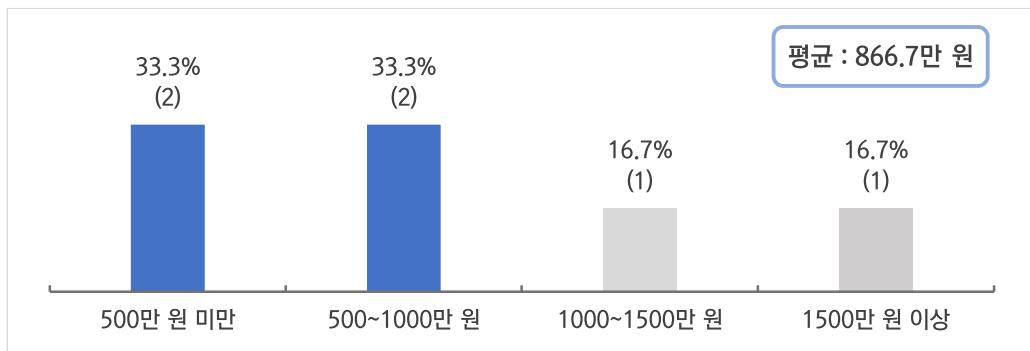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이용 만족 정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3.3%(다소 만족한다 50.0% + 매우 만족한다 33.3%)로 나타났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4.17점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2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이용 만족 정도

(3-4)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비용(웨딩홀 및 웨딩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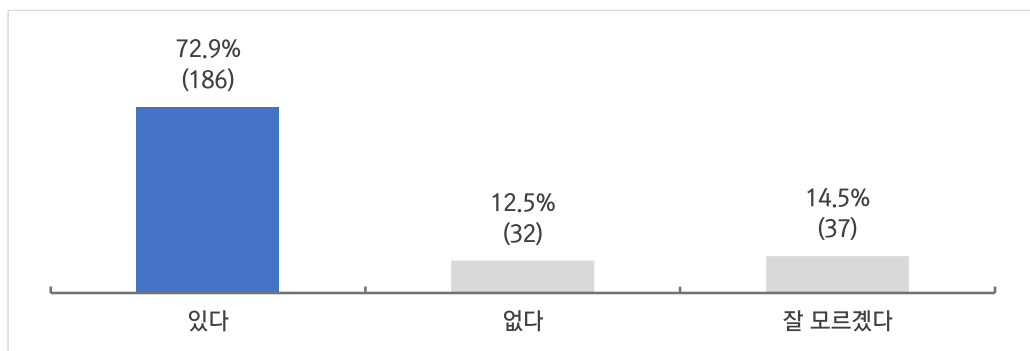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명의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비용(웨딩홀 및 웨딩 패키지)은 500만 원 미만·500~1,000만 원 이상이 각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0~1,500만 원·1,500만 원 이상(각 16.7%) 순이며 평균 866.7만 원으로 나타남



[그림 Ⅲ-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비용(웨딩홀 및 웨딩 패키지)

(4)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 기혼/이별/사별 응답자 255명의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는 있다가 7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14.5%), 없다(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3]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 응답자 특성별로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개인 소득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대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모든 연령대와 월평균 개인 소득에서 비용 최소화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0>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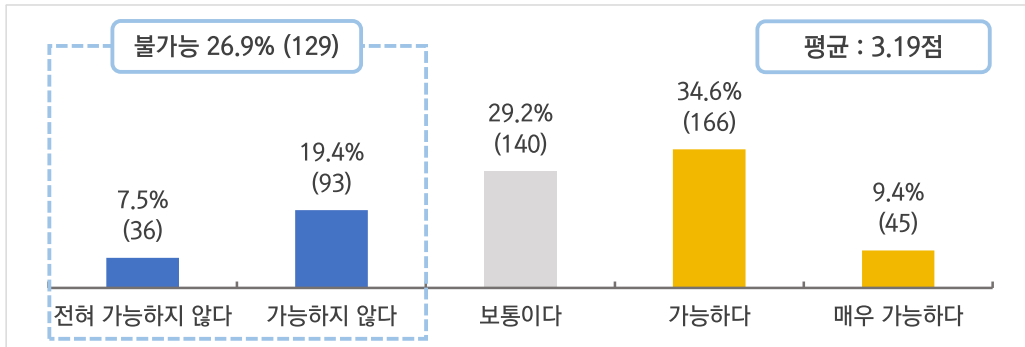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255	186 (72.9)	32 (12.5)		37 (14.5)		15.259**
연령대	20대	16	13 (81.3)	2 (12.5)		1 (6.3)		
	30대	140	94 (67.1)	15 (10.7)		31 (22.1)		
	40대	99	79 (79.8)	15 (15.2)		5 (5.1)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39	34 (87.2)	4 (10.3)		1 (2.6)		13.450*
	200~400만 원	140	94 (67.1)	18 (12.9)		28 (20.0)		
	400~600만 원	52	42 (80.8)	7 (13.5)		3 (5.8)		
	600만 원 이상	24	16 (66.7)	3 (12.5)		5 (20.8)		

주. * $p<0.05$, ** $p<0.01$

(5) 자립 결혼(주택 구입자금 제외) 가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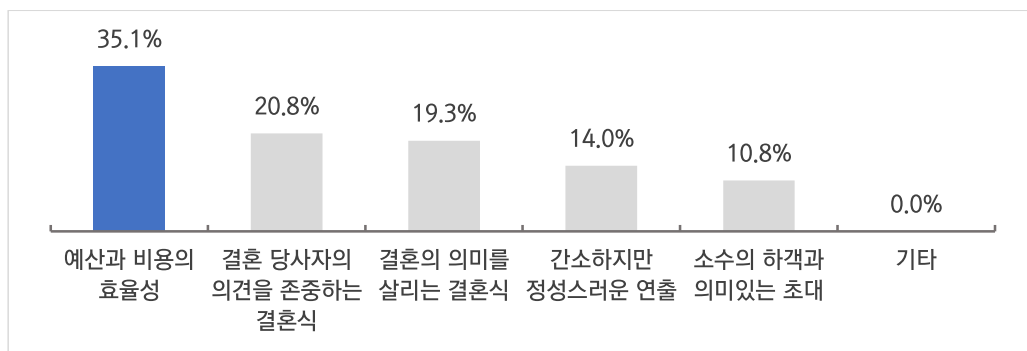
- 자립 결혼(주택 구입자금 제외) 가능 정도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6.9%(전혀 가능하지 않다 7.5% + 가능하지 않다 19.4%)로 나타났고,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3.19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Ⅲ-24] 자립 결혼(주택 구입자금 제외) 가능 정도

(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는 예산과 비용의 효율성이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혼식(20.8%), 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결혼식(19.3%),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연출(14.0%), 소수의 하객과 의미있는 초대(1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 (순위별 가중치)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를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에서 예산과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중요 요소 (순위별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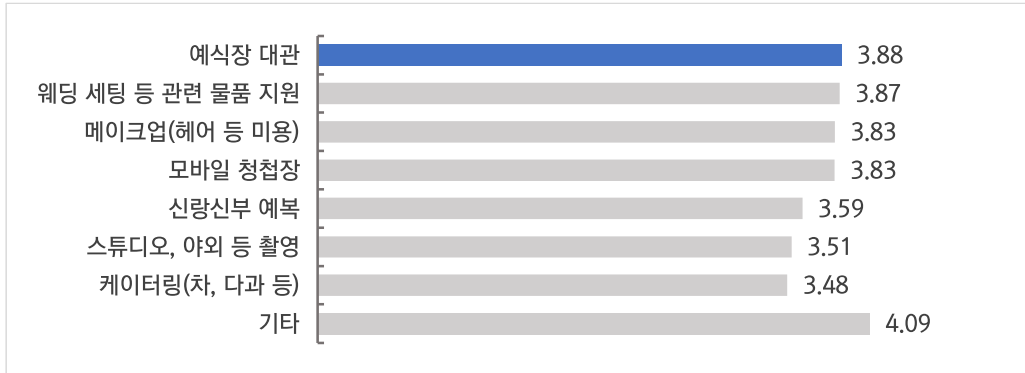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예산과 비용의 효율성	결혼의 의미를 살리는 결혼식	결혼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혼식	소수의 하객과 의미있는 초대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연출
전체		480	(35.1)	(19.3)	(20.8)	(10.8)	(14.0)
성별	남성	247	(33.1)	(20.2)	(23.5)	(10.9)	(12.3)
	여성	233	(37.2)	(18.3)	(18.0)	(10.7)	(15.7)
연령대	20대	82	(34.1)	(20.7)	(21.5)	(11.4)	(12.2)
	30대	264	(35.7)	(19.1)	(18.6)	(12.0)	(14.6)
	40대	134	(34.3)	(18.9)	(24.9)	(8.2)	(13.7)
권역	서부권	151	(31.3)	(21.2)	(23.4)	(11.7)	(12.4)
	북부권	148	(40.3)	(13.7)	(18.9)	(11.9)	(15.1)
	동부권	181	(33.9)	(22.3)	(20.3)	(9.2)	(14.4)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33.9)	(18.6)	(24.3)	(9.9)	(13.3)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37.1)	(19.3)	(17.1)	(9.3)	(17.1)
	기혼/이혼/사별	255	(34.8)	(19.6)	(20.8)	(11.9)	(12.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2.4)	(23.4)	(21.0)	(11.7)	(11.4)
	대졸 이상	369	(35.9)	(18.1)	(20.8)	(10.6)	(14.7)
종교	있음	191	(31.9)	(19.9)	(20.4)	(14.0)	(13.8)
	없음	289	(37.1)	(18.9)	(21.1)	(8.8)	(14.1)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36.3)	(19.8)	(19.0)	(12.7)	(12.2)
	200~400만 원	291	(38.0)	(18.8)	(19.0)	(9.7)	(14.4)
	400~600만 원	80	(25.4)	(18.8)	(28.8)	(12.1)	(15.0)
	600만 원 이상	30	(28.9)	(24.4)	(22.2)	(13.3)	(11.1)

(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예식장 대관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
(3.87점),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모바일 청첩장(각 3.83점), 신랑신부 예복
(3.59점), 스튜디오, 야외 등 촬영(3.51점), 케이터링(차, 다과 등)(3.48점) 순

으로 나타남



[그림 Ⅲ-2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예식장 대관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웨딩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은 연령대와 종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여성, 권역별로는 북부권,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이 높으며, 월평균 개인 소득은 대체로 200~400만 원 구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 상태별로는 예식장 대관은 미혼(결혼 예정 있음),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케이터링은 미혼(결혼 예정 없음)의 평균이 가장 높음
- 기타 의견으로 서비스(n=11/사진 촬영, 추가 서비스, 사회자(진행 요원), 꽃 등으로 장식된 신부 대기 공간, 영상 촬영 제공, 결혼식을 총괄하는 웨딩 플래너, 이벤트 기획, 주례, 포토박스 부스 등), 운영(n=7/주차 공간 확보, 작은 결혼식 업체와 중간 역할, 전문업체 발굴, 지역 내 업체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질 높게,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하되 기타 부분의 자율성 보장 등), 피로연/식사(n=6), 기본 환경 조성(n=3), 대여 시간 및 무료비용(각 n=2) 등으로 나타남

Ⅲ.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결과

<표 Ⅲ-2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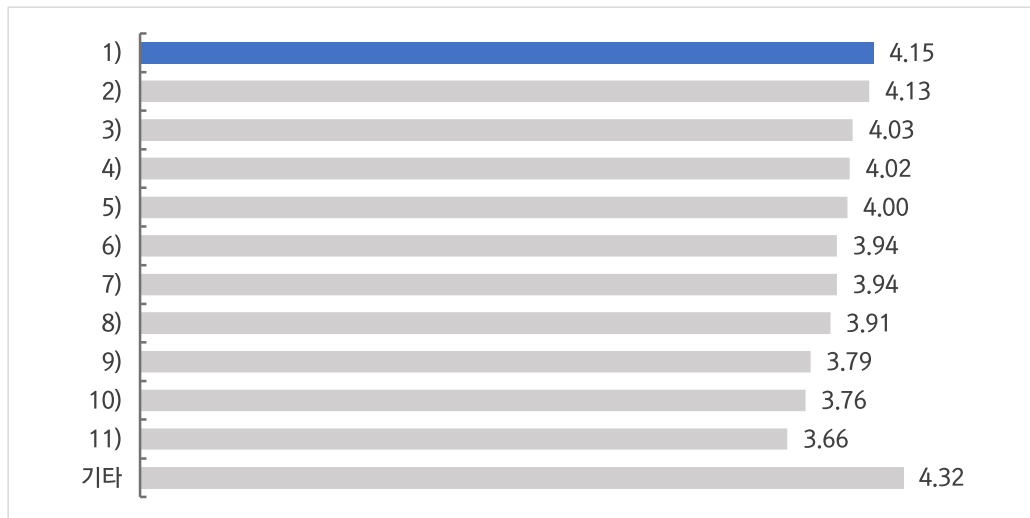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모바일 청첩장	예식장 대관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	스튜디오, 야외 등 촬영	신랑신부 예복	메이크업 (헤어 등 미용)	케이터링 (차, 다과 등)
성별	전체	480	3.83	3.88	3.87	3.51	3.59	3.83	3.48
	남성	247	3.77	3.78	3.78	3.53	3.56	3.75	3.42
	여성	233	3.89	3.99	3.96	3.49	3.63	3.92	3.55
	t		-1.279	-2.267*	-2.052*	0.328	-0.703	-2.013*	-1.267
연령대	20대	82	3.76	4.09	4.02	3.62	3.67	3.84	3.67
	30대	264	3.83	3.92	3.90	3.52	3.58	3.84	3.50
	40대	134	3.89	3.68	3.72	3.42	3.57	3.82	3.31
	F		0.426	4.709**	2.873	0.927	0.275	0.017	2.812
권역	서부권	151	3.83	3.75	3.80	3.46	3.54	3.78	3.37
	북부권	148	3.94	4.07	4.04	3.63	3.74	3.91	3.57
	동부권	181	3.75	3.83	3.78	3.45	3.51	3.82	3.50
	F		1.441	4.012*	3.432*	1.256	2.253	0.677	1.218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3.88	4.08	4.05	3.67	3.72	3.84	3.70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3.79	4.12	3.95	3.55	3.63	3.86	3.69
	기혼/이혼/사별	255	3.82	3.69	3.75	3.42	3.52	3.82	3.29
	F		0.215	10.774***	4.533*	2.225	1.558	0.070	8.50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42	3.58	3.63	3.39	3.61	3.76	3.52
	대졸 이상	369	3.95	3.97	3.94	3.55	3.59	3.86	3.47
	t		-4.874***	-3.705***	-2.775**	-1.356	0.238	-0.970	0.470
종교	있음	191	3.77	3.73	3.83	3.57	3.61	3.81	3.41
	없음	289	3.87	3.98	3.89	3.47	3.58	3.85	3.53
	t		-0.976	-2.587*	-0.669	0.898	0.263	-0.409	-1.139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3.70	3.71	3.80	3.49	3.65	3.75	3.52
	200~400만 원	291	3.90	4.00	3.94	3.53	3.62	3.91	3.44
	400~600만 원	80	3.80	3.74	3.85	3.59	3.65	3.80	3.59
	600만 원 이상	30	3.63	3.53	3.40	3.17	3.07	3.43	3.47
	F		1.245	4.058**	3.101*	1.162	2.689*	2.648*	0.411

주. *p<0.05, **p<0.01, ***p<0.001

(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4.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4.03점),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4.0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4.32점)



- 1)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 2)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
- 3)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 4)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 5) 결혼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 6)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 확충
- 7)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
- 8)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
- 9) 혼수비용 일부(가전제품 등)를 추가 할인 또는 지원
- 10) 예비부부 대상 의식 개선 교육
- 11) 기존의 결혼식장과 협업 체계 구축

[그림 Ⅲ-27]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권역·결혼 상태·최종 학력·종교·월평균 개인 소득의 일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성별로는 여성, 권역별로는 북부권,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결혼 예정 없음),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 이상, 종교별로는 종교 없음,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200~400만 원 구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인식 개선 및 홍보(n=16/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개선, 축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의식 개선, 유명인의 작은 결혼식을 통한 긍정적 영향 고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결혼 당사자의 인식 변화, 부모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 지원 및 인센티브(n=10/각종 지원(신혼여행/신혼집/결혼 비용/예식장 사용료, 결혼 축하 용품 지원, 결혼 및 출산 인센티브, 공간대여를 등 기본적인 사항 제공 후 지원제도와 확실한 연계, 예식장 무료 대여 서비스, 할인 혜택 등), 예식장 관련(n=4), 서비스 확충(n=3), 기타(각 n=10/서비스 접근성 향상, 혼수/인센티브 보다 의미있는 결혼식이 가능한 환경 조성, 장소 대여의 편의성, 혼인 장려, 결혼식보다 결혼 후 생활에 대한 교육 및 행사 필요, 작은 결혼식으로 준비를 하나 취지가 유지되기 어려움, 직장인 휴무설정, 체계적인 방안 모색, 하나의 혜택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 희망) 등으로 나타남

<표 Ⅲ-23>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①

(단위: 명, 점)

구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 확충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의 결혼식장과 협업 체계 구축	
전체			480	3.94	4.13	4.15	3.91	4.02	3.66
성별	남성	247	3.86	4.08	4.06	3.80	3.92	3.62	
	여성	233	4.03	4.18	4.25	4.02	4.12	3.71	
	t		-2.038*	-1.262	-2.390*	-2.401*	-2.459*	-0.891	
연령대	20대	82	3.96	4.15	4.09	3.88	4.05	3.72	
	30대	264	3.92	4.12	4.17	3.92	4.01	3.64	
	40대	134	3.98	4.13	4.14	3.89	4.01	3.66	
	F		0.180	0.024	0.323	0.099	0.063	0.149	
권역	서부권	151	3.77	4.05	4.03	3.79	3.91	3.58	
	북부권	148	4.17	4.28	4.25	4.03	4.22	3.84	
	동부권	181	3.91	4.07	4.17	3.90	3.94	3.59	
	F		6.998**	3.319*	2.303	2.313	5.375**	3.002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4.12	4.24	4.27	4.12	4.25	3.87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4.04	4.21	4.17	3.86	4.04	3.74	
	기혼/이혼/사별	255	3.82	4.04	4.09	3.83	3.90	3.53	
	F		4.596*	2.433	1.796	3.671*	5.986**	4.28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72	4.02	4.05	3.56	3.74	3.47	
	대졸 이상	369	4.01	4.16	4.18	4.01	4.10	3.72	
	t		-2.831**	-1.463	-1.304	-4.290***	-3.742***	-2.143*	
종교	있음	191	3.81	4.00	4.07	3.76	3.92	3.64	
	없음	289	4.03	4.21	4.20	4.00	4.08	3.68	
	t		-2.521*	-2.538*	-1.652	-2.588*	-1.811	-0.387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3.78	3.99	4.03	3.73	3.90	3.49	
	200~400만 원	291	4.04	4.24	4.24	4.01	4.13	3.75	
	400~600만 원	80	3.90	4.04	4.14	3.90	3.96	3.65	
	600만 원 이상	30	3.57	3.67	3.67	3.33	3.40	3.33	
	F		3.344*	5.131**	4.549**	5.420**	6.884***	2.119	

주. *p<0.05, **p<0.01, ***p<0.001

<표 Ⅲ-24>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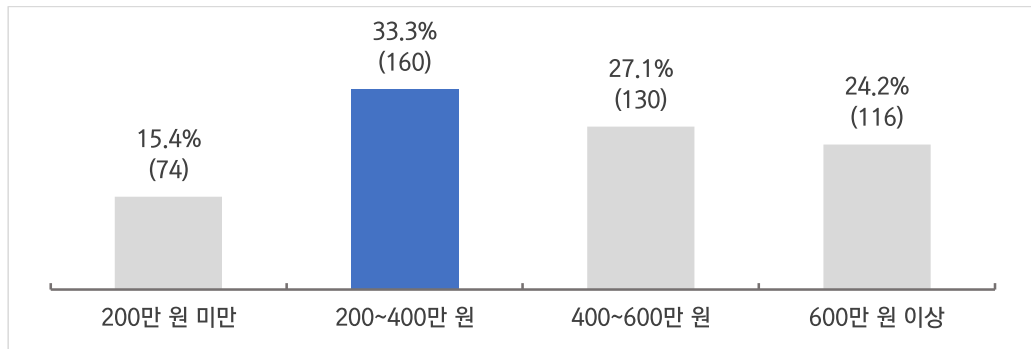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혼수비용 일부(가전제 품 등)를 추가 할인 또는 지원	결혼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예비부부 대상 의식 개선 교육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	기타
성별	전체	480	3.79	4.00	4.03	3.76	3.94	4.32
	남성	247	3.74	4.02	4.00	3.80	3.93	4.60
	여성	233	3.85	3.99	4.07	3.73	3.96	4.05
	t		-1.043	0.310	-0.747	0.707	-0.361	1.959
연령대	20대	82	3.93	3.96	4.13	3.66	3.96	4.00
	30대	264	3.76	4.00	4.04	3.77	3.95	4.13
	40대	134	3.78	4.02	3.96	3.82	3.93	4.67
	F		0.676	0.084	0.743	0.610	0.037	1.736
권역	서부권	151	3.71	3.95	3.95	3.79	3.84	4.40
	북부권	148	3.91	4.20	4.23	3.85	4.09	3.92
	동부권	181	3.77	3.88	3.94	3.67	3.91	4.62
	F		1.259	4.054*	4.125*	1.321	2.266	1.971
결혼 상태	미혼(결혼 예정 없음)	118	3.75	3.98	4.14	3.83	4.07	4.20
	미혼(결혼 예정 있음)	107	3.93	4.13	4.12	3.81	4.06	4.23
	기혼/이혼/사별	255	3.76	3.96	3.95	3.71	3.84	4.44
	F		0.917	1.109	1.921	0.642	2.786	0.29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11	3.78	3.89	3.81	3.62	3.84	4.63
	대졸 이상	369	3.80	4.04	4.10	3.81	3.98	4.24
	t		-0.105	-1.290	-2.673**	-1.635	-1.227	1.041
종교	있음	191	3.74	4.04	3.92	3.81	3.94	4.19
	없음	289	3.83	3.98	4.11	3.74	3.94	4.40
	t		-0.865	0.599	-1.985*	0.705	-0.023	-0.706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3.82	3.91	3.92	3.67	3.97	4.50
	200~400만 원	291	3.76	4.00	4.08	3.77	4.01	4.14
	400~600만 원	80	3.94	4.06	4.08	3.90	3.88	5.00
	600만 원 이상	30	3.67	4.13	3.80	3.57	3.43	5.00
	F		0.647	0.462	1.065	1.011	2.956*	1.566

주. *p<0.05, **p<0.01, ***p<0.001

(9)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은 200~400만 원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0~600만 원(27.1%), 600만 원 이상(24.2%), 200만 원 미만(1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8]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 응답자 특성별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종교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개인 소득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20대·30대는 200~400만 원, 40대는 400~60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교별로는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200~40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200~400만 원은 200~400만 원, 400~600만 원은 400~60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 미만·6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2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적정 지원금

(단위: 명, %)

구분			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4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χ^2
전체		480	74 (15.4)	160 (33.3)	130 (27.1)	116 (24.2)	14.101*
연령대	20대	82	10 (12.2)	41 (50.0)	13 (15.9)	18 (22.0)	
	30대	264	43 (16.3)	80 (30.3)	75 (28.4)	66 (25.0)	
	40대	134	21 (15.7)	39 (29.1)	42 (31.3)	32 (23.9)	
종교	있음	191	36 (18.8)	62 (32.5)	59 (30.9)	34 (17.8)	9.512*
	없음	289	38 (13.1)	98 (33.9)	71 (24.6)	82 (28.4)	
월평균 개인 소득	200만 원 미만	79	19 (24.1)	33 (41.8)	13 (16.5)	14 (17.7)	25.166**
	200~400만 원	291	33 (11.3)	98 (33.7)	84 (28.9)	76 (26.1)	
	400~600만 원	80	13 (16.3)	21 (26.3)	29 (36.3)	17 (21.3)	
	600만 원 이상	30	9 (30.0)	8 (26.7)	4 (13.3)	9 (30.0)	

주. *p<0.05, **p<0.01

3. 심층조사 분석 결과

1) 심층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총 13명(지자체 담당자 10명, 전문가 3명)
 - 지역별로는 상주시 3명, 포항시·성주군·고령군 각 2명, 경주시·서울시·대구시·봉화군 각 1명임

<표 Ⅲ-26> 심층조사 - 참여자 일반적 특성

번호	지역	소속	조사 참여 유형
1	A시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2	B시	전문가(협력업체)	서면+인터뷰
3	C군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4	D시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5	E시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6	F시	전문가(협력업체)	서면+인터뷰
7	G시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8	H시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9	I군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10	J군	지자체 담당자	서면+인터뷰

2) 분석 결과

(1) 작은 결혼식의 형태 또는 방식

- 경북지역의 작은 결혼식 시행 지자체는 협력업체와의 협업,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명소·공공예식장 대관을 통해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음

결혼 협력 업체 5군데 지정 후 협약을 통하여 운영(사례번호 1)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결혼 당사자가 원하는 일체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결혼 시기를 놓친 경우 지원 사례가 많음(사례번호 3)

식비 제외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12개소 개방(사례번호 4)

관내 관광명소·공공예식장 대관 야외 결혼식 진행(사례번호 5)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협력 연계로 운영하며, 2019년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예식장을 작은 결혼식장으로 리모델링하였으나 피로연, 돌잔치

등이 이루어지며 작은 결혼식의 대부분은 인근 수목원과 숲(개인 커피숍)에서 운영(사례번호 9)

2015년 대도시 벤치마킹으로 관련 부대시설을 구입하고 예식장을 꾸며 약 10년간 운영하고 있음. 관내 소재 예식장, 성당 등 종교시설, 전통 혼례장 등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에만 지원(사례번호 10)

○ 카페를 운영하며 공간을 대관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는 야외 예식 진행

2023년 1건, 2024년 7건, 2025년 5건의 야외 예식을 진행하였으며, ‘야외 정원 예식’이나 ‘한옥 마당 예식’으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소규모 결혼식을 진행하며, 200~300명 이내의 하객 규모로 식사와 더불어 다과나 전통차, 음악 공연을 함께 진행함(사례번호 6)

○ 타 지역인 G시는 공공예식장 대관 및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H시는 증빙서류 청구 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함

G시 공공예식장은 결혼협력업체 1곳을 지정하여 협약을 통한 운영과 더불어 20곳의 예식장은 2개의 협력업체를 연계하여 선택하고 5곳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중임(사례번호 7)

H시는 보건소, 공원 등의 공공예식장의 주말 대여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예식비용을 지출하고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시 지원금이 지급됨(사례번호 8)

(2) 참여 기준 및 지원 금액

○ 경북 지역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하객 인원과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함

신청일 기준 A시에 주소를 둔 신랑과 신부 모두 초혼인 예비 신혼부부로 하객의 인원인 양가 합산 150명 이하이며, 결혼식 과정과 홍보용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작은 결혼식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A시에서 150만 원, 협력업체에서 100만 원, 총 250만 원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와 진행시 150만 원까지 지원(사례번호 1)

총 예산은 천만 원으로 2팀을 선정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3팀 대상 300만 원을 지원함(사례번호 3)

D시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로 하객 인원은 100명 이하이며, 예식장 대여비는 무료이나 내부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D시는 예식장에서 결혼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4팀 대상 각 350만 원 지원(사례번호 4)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E시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올해 6쌍 식비 제외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사례번호 5)

혼주를 포함하여 1년 내 I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예식을 한 자로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결혼 장려에서 나아가 관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 작은 결혼식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관내 예식장이 없어 대상자가 모두 작은 결혼식을 한 경우임(사례번호 9)

혼주를 포함하여 1년 이상 J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한 사람당 150만 원 지원(사례번호 10)

- 타 지역 역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G시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H시는 1,000만 원 이하 예식 시 100만 원을 지원함

G시에 거주하는 초혼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예식장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하며, 협력업체를 통해 장소, 웨딩세팅, 예복, 헤어, 메이크업, 부케, 혼수 일체 등을 지원하고 있음(사례번호 7)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H시에 거주하며, 일반 예식장이 아닌 관내 장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예식을 한 경우 100만 원 지원(사례번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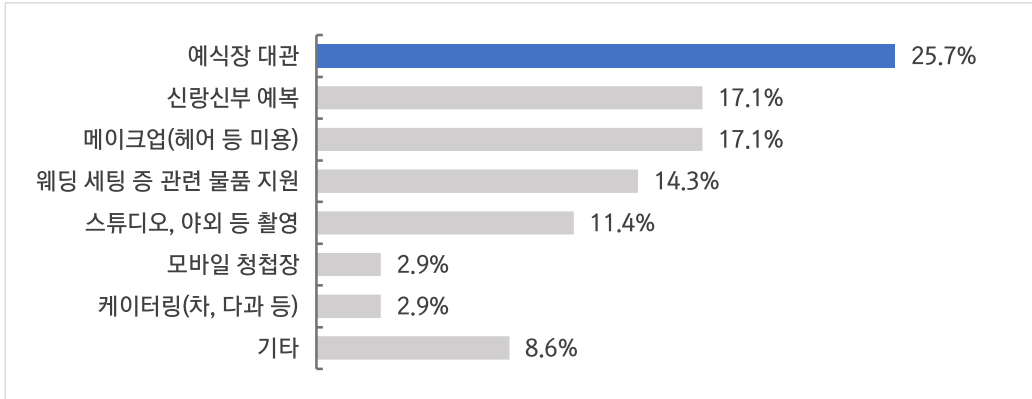
(3) 작은 결혼식의 측정된 예식비용

- 선택지가 많고 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표준화하기 어려움

패키지의 옵션과 결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하더라도 대도시 대비 저렴하여 B시는 인구 대비 결혼식이 많은 편임(사례번호 2)

(4) 작은 결혼식 지원 서비스

- 작은 결혼식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식장 대관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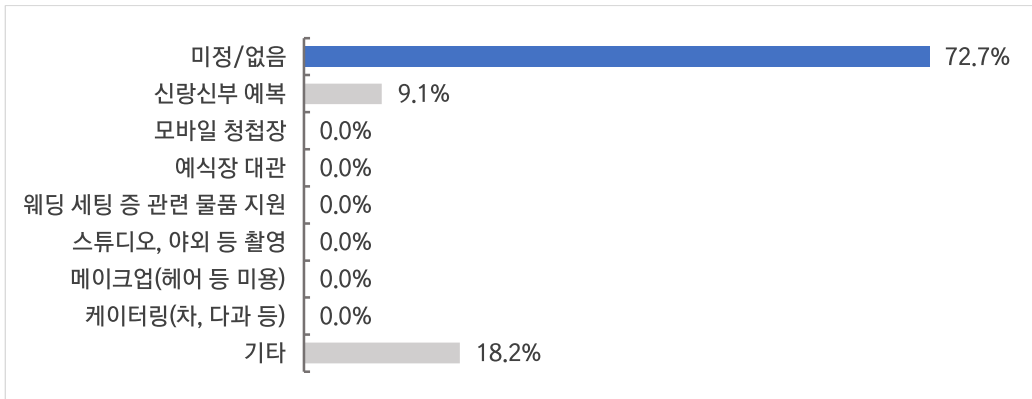
[그림 Ⅲ-29] 작은 결혼식 지원 서비스 (복수 응답)

○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음

부케 및 혼수 일체(사례번호 1)
결혼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일체(사례번호 3)

(4-1) 작은 결혼식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

○ 작은 결혼식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는 미정 또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Ⅲ-30] 작은 결혼식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 (복수 응답)

○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음

현재 350만 원의 지원금으로 충분함(사례번호 4)

전통의상 및 예복 대여, 지역 공예품을 활용한 식기 및 기념품 제작(사례번호 6)

(5)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의 개선사항 및 향후 대책

○ 하객 인원과 초혼의 기준 변경을 고려하였으나,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객 인원과 초혼의 예비 신혼부부 우선 지원을 고수할 예정임

하객 인원(150명)과 신랑 신부 모두 초혼인 예비 신혼부부로 정해 둔 기준에 대한 지속적 문의가 있으나 작은 결혼식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객 인원(150명)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과거 대비 늘어난 상태이며, 타 지자체 대비 적은 인원이 아님) 예정이며, 한 해 5쌍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와 동일하게 초혼인 예비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지원 예정(사례번호 1)

○ 부모님 세대의 대접 문화의 변화를 위하여 작은 결혼식의 보편화 노력

부조에 제대로 된 식사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모님의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리핀, 베트남, 일본과 같이 작은 결혼식이 일반화되도록 홍보 필요(사례번호 2)

○ 작은 결혼식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함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구에 인접하여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은 신혼부부의 수요가 외부로 유출되며, 보조금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보조사업 대상자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 모집에 대한 홍보(SNS, 홈페이지, 신문, 지인을 통한 홍보)를 군청의 협조하에 진행(사례번호 3)

신청 문의는 많으나 신청자는 미달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30대 초의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생략하려다 해당 사업을 발견하고 어른들을 모시고 식을 올리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수막, SNS, 유선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의 노력(사례번호 4)

젊은 인구가 없으며 수요가 외부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관내 결혼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식지, 읍면을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사례번호 9)

- 야외 예식 진행 시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실내 예식장을 모색하거나 우천시 사용 가능한 천막 대여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함

야외 예식의 변수와 한계로 실내 예식장 모색(사례번호 4)

야외 예식 시 날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진행에 차질 및 불편 발생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원 항목에 우천 대비비용인 천막 대여 비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며 외부 요인(우천,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한 야외 결혼식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추가적 방안 모색 필요(사례번호 5)

-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과 작은 결혼식의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분야별 지역 업체와의 협업과 홍보 진행

예산 규모가 작고 개별 맞춤이다 보니 협력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작은 결혼식’이 예산을 줄인 결혼식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기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의 플로리스트, 공예가, 소규모 스튜디오 등과 협업을 통해 개별 서비스를 모듈화하고 ‘작지만 정성스러운 결혼식’이라는 이미지를 위하여 영상 콘텐츠 및 후기 기반 SNS 홍보 진행(사례번호 6)

-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으나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여 추경 예산으로 지급

1년에 신청 커플이 약 6명 이상으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으나 예식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추경 예산을 세워 지급(사례번호 10)

- 타 지역인 G시는 공공시설의 협조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행 인력을 지원함

G시 공공시설과의 협조 필요 시 조율이 필요하며 지정된 시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식 진행을 희망하나 시설 담당자의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E시는 대관을 담당하고 업체 계약은 개인이 진행하나 E시의 책임에 대한 민원 제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재단에서 인력 지원(상담 2명, 행정 1명)을 통한 대행하고 있음. 추가로 결혼협력업체를 신규 발굴하고 마이크로 웨딩이 가능한 공간을 확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혼주교육을 통하여 결혼문화를 바꾸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결혼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사례번호 7)

- 타 지역인 H시는 담당 공무원 협조의 어려움, 작은 결혼식 수요 감소, 대상자의

지출 증빙에 따른 실 지출 비용 확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 서식 세분화·영수증 첨부·사진 첨부 등을 통하여 비교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임

공공예식장 활용 예식이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담당 공무원에게 주말 근무의 부담이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작은 결혼식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고연령자와 해외 거주 부부 신청 시 해외 출생신고 등의 이유로 사업 취지와 달리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 더불어 일반 음식점에서 예식 진행 시 건축법상 위법에 해당하여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사례번호 8)

대상자 본인이 직접 예식비용 지출을 증빙함에 따라 실 지출 비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 서식의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지출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예식 당일 예식 장소 및 하객 규모 확인 가능 사진을 첨부하여 기재 사항과 예식 규모를 비교 검토함(사례번호 8)

(6) 타 지역 운영 사례

(6-1) G시 운영 사례

○ 공공예식장 운영 관련 사항과 신규 장소 및 업체 선정, 만족도 조사 등 시행

G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 및 신규 공공예식장 장소 발굴, 비품대여 관련 업체 선정 및 관리, 상담 및 만족도 조사 등(사례번호 7)

○ 젊은 층의 소규모 야외 예식의 수요를 반영으로 2023년 21건에서 2024년 106건으로 추진 실적이 상승함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마이크로 웨딩(30명 내외)이 가능하도록 보증 인원이 없으며, 야외(한옥, 강, 자연경관, 작은 숲속 테마)에서 프라이빗한 예식이 가능(사례번호 7)

○ 인기 있는 공공예식장은 한옥 및 야외 수요에 맞는 특별한 세팅으로 운영됨

꿈의 숲(야외, 수용인원이 많음), E대 자작마루(수용인원이 많음), 예향재(소규모로 교통은 불편하나 대관 횟수가 적어 예약이 빠르게 마감됨) 등이 있으며 한옥의 야외 공간이 수요가 많으며, 인기 있는 곳 위주로 예약이 마감되며 새로운 곳은 리스크가 있어 선호도가 낮은 편임(사례번호 7)

○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수요에 맞춘 특색과 개성 있는 결혼식으로 홍보 시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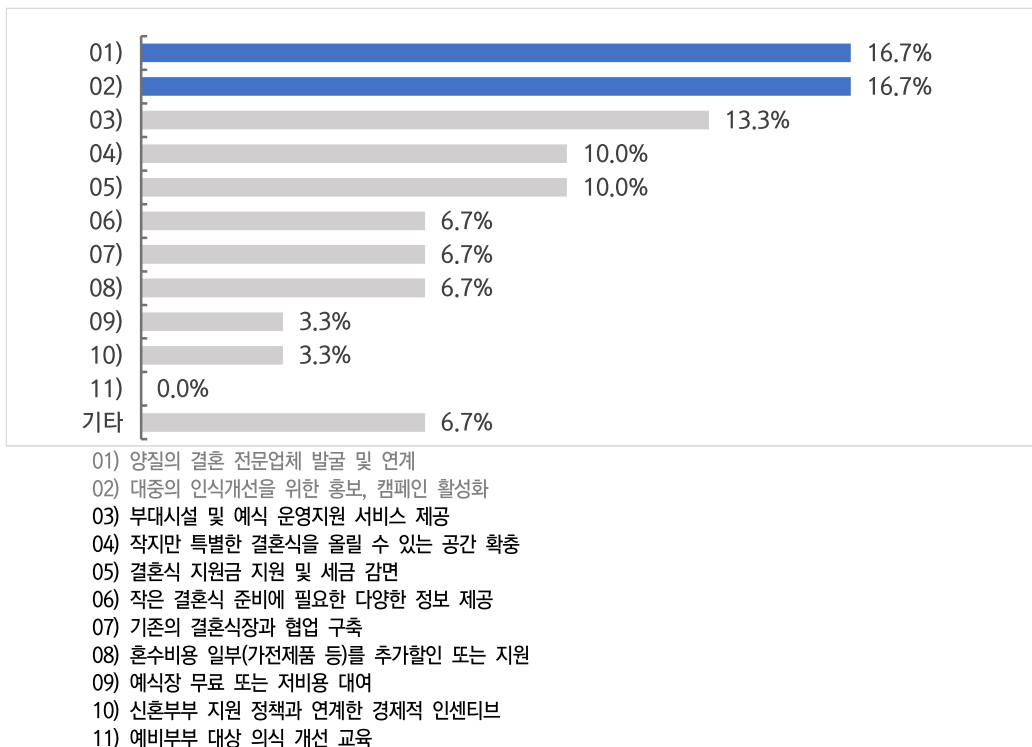
보도자료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젊은 층은 비용보다 특색과 개성 있는 결혼식에 대한 수요로 야외 및 공공예식장을 이용함에 따라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원에 초점을 둔 홍보는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음(사례번호 7)

○ 공공예식장 신청 시 협력업체를 통해 청첩장 및 앨범 제작 할인 혜택 제공

협력 업체를 통해 지류 청첩장 제작시 20% 할인, 식전영상 및 모바일 청첩장 무료 제작 지원하고 우드형 사진 키오스크와 인스탁스를 대여, 앨범과 액자 제작 시 30~50% 할인권 및 프리미엄 사진인화 1만원 제작권 제공(사례번호 7)

(7) 작은 결혼식 활성화 필요 정책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가 각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Ⅲ-31] 작은 결혼식 활성화 필요 정책 (순위별 가중치)

○ 기타 의견은 아래와 같음

예식장 내의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저비용 대여(사례번호 4)

(8) 사업 활성화 방안

○ 경북지역은 홍보, 대상자 발굴, 긍정적 이미지 제고, 수혜 자격 완화, ‘예쁜’ 예식장 설립,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정착 및 지역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음

홍보, 대상자 선제적 발굴, 특별하고 수혜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느낌 제공(사례번호 2)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수혜 자격 완화와 더불어 민간 예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북 도에서는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예쁜’ 예식장의 설립 후 제공(사례번호 3)
작은 결혼식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 대상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및 결혼식 지원금 지원과 세금 감면(사례번호 4)
청년 대상 결혼 준비 비용과 공간 지원을 통해 ‘예식-정착-지역 소속감’으로 연결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작은 결혼식 기반 ‘리마인드 웨딩’이나 ‘가족 문화행사’ 연계로 F시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속형 콘텐츠 필요(사례번호 6)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명소를 활용한 예식 장소 발굴 및 관내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릴 경우 혼수비용 지원 연계 등 실질적 지원금액 상향(사례번호 9)
SNS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연령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야외 예식장을 발굴하고 인근 J시에서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사례번호 10)

○ 타 지역인 H시에서는 결혼축하금, 연말정산 혜택, 주거비 연계 인센티브 제공 의견이 있음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사업 연계, 결혼축하금 지원, 연말정산 혜택(세금 감면) 의견이 있음. H시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거비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사례번호 8)

(9) 기타 연구 과정에서 도움 될 만한 고언

- 기존 운영 지역은 유지하고 추가 지역 확보 및 지원 확대,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확대

작은 결혼식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은 유지하고 진행하지 않는 시군구에서 진행 희망,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방법으로 현 사업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작은 결혼식 확대 시 A시 기준 지원 금액 및 대상 증대 외에 사진 촬영비 제공과 더불어 도에서 진행하는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과 같이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지원 확대(사례번호 1)

- 고연령의 미혼 농촌 총각 결혼 매칭 사업 시행을 통한 혼인율 향상

C군은 고소득 농가의 고연령 미혼 총각이 다수이며, 농촌 총각 결혼 매칭 사업을 시행하기에 미혼 여성의 인구가 적어 전국 혹은 국제결혼의 추진을 통하여 혼인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사례번호 3)

- 작은 결혼식 지원의 저출생 문제 해결 효과는 미비하며 결혼식 비용 지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음

작은 결혼식 지원을 받는 청년들의 자녀 출산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효과를 기대하나 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며, 작년까지 ‘작은 결혼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더니 결혼 지원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함(사례번호 4)

- 관내 우수 협력업체 발굴 및 사업비 지역 내 집행 보완

지역 내 수요가 인근의 E시로 유출되어 웨딩 관련 업체 부족으로 인한 연계 업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내 우수 웨딩업체 발굴 및 육성 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집행되도록 보완 필요(사례번호 5)

- 규모보다 예비 신혼부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모델 설계

공간 임대 개념에서 나아가 예비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결혼식 큐레이션’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하고 소규모 결혼식이 아닌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결혼식 모델 설계(사례번호 6)

○ 공공예식장의 원활한 운영 및 예식의 마무리까지 책임질 것

공공예식장의 운영이 가능한 곳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며 예식 진행 시 뒤처리까지 진행(사례번호 7)

○ 갖추어진 야외장소 개방 방안 모색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야외 공공예식장이 많지 않음에 따라 공공시설이 아닌 잘 갖추어진 야외 장소 개방 방안 모색(사례번호 8)

○ 작은 결혼식은 일반 예식과 금액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웨딩 패키지를 비롯한 전반적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북 단위의 진행과 업체 협약을 통한 활성화 도모

작은 결혼식의 취지와 달리 일반 예식장과 금액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웨딩 패키지를 직접 준비함에 따른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있으며, 야외 예식 시 곳은 날씨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결혼식 전반적인 컨설팅을 희망함. 또한 경북도 차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광역 단위의 수준 높은 경북 내 업체와 협약을 통한 체계구축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권함(사례번호 9)

4. 소결

1) 설문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1) 결혼식 및 결혼비용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식 장소는 예식장/웨딩홀이 81.6%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공공시설은 0.8%에 그침.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은 비용의 경제성(예산)·교통, 주차의 편리성이 각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비용과 더불어 하객의 편의가 중요한 고려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결혼비용 최다 지출 항목은 혼수가 6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비용 축소 희망 항목으로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각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신혼여행의 경우 최다 지출 항목 문항에서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축소 희망 항목에선 가장 낮게 나타나 지출한 비용이 많다고 해서 축소를 희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결혼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2.2%로 부담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8.2%)이 비용 부담이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결혼식 정보 획득 경로는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30.2%), 웨딩플래너(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웨딩플래너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7.9%)으로 그 이유는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29.9%),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각 23.0%)로 나타남에 따라 결혼 절차와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 및 과시 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결혼문화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은 보통 수준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 항목은 여성, 미혼(결혼 예정 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낸 반면, 신랑의 신혼집 마련, 남들만큼의 예단비, 부모의 결혼식 비용 부담 항목은 남성, 미혼(결혼 예정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냄

(3)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사항

- 공공예식장 인지도로 응답자 절반(48.5%) 정도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쳐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됨
-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로는 공공시설과 공원 및 야외 공간이 각 28.5%, 28.1%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저렴한 비용과 시설 및 환경이 각 34.4%, 30.6%로 나타남에 따라 저렴한 대관료를 유지하며 예식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 것을 권함

(4)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도로 응답자 43.1%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0%로 공공예식장과 비슷한 인지도를 보였으며, 심층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홍보의 방향을 지원에 둘 경우 ‘가난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절반 이상(58.4%)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그 이유로는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중요 요소로는 예식과 비용의 효율성이 35.1%로 가장 높음
- 기혼/이혼/사별 응답자 중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은 2.4%(6건)로 매우 협소하며 장소 선택 이유로는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건으로 나타났고, 다시 결혼 시 비용 최소화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예식 운영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케이터링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3.5점 이상의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예식장 대관(3.88점), 웨딩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 메이크업·모바일 청첩장(각 3.83점) 등의 순이

며, 기타 의견으로 사진 촬영, 축하 등의 서비스 제공 의견이 가장 높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3.5점 이상의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4.15점),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4.03점) 등의 순이며, 기타 의견으로 의식 개선 및 홍보 의견이 가장 높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금으로 200~400만 원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소득 구간과 적정 지원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2) 심층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1) 작은 결혼식 운영

- 경북지역의 지자체는 작은 결혼식을 협력업체와의 협업,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명소·공공예식장 대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하객 인원(100~150명 이하)과 지원금액(150만 원~500만 원)은 지역별로 상이함
- 타 지역인 G시는 공공예식장 대관 및 협력업체와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점은 경북과 동일하나 하객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H시는 증빙서류 청구 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함
-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식장 대관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향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다는 의견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는 대상자 모집, 야외 예식의 날씨 변수, 협력업체 확보, 공공시설의 협조와 민원 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홍보(SNS,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유선 방송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내 예식장의 모색과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천막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지역 내 웨딩 업체의 부족으로 인한 협력업체 발굴의 한계와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야외 결혼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모색 등이 요구되는 실정임

(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책으로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가 각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13.3%)이 뒤를 이음
-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긍정적 이미지 제고, 예비 신혼부부 대상 경제적 지원 및 수혜 자격 완화, 도 차원의 예식장 설립, 경제적 인센티브 및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결혼식이 해당 지역의 정착 혹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 마련 등의 의견이 있음
- 일부 지역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로 작은 결혼식이라는 규모에 중점을 두기보다 야외에서 특별하고 개성 있는 나만의 결혼식을 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담아 해당 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해당 지역 내 웨딩 업체가 없는 경우 도 차원에서 협력업체 연계를 하되 사용 지역 제한을 통해 관내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사업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

(3) 기타 제안

- 본 사업과는 별개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과 같이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진행 의견과 고 연령의 미혼 농촌 총각 결혼 매칭 사업 시행을 통한 혼인을 향상 의견이 있음

Ⅳ.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IV.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개념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등을 활용한 현황 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작은 결혼식 관련 운영 현황과 국내 사례를 파악하고, 경북 도내 20세~49세에 해당하는 미혼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웹조사, 대면조사,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함
- 설문조사에서는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영역(응답자 일반적 특성, 결혼식 및 결혼비용,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공공예식장에 대한 인지도 및 고려사항,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IV-1>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주요 결과		시사점
결혼식 및 결혼 비용	• 결혼식 장소: 예식장/웨딩홀이 81.6%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공공시설은 0.8%에 그침 - 결혼식 장소 선택 기준: 비용의 경제성(예산)·교통, 주차의 편리성이 각 23.9%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 중 최다 지출 항목: 혼수가 67.8%로 압도적임 - 결혼비용: 평균 1,645만 원 정도, 1,000만 원~1,500만 원이 40.8%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 중 축소 희망 항목: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각 23.5%로 가장 높음 - 결혼비용의 부담 정도: 평균 3.90점(5점 기준), ‘다소 부담’ 45.9%, ‘매우 부담’ 26.3% 순임 • 결혼식 정보 획득 경로: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30.2%), 웨딩플래너(29.0%) 등의 순임	• 결혼식 장소 선택 시 비용과 하객의 편의가 중요한 고려사항임 • 결혼비용 평균(1,645만 원)은 듀오(1,456만 원)보다 많은 편임 • 예식홀·웨딩 패키지가 부담으로 작용 •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임 •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웨딩플래너와의 협업 방안 모색 필요
결혼 문화	•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 부정적 응답 57.9% - 이유: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29.9%), 형	• 결혼 절차와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타인과의

주요 결과		시사점
에 대한 인식	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각 23.0%) 등의 순임 - 결혼문화와 관련한 동의 정도: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3.46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대체로 낮은 수준 - 결혼비용의 동등한 부담: 여성, 미혼(결혼 예정 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동의를 보임 - 신랑의 신혼집 마련, 남들 만큼의 예단비, 부모의 결혼식 비용 부담: 남성, 미혼(결혼 예정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동의를 보임	비교 및 과시 문화를 개선할 필요 결혼문화 개선을 위해 성별, 소득수준별 격차 고려
공공예식장 인지도 및 고려 사항	- 공공예식장 인지도: 절반(48.5%) 정도가 ‘들어본 적은 있다’, ‘잘 알고 있다’는 13.8%에 그침 - 공공예식장 적합 장소: 공공시설(28.5%)과 공원 및 야외 공간(28.1%)이 높게 나타남 - 공공예식장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저렴한 비용(34.4%)과 시설 및 환경(30.6%) 등임	- 공공예식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요구 - 공공예식장 및 야외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저렴한 대관료 유지 및 시설과 환경 수반 필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및 지원 정책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지도: 들어본 적은 ‘있다’가 43.1%, ‘잘 알고 있다’는 15.0%에 그침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인식도: 58.4%가 긍정적으로 인식 - 이유: 비용이 절감되는 결혼식(34.6%)이 가장 높음 - 중요 요소: 예식과 비용의 효율성(35.1%)이 가장 높음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올린 경험: 2.4%(6건)에 불과 - 장소: 학교 및 교육기관(50.0%), 전통 문화시설(33.3%), 공원 및 야외 공간(16.7%) 순임 - 이유: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했기 때문(3건)으로 나타남 - 만족도: 평균 4.17점(5점 기준)으로 높은 편임 - 예식 비용: 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각 33.3%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비용을 최소화할 의사: 있다(72.9%)가 높음 - 예식 운영 서비스: 예식장 대관(3.88점),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 메이크업·모바일 청첩장(각 3.83점)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다양한 정보 제공(4.15점),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4.03점) 등의 순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금: 200~400만 원(33.3%)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요구 -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예식 장소 발굴 및 운영 관련 부대 서비스 연계 필요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결혼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혼수 비용 일부(가전제품 등) 추가 할인 또는 지원 요구도 높음

- 또한, 심층조사에서는 작은 결혼식의 형태 또는 방식, 주요 지원 서비스 및 향후 지원 가능 서비스, 사업 추진 시 애로점 및 개선사항,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의견 등을 분석함.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IV-2> 심층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주요 결과	시사점
작은 결혼식 의 형태 또는 방식	• 시군 지자체는 작은 결혼식을 협력업체와의 협업,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영소·공공예식장 대관의 형태로 운영 • 대상자 및 지원금액: 해당 지역을 주소로 두어야 하고, 하객 인원(100~150명 이하)과 지원금액(150만 원~500만 원)은 지역별로 상이 - 타지역의 경우: 공공예식장 대관 및 협력업체와 연계 운영, 지원금 100만 원, 하객인원 제한 없으며 증빙서류 청구 시 지원금 지급 • 주요 지원 서비스: 예식장 대관(21.2%),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각 18.2%),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지원(15.2%), 스튜디오, 야외 촬영(12.1%) 순임 - 향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전통의상 및 예복 대여, 지역 공예품을 활용한 식기 및 기념품 제작 등	• 작은 결혼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협업하는 시군이 많으며, 타시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함 - 하객 인원(100~150명 이하) 및 지원금액(150만 원~500만 원)은 지역별로 상이함 - 주요 지원 서비스는 예식장 대관, 예복 및 메이크업, 웨딩 세팅 관련 물품 등임
관련 사업 추진시 애로점	• 애로점: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객 인원과 초혼의 예비 신혼부부 우선 지원 - 부조에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 해야한다는 부모님의 인식 변화 어려움 -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과 야외 예식 진행 시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실내 예식장을 모색하거나 우천시 사용 가능한 천막 대여 비용을 포함함 - 협력업체 확보 어려움이 있음 • 해결방안: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확대, 결혼협력업체 신규 발굴, 인식개선 캠페인 및 혼주교육	• 하객 인원제한과 지원금 중심의 운영은 ‘수혜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낙인 효과 유발, 인식개선 필요 - 야외 예식의 경우 우천을 감안한 실내 예식장 연계 필요. 하지만 실내 예식장 자체가 부족 • 홍보 강화, 협력업체 발굴, 인식개선 캠페인 필요
작은 결혼식 활성화 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21.7%),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17.4%), 결혼식 지원금 및 세금 감면(10.3%), 공간 확충·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기존 결혼식장과 협업 구축·혼수비용 일부 추가 할인 또는 지원(각각 8.7%) 순임	• 긍정적 이미지 제고, 공공예식장 설립 확대, 실질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정착 및 지역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 필요

	주요 결과	시사점
기타 의견	- 기존 운영 지역은 유지하고 추가 지역 확보 및 지원 확대 -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확대 - 고연령의 미혼 농촌 총각을 대상으로 한 결혼 매칭 사업 시행하여 혼인을 향상을 도모할 필요 - 관내 우수 협력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를 지역 내에서 집행하도록 유도 - 결혼식의 규모보다 예비 신혼부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모델 설계 필요 - 공공시설이 아닌 잘 갖추어진 야외장소 개방 모색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과 같이 보편적으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진행 - 고연령층 미혼 농촌 총각 대상의 결혼 매칭 사업 시행, 혼인 기회 확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혼식 모델 설계 요구

2.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

-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경북도민이 함께 만드는 결혼문화 정착’을 전제로, ‘경북형 작은 결혼식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규모 예식 공간 다각화’, ‘예비부부 경제적 지원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정책추진 기반 구축’의 5개 영역에 따른 10개 정책 과제를 제안함.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는 <그림 IV-1>에 제시한 바와 같음

비전	경북도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정착				
정책목표	경북형 작은 결혼식 문화 활성화				
정책영역	소규모 예식 공간 확대	예비부부 경제 지원 강화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정책추진 기반 구축
추진 과제	▶ 지역 특화 장소 (한옥, 공원 등) 예식 공간화 ▶ 공공 유흥시설 리모델링 및 민관 협력	▶ 결혼 비용 실비 지원 확대 ▶ 예식 패키지 지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강화 ▶ 혼수(가전·가구) 비용 지원 확대	▶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우수 모델 홍보 강화	▶ 자연친화적, 공공예식 연계 테마웨딩 모델 개발 ▶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결혼 문화 기획	▶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제정

[그림 IV-1]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목표

1) 소규모 예식 공간의 다각화

가. 지역 특화 자원(한옥, 공원 등) 예식 공간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식 공간 확보 지원 확대

○ 야외 예식 공간 발굴 및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경험은 ‘있다’가 2.4%로 매우 낮았으나, 이들이 선택한 예식 장소는 학교 및 교육기관(50.0%), 전통 문화시설(33.3%), 공원 및 야외 공간(16.7%)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한다’(50.0%)와 ‘매우 만족한다’(33.3%)가 전체의 83.3%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4.1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
- 심층조사 결과, 허례허식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예비부부들이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장소, 야외공원, 소규모 레스토랑 등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객 100명 내외의 소규모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경주,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공원, 정원, 문화회관, 종교시설(성당, 교회), 관공서 등을 결혼식 장소로 적극 활용한 소규모 예식 인프라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음. 반면, 야외 예식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문화 공간을 예식 장소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예식 공간 활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따라서 야외 예식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등 지역 특화 장소를 예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원형 예식장 등 공공예식 공간을 신규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작은 결혼식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시·군에는 야외 예식 공간 발굴이나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즉, 공원, 숲길, 강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장소를 발굴하여 계절별 테마 야외 결혼식장으로 조성하고, 무대, 전기, 음향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또한, 서원, 고택, 향교 등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전통혼례 테마 예식장’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의 특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브랜드화함으로써 전통문화시설의 결혼식장 활용을 활성화함

○ 지역 간 협력 모델 및 ‘모바일 예식장’ 모델 도입 검토

- 이외에도, 인접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예식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예약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 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비와 장식을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예식장(버스 또는 트럭 기반)’ 모델을 도입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순회형 이동식 예식 서비스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타시도 전통혼례 테마 예식장 사례



■ 모바일(이동식 버스 또는 트럭 기반) 및 메타버스(metaverse) 예식장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주(The Vow Keeper): 개조된 밴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 소규모 결혼식을 진행. 이동식 예식장은 간단한 장식과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예식 진행자와 사진 촬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 영국(Vintage Wedding Bus): 빈티지 스타일의 버스를 개조하여 이동식 결혼식장을 운영함. 버스 내부는 예식에 맞게 꾸며져 있으며, 이동 중에도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김해시 메타버스(metaverse) 예식장: 김해시는 결혼식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예식장’을 전국 최초로 개장하여, 예비부부들이 가상 공간에서 예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나. 공공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 공공건축물 유휴공간 리모델링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예식 공간 확보 지원 확대

○ 공공시설 개방, 리모델링 및 비상업적 공간 소유주와 협력 등 예식 공간화

- 설문조사 결과, 공공예식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공공시설(시·군·구청 예식장, 공공 회관 및 문화센터)이 28.5%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 및 야외 공간(도립·국립 공원 내 예식장, 도심 공원)이 28.1%, 전통문화시설(향교·서원, 고궁 및 한옥마을)이 19.9%, 공공기관 부속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 내 강당, 체육관 및 다목적홀)이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공공예식장을 이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저렴한 비용(대관료 및

부대비용: 음식, 장식, 추가 옵션 등)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환경이 30.6%, 접근성과 위치가 14.9%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심층조사 결과, 시군 단위의 웨딩홀 및 공공시설 기반 예식장은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세련되고 사적인 분위기의 결혼식을 연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야외 예식의 경우 우천 등 불확실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결혼식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실내 예식 공간의 대체 확보가 불가피함
- 따라서 관공서, 도서관, 마을회관, 문화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내 유휴공간에 대해 전수조사 및 활용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간의 규모, 접근성, 주차 여건, 구조적 안전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식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 대상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예식 인프라로 활용 가능한 장소에 대해 특별교부세 또는 지역균형발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예산은 설계비, 인테리어, 조명·음향 설비, 예식용 가구(의자, 테이블 등) 구비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작은 결혼식에 적합한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인테리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연채광, 프라이버시 확보,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 디자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화 설계가 필요함
- 한편,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기업 위탁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 소요 감면 제도 도입, 작은 결혼식 연출 및 지역 음식 제공 등 예식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외에도 지역 내 교회, 성당(서울의 명동성당, 도림동성당 등), 사찰, 문화센터 등 지역 내 비상업적 공간 소유주와 협력하여 일반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청년(상주 명주정원)들이 예식 공간 운영, 장식, 음식 등 예식 관련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2) 예비부부 경제적 지원 강화

가. 결혼예식 비용 실비 지원 확대

- 실제 결혼비용을 반영한 ‘작은 결혼식’ 지원금 상향 조정
- 결혼비용 부담률 58.2%, ‘작은 결혼식’ 평균 예식비용 866.7만 원
 - 설문조사 결과, 전체 결혼비용은 평균 1,645.1만 원으로, 1,000만 원~1,500만 원(40.8%)이 가장 많았고, 1,500만 원~2,000만 원(26.3%), 2,000만 원 이상(17.6%) 순으로 조사됨
 -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45.9%가 ‘다소 부담된다’, 26.3%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평균 점수는 3.90점(5점 기준)으로, 결혼비용에 대한 체감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나타냄
 - 아울러,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의 부담이 결혼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58.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2025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서 결혼비용 부담률이 58.8%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수준임
 - 한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실제로 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4%(6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의 평균 예식비용은 866.7만 원으로 나타남. 이는 같은 해 듀오 결혼리서치에서 조사된 소규모 결혼식의 평균 예상 비용인 891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또한, 시·도의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의 경우, 대다수의 시·도에서 1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충북 등에서는 공공예식장 활용 또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예식 실비지원 명목으로 1백만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소규모 결혼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총 6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시·군에서는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원금 규모는 지역별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포항시(협력업체 100만 원 별도 지원)와 고령군이 예식 당사자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봉화군 100만 원, 경주시 35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상주시와 성주군은 각각 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예식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적정 지원금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33.3%가 200~400만 원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400~600만 원 27.1%, 600만 원 이상 24.2%, 200만 원 미만 15.4%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예비부부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결혼식 지원금이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설계 시 보다 현실적인 실비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타시도 및 경북도내, ‘작은 결혼식’ 명칭 및 지원 규모(2025 기준)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충북	경북
사업명	마이웨딩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나만의 결혼식	작은 결혼식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규모 (1쌍 당)	100만원 (총 100쌍 이상)	100만원 (총 20쌍)	100만원 (총 40쌍)	100만원 (총 100쌍)	300만원 예정 (총 20쌍)

	포항	경주	상주	고령	성주	봉화
지원규모 (1쌍 당)	150만원 (총 5쌍)	350만원 (총 4쌍)	500만원 (총 6쌍)	150만원 (총 4명)	500만원 (총 2쌍)	100만원 (총 3명)

출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 내부자료, 2025

- 따라서 실제 결혼비용 부담이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사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예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체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 내부자료, 2025)
- 특히,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 규모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결혼에 소요되는 평균 예식비용과 현재 지원금 간의 격차를 고려

할 때, 향후 정책 여건과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금 규모를 실비 중심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조정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결혼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식 패키지 지원(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강화

- 결혼비용의 23.5%를 차지하는 스톱메 중심 웨딩 패키지 집중 지원 연계 필요
 - 공공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약을 통한 예비부부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
 - 설문조사 결과,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중 가장 절감하고 싶은 항목은 예식홀과 웨딩패키지가 각각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물(16.1%), 예단(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예식의 형식적 요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응답자의 72.9%가 결혼식을 다시 준비할 경우 결혼비용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간소한 결혼식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을 보여줌
 - 이외에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위한 예식 운영 서비스 항목 중에서 예식장 대관이 평균 3.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 모바일 청첩장 및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 서비스(각 3.83점), 신랑신부 예복 지원(3.59점) 순으로 조사됨. 이는 결혼식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 그러나 심층조사 결과, 포항, 경주, 상주 등은 전문 결혼업체 지정을 통해 웨딩패키지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고령, 봉화 등 일부 지역은 이러한 지원 없이 예비부부가 모든 준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준비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듀오 결혼리서치(2025)에 따르면, 결혼준비 과정에서 축소하고 싶은

지출 항목은 남성의 경우 웨딩패키지(26.4%), 예단(20.2%), 이바지(15.8%) 순으로, 여성은 이바지(28.4%), 예단(26.0%), 웨딩패키지(18.2%) 순으로 응답함. 이는 남녀 모두 웨딩패키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웨딩플래너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스드메 중심의 웨딩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예비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서울시의 공공예식장 신청 시 예비부부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대관료 감면 및 비품 지원

: 공공시설의 예식장 대관료 전액 감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예식에 필요한 비품 운영비 지원

청첩장 및 식전 영상 할인

: 지류 청첩장 제작 시 20% 할인, 결혼식 식전영상 및 모바일 청첩장 무료 제작 지원

앨범 제작 할인

: 우드형 사진 키오스크 ‘셀피 스탠드’나 인스타그램 카메라·필름 무료 대여, 앨범·액자 제작 30~50% 할인권 및 프리미엄 사진인화 1만원 제작권 제공

다양한 예식 공간 제공

: 북서울꿈의숲, 예향재, 북서울미술관 등 서울 전역에 28개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 장소별 전문 결혼업체를 지정·연계하여 결혼식 지원

■ 경북 도내, 일부 시군의 예식 패키지 지원(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사례

스튜디오 촬영 지원

: 지역 내 협력 스튜디오와의 협약을 통해 표준화된 촬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촬영 비용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함

드레스 및 예복 대여 지원

: 지역 웨딩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결혼식 전용 드레스 컬렉션’을 구성하고, 신랑·신부 예복 각 1벌 무료 대여 또는 일정 금액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혼주 한복 및 전통 예복 항목도 선택적으로 포함함

헤어·메이크업 지원

: 지역 미용실 또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의 연계를 통해 본식 당일 신랑신부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함

기대효과

: 지역 기반 자원의 활용과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통해 작은 결혼식의 질적 만족도를 제고

다. 혼수(가전·가구) 비용 지원

-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가전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지원(3.79점) 욕구 큼
- 결혼 준비과정에서 혼수(67.8%) 항목에 대한 지출 큼
 - 설문조사 결과,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혼수(67.8%)였으며, 다음으로 신혼여행(15.7%), 예식홀(8.6%), 예물(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출이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울러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 제외)에 대한 부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90점(5점 기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수준임
 - 한편,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를 살펴본 결과, 혼수 비용 중 가전제품 등에 대한 추가 할인 또는 지원방안이 평균 3.79점(5점 기준)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25년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입자금을 제외한 결혼비용 지출 항목 중 예식홀(38.6%)에 이어 혼수(35.2%)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듀오 결혼리서치(2025)의 혼수 품목별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 가구 항목에서는 침대가 97.4%, 대형가전 중에서는 냉장고(88.1%), 소형가전 중에서는 청소기(50.6%)가 가장 필수적인 품목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혼수 항목 중에서도 특히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가전·가구에 대한 지원이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에 경상북도는 20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사업’을 통해 가구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이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할 예정임.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신청방법은 별도 안내될 계획임

-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원대상을 20대 신혼부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서울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신혼부부가 결혼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혼수(67.8%)에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현재 경상북도는 혼수비용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미 LG전자와 MOU 체결과 같은 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ESG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러한 접근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대안 용어 사용 필요
- 명칭의 정확성과 상징성 확보가 정책 전달력 및 인식개선에 핵심적 요소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2.4%(6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응답자의 예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7점(5점 만점 척도)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다소 만족한다’ 50.0%, ‘매우 만족한다’가 33.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이는 실제로 작은 결혼식을 경험한 이들의 체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향후 작은 결혼식이 기존 결혼문화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자리 잡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다수 시군 지자체에서의 ‘작은 결혼식’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따르면, ‘작은 결혼식’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축소된 결혼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식은 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작은 결혼식을 바람직한 결혼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이 단순히 예산을 절감한 결혼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부는 물론 이를 기획·운영하는 주체 모두가 고급스러움과 감성적 요소를 반영한 예식 연출과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사업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적인 결혼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다시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를 사업명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음. 이는 정책 명칭의 정확성과 상징성 확보가 정책의 전달력 제고 및 인식개선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 서울 ‘마이웨딩’, 경기 ‘웨딩마루’, 충북 ‘함께웨딩’, 인천 ‘리본웨딩’ 등

-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마이웨딩(My Wedding)’이라는 명칭을 도입하여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반영한 결혼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는 ‘웨딩마루’, 충북은 ‘함께웨딩’, 인천은 ‘리본웨딩’ 등의 명칭을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정책 수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명칭 대신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2025년부터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운동 일환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이라는 용어가 자칫 경제적 제약이나 축소된 결혼식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결혼문화를 강조하는 가치 중심적 의미를 담은 명칭 도입이 필요함

■ 경북형 작은 결혼식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 형식적 축하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축하하는 문화를 만들고, 가족과 절친 위주의 하객이 함께하는 결혼문화 확산 지원

항목	내용
목표	“소중한 사람들과 오롯이, 작지만 행복 가득한 축제”
대상	결혼식일 기준 19세~49세(1975년생~2006년생)인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운영	타지자체를 참고하여 경북형 ‘작은 결혼식’ 취지 - 하객 수 100명 이하(신랑·신부 양가 합산) - 공공예식장, 민간 운영 작은 결혼식장, 기타(카페, 성당, 교회, 관광명소 등) 지원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 (예: 예비부부 모두 재혼·황혼웨딩, 기존 민간 대형예식장 결혼식 등)

출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 내부자료, 2025

○ ‘도민 공모전’ 추진 방식을 통한 ‘작은 결혼식’에 대한 대안 명칭 선정

- ‘작은 결혼식’에 대한 도민의 정책 수용성과 인식도 제고를 위해, ‘도민 공모전’ 등의 참여적 방식을 통해 대안 명칭을 선정하고 이를 공식 정책 브랜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됨. 이러한 접근은 시민의 자율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모전의 추진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음. 공모 명칭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이름 공모전”으로 설정하고, 주제는 ‘작은 결혼식’을 대체할 따뜻하고 가치 있는 명칭을 공모하는 것으로 함. 참여 대상은 해당 도민 전체로 하되,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심사 기준은 창의성, 상징성, 공공성, 사용 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시상은 최우수작(상금+상장), 우수작(상품권), 장려작 등의 형태로 운영함. 선정된 명칭은 향후 도의 공식 정책 브랜드로 활용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 개발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반영함
- 공모전과 같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는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입소문 확산이 이루어져 정책의 인지도 제고와 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북형 작은 결혼식 명칭에 대한 도민 공모전(안)

항목	내용
공모 명칭	“도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결혼문화 이름 공모전”
주제	‘작은 결혼식’을 대체할 따뜻하고 가치 있는 명칭 공모
참여 대상	해당 도민 누구나(청년, 신혼부부 우대 가능)
심사 기준	창의성, 상징성, 공공성, 사용 용이성
시상	최우수작(상금+상장), 우수작(상품권), 장려작 등
활용 계획	선정된 명칭을 도의 공식 정책 브랜드로 활용(BI 디자인 포함)

나.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우수 모델 홍보 강화

□ 문화적·심리적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 작은 결혼식을 환경친화적, 가족친화적, 감성 중심 의례로 결혼문화의 질적 전환이라는 방향에서 인식 전환 유도

-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응답자의 43.1%가 ‘들어본 적은 있다’, 41.9%는 ‘모른다’, 15.0%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전반적인 인식 평가는 평균 3.63점(5점 만점 기준)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44.2%, ‘보통이다’ 33.3%, ‘매우 긍정적이다’ 14.2%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경향을 보였음
- 그 이유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혼식(19.6%), 부부 중심의 프라이빗(개인적인, 사적인) 결혼식(17.6%), 의미 있는 결혼식(15.5%), 개성 있는 결혼식(11.9%), 친환경적 결혼(1.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작은 결혼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재정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의 병행이 필요함
- 인식개선 캠페인의 주요 추진 전략은 작은 결혼식을 단순히 ‘저비용 예식’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프레이밍에서 벗어나, 이를 환경친화적(eco-friendly), 가족친화적(family-centered), 감성 중심(emotion-focused) 의례로 재구

성하는데 중점을 둬. 또한 결혼의 본질을 당사자 간의 의미 있는 선택으로 인식하고, 가치 중심적, 관계 중심적, 스토리 중심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결혼문화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감성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확산하거나, MZ 세대 맞춤형 플랫폼 활용한 해시태그 캠페인 운영

- 구체적인 홍보 전략으로는 첫째, 스토리 중심의 브랜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실제 참여 커플의 결혼 이야기와 사진, 선택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성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임. 둘째, 공공지원의 규모를 강조하기보다는 ‘선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결혼식 장소와 콘셉트, 방식 등을 소개하는 “이런 결혼식도 있어요” 캠페인(예: 북카페 결혼식, 공원 피크닉 웨딩, 고택 전통혼례 등)을 통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기능성과 확장성을 제시함. 셋째, MZ 세대를 주요 홍보 대상으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릴스(Reels), 유튜브 숏츠(Shorts),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 등 세대 맞춤형 플랫폼을 활용함. ‘#결혼식다르게해봤다’ 등의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 전략을 병행함

○ 결혼박람회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

- 한편, 결혼박람회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홍보하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소규모 웨딩의 다양한 사례와 장점을 소개하고, 예비부부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음
- 또한, 웨딩업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상담, 할인 혜택,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면 실질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 ‘작은 결혼식’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은 결혼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가치 있는 결혼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나아가 이러한 박람회는 지역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민관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결혼박람회와 연계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홍보(안)

결혼박람회: 예비부부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작은 결혼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제 구현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홍보 채널임

- 박람회 내에 ‘작은 결혼식 특별관’을 운영하여, 소규모·개성 중심의 결혼식을 주제로 한 전시, 실제 사례 소개, 미니 토크콘서트, 사진·영상 콘텐츠 상영 등을 통해 관람객과의 감성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협업하여 실내외 소규모 예식 공간, 친환경 웨딩소품, 간소한 예복 및 케이터링 상품 등을 소개함으로써,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작은 결혼식에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아울러, 박람회 기간 중 참여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작은 결혼식 스타일링 체험’, ‘예산 구성 상담’, ‘공공예식장 예약 안내’ 등 실용적인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실제 수요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향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결혼박람회와의 연계를 통해 ‘작은 결혼식’ 홍보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결혼문화 다양성을 함께 소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공 사례 발굴 및 미디어 활용 홍보, 공공과 민간의 공동 캠페인

○ 결혼식의 의미, 준비과정, 만족도, 특징 등을 중심으로 영상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배포

- 설문조사 결과, 결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가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웨딩플래너(컨설팅업체)(29.0%), 지인으로부터의 정보(16.9%), 예식장 및 물품 서비스 판매자(12.5%),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7.1%)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실제 작은 결혼식을 경험한 신혼부부와 그 가족, 지자체 사례 등을 인터뷰 및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 다양한 연령 및 사회·경제적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사례를 발굴·소개함으로써, ‘작은 결혼식’이 특정 집단에 국한된 선택이 아닌, 누구나 실현 가능한 보편적 결혼문화의 하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결혼지원 포털 내에 전용 홍보 탭을 개설하고, 실제 참여자의 체험 수기와 사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사례 공모전(안)

항목	내용
공모 명칭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찾습니다’(가제)
공모 내용	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작은 결혼식 사례 공모전 개최
참여 대상	‘작은 결혼식’에 참여한 신혼부부
심사 기준	상징성, 공공성, 사용 용이성 등 마련
시상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등
활용 계획	선정된 우수 사례 보도자료 및 정책 구상에 활용

자료: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 내부자료, 5. 20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작은 결혼식 주간(Small Wedding Week)’ 운영하고 민간 결혼 관련 산업과의 협업
 - 또한,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민단체, 종교 기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은 결혼식 주간(Small Wedding Week)’을 운영함으로써, 대체형 결혼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기간 동안 전통혼례, 자연 속 결혼식, 박물관 예식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결혼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인식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등 민간 결혼 관련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규모 웨딩 상품을 기획하고, 공동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작은 결혼식을 지속 가능한 산업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청소년 및 예비부부 대상 사전 교육, 프레이밍 전략 및 메시지 설계
 -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생활문화 교육’ 또는 ‘결혼과 가족’ 관련 교과목 및 특별활동 과정에 ‘작은 결혼식’의 개념과 의미, 다양한 결혼문화에 대한 선택권 교육을 포함시켜, 청소년 및 청년층이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결혼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지자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예비부부 대상 결혼준비 프로그램에 ‘작은 결혼식’과 관련된 실용적 정보(예식 장소, 비용 구성,

절차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선택 가능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작은 결혼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작아서 더 기억에 남는 결혼식”, “작은 결혼, 큰 의미”, “함께 웃고, 함께 준비하는 결혼” 등과 같은 긍정적 메시지와 상징을 담은 홍보 문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체계화하고, 관련 산업 및 교육계와의 협업을 통해 작은 결혼식의 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4) 지역별 특화 모델 개발

가. 자연 친화적, 공공예식 연계 테마웨딩 모델 개발

- ‘작은 결혼식’은 자연 친화적인 야외 공간(그린 뷰, 소규모 숲속 공간) 선호 등
- 날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내외 복합형 예식 공간 조성 및 보완 필요
 - 설문조사 결과, 우리사회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2.41점(5점 척도 기준)으로, 부정적 평가(58.3%)가 긍정적 평가(10.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공예식장으로 선호되는 장소로는 ‘공공시설’(28.5%)과 ‘공원 및 야외 공간’(28.1%)이 각각 상위를 차지함. 이는 예식 장소에 대한 수요가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 공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심층 조사결과, 최근 예비부부들 사이에 자연 친화적 환경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한옥,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그린 뷰 공간, 소규모 숲속 공간 등과 같은 야외형 예식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외 예식이 기후 및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 시 결혼식 진행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적 변수는 예비부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야외 예식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상 변화에 대비한 대체 공간 마련, 임시 구조물 설치, 사전 안내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공공예식장과 야외공간을 연계한 복합형 예식 인프라 조성

-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야외 결혼식장(예: 북서울 꿈의 숲, 수원 화성행궁 야외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사전 예약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낮은 편임
- 또한, 기상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하여 우천 시 예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작은 결혼식’ 정책은 기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내외 복합형 예식 공간의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야외 결혼식 인프라를 발굴·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공예식장과 야외 공간을 연계한 통합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상 악화 시 대체 공간 제공 및 장비 지원이 가능한 기상 대응형 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내 예식 공간 확보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소규모·개성 중심의 예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예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기존 공공시설을 예식에 적합한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인식조사 및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는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공간 및 예식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발굴 및 정책 설계에 기초자료로 반영하고 있음

■ 자연친화적 야외 공간과 공공예식장을 연계한 지역별 특화 테마웨딩 모델

- **복합형 예식 인프라 조성:** 실내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상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부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공공청사 내 예식홀,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기존 공공시설과 그 주변의 공원, 정원, 수변 공간 등을 통합 활용하여 실내·야외 예식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음
- 이러한 복합형 인프라는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한 채 예비부부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자원과 결합한 테마 기획:**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고유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 자산 등을 결혼식 콘텐츠에 반영함으로써 차별화된 웨딩 경험을 창출하는 전략임
- 예를 들어, 전통 한옥 마을에서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린 전통혼례 테마를, 해안이나 호수 인근에서는 수변을 배경으로 한 자연 테마웨딩을 기획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예술가, 플로리스트, 수공예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살린 맞춤형 결혼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짐
- **ESG 가치를 반영한 친환경 웨딩 구성:**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지역 농산물 기반 케이터링, 지역 작가의 수공예 웨딩 소품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결혼식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환경보호에 동시 기여함
- **사전 예약제 및 정보 제공 강화:** 테마웨딩 전용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예비부부에게 날씨 예보, 대체공간 안내, 준비물 리스트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임
-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과 공간 제공을 맡고, 민간 웨딩 전문가(웨딩플래너, 장식업체 등)는 테마 연출과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함

나.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결혼문화 기획

□ 공간, 인프라, 서비스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 지역의 민간 전문가(플로리스트, 공예가, 소규모 스튜디오 등)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별 서비스를 모듈화함

- 설문조사 결과,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위한 예식 운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는 예식장 대관(3.88점), 웨딩 세팅 등 관련 물품 지원(3.87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모바일 청첩장(3.83점), 메이크업(헤어 등 미용)(3.83점), 신랑신부 예복(3.59점), 케이터링(차, 다과 등)(3.48

점) 등의 순임. 이는 예비부부들이 예식 공간과 연출, 편의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증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4.15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예식장 무료 또는 저비용 대여(4.13점), 부대시설 및 예식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4.02점), 양질의 결혼 전문업체 발굴 및 연계(3.91점) 등의 순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 인프라,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공공예식 공간의 접근성 확대, 예식 운영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지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협력업체의 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가 자신들의 수요와 선호에 기반한 결혼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특히, 예식장 대여료를 제외한 진행비, 음향, 꽃, 비품, 피로연 등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 관련 업체와 상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예식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운영 방식은 공공이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세부적인 예식 구성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전략으로 해석됨. 이는 작은 결혼식이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5) 정책추진 기반 구축

가.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 제정

- ‘작은 결혼식’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뒷받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결혼식 지원 조례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2025년 5월 기준)에 따르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등을 비롯해 총 10곳이며(2024년 3월 14일 기준), 인천, 광주, 전북, 울산, 제주 등 5개 지역은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이러한 조례제정 현황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경상북도 고령군, 봉화군에서 「결혼예식장 이용 및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결혼식에 대한 장려금 지원의 기준, 신청자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경상북도 및 타 시도 작은 결혼식 관련 지원 조례 현황

지역명	조례명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유아보육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여성가족과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가족친화과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가족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인구여성가족과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여성보육과
경기도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및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강원도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녹지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당진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자치행정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년인구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저출생대응정책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 경북도내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주요 내용
경상북도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기준),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방법), 제7조(지원종지 및 환수조치), 제8조(시행규칙)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기준),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방법), 제7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시행규칙)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환수조치), 제6조(포상)

- 또한, 상주시는「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출산·전입 등 인구증가와 직결되는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작은 결혼식을 선택한 예비부부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조례에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조례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결혼을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써 결혼문화 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과 함께 제도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단위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소영 · 홍승아 · 이아름(2014),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미(2019),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작은 결혼식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연예산업협회, Vol. 13, NO. 3
- 정여진·신승배(2018),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현목(2021.1), 한국의 예식문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작은 결혼식’의 대두 배경과 의미, 특집 새로운 혼례·장례문화
- 정현목(2018.3.7.), ‘작은 결혼식’의 대두에 따른 의식 변화의 실천: 결혼 당사자의 탈정형적 예식 추구에 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제30집 1호, p20~50
- 이명선(2015.11.13.),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 「KWDI Brief」 (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문희(2014),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이명선(2015.11.13.),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 「KWDI Brief」 (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선영 · 김주덕(2018), 스몰웨딩에 관한 소비자인식 및 선호도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8권 2호
- 임소희·이미혜(2020), 작은 결혼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인지적 태도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제16권 제1호(통권 제37호)
- 여성가족부(2012), 결혼문화 및 예식에 관한 인식조사, 여성가족부 전략연구 대국민 인식조사
- 여성가족부(2013), 결혼문화 및 예식에 관한 인식조사, 2013 가족정책전략센터 -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3)
- 여성가족부(2016.12),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추진전략단(2015), 작은 결혼식 국민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경상북도 내부자료(2025), 경상북도 공공예식장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 운영 현황(2025.3 기준), 저출생과전쟁본부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4.6.26.),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을 위해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48개소 추가 개방

경남도민뉴스,(2025.2.6.),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예비부부 20쌍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경향신문(2025.4.29.), 결혼 앞둔 청년 걱정 마세요“... 충북도, 작은 결혼식 및 인구감소 지역 결혼 지원

더스쿠프(2024.11.6.), 공공예식장 절반이 ‘실적제로’인데, 되레 숫자 늘린 정부[視리즈]

듀오(2023.7.6.), ‘결혼비용 보고서’, 결혼정보회사 듀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보도자료(2023.3.27.), 서울시, 결혼식장 예약난 예비부부에 시청사, 공원 등 공공예식장 개방

생활채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8.6.),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경제(2024.2.23.), 신랑신부행복첫걸음응원...여가부 ‘작은결혼식’ 재추진

아시아경제(2025.2.10.), “미혼남녀 만남 주선합니다”...인천시, 결혼식 비용도 지원

이로운넷(2019.9.4.), 결혼은 개성있게, 비용은 합리적으로!(주)좋은날

통계청 보도자료(2024.11.12),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인터넷 웹(www.eshare.go.kr) 또는 앱 ‘공유누리’, 2024

부록



경상북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

ID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여성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경북 도내 미혼 및 기혼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목적만으로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개인 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4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주관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사기관 :

PART 1. 응답자 일반 특성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4세	② 25~29세	③ 30~34세	④ 35~39세
⑤ 40~44세	⑥ 45~49세		
D-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포항시	② 경주시	③ 김천시	④ 안동시
⑤ 구미시	⑥ 영주시	⑦ 영천시	⑧ 상주시
⑨ 문경시	⑩ 경산시	⑪ 의성군	⑫ 청송군
⑬ 영양군	⑭ 영덕군	⑮ 청도군	⑯ 고령군
⑰ 성주군	⑱ 칠곡군	⑲ 예천군	⑳ 봉화군
㉑ 울진군	㉒ 울릉군		
D-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미혼(결혼 예정 없음)	② 미혼(결혼 예정 있음)	③ 기혼	④ 이혼/사별
D-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D-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종교 없음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불교
⑤ 기타()			
D-7. 귀하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어느 범주에 속하십니까?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400만 원	③ 400~600만 원	④ 600~800만 원
⑤ 800만 원 이상			

(다음 페이지로)

PART 2. 결혼식 및 결혼 비용

PART 2. 결혼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1. 귀하께서 결혼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2. 귀하께서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음식점/웨딩홀 ② 호텔 ③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 ④ 공공시설(시군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문화회관, 체육관, 복지관, 공원 등을 활용한 음식점)
- ⑤ 기타(적어주세요:)

3. 귀하께서 결혼식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의 경제성(예산) ② 분위기 및 인테리어 ③ 교통, 주차의 편리성
- ④ 수용 가능 인원 ⑤ 부대시설 이용 편리성(대기실, 메이크업실, 피로연장 등)
- ⑥ 피로연 음식 메뉴나 질 ⑦ 예식 가능 날짜 예약 여부 ⑧ 예식 진행의 유연성 및 자율성
- ⑨ 주위 사람들의 추천이나 평판 ⑩ 공공기관 지원 혜택
- ⑪ 기타(적어주세요:)

* 신혼부부 총 결혼 비용: 3억 6,173만 원(2025 결혼비용 실태 조사 보고서)

- | | | |
|----------------------------------|-------------------------|-----------------|
| ① 주택(3억 408만 원) | ② 혼수(가구, 가전제품 1,456만 원) | ③ 예식홀(1,401만 원) |
| ④ 신혼여행(965만 원) | ⑤ 예단(770만 원) | ⑥ 예물(591만 원) |
| ⑦ 웨딩 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441만 원) | ⑧ 아버지(141만 원) | |

4. 귀하께서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혼수(가구, 가전제품) ② 예식홀 ③ 신혼여행 ④ 예단
⑤ 예물 ⑥ 웨딩 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⑦ 이바지

4-1. 위의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만 원

4-2. 귀하가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중 가장 많이 축소하고 싶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혼수(가구, 가전제품) ② 예식홀 ③ 신혼여행 ④ 예단
⑤ 예물 ⑥ 웨딩 패키지(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⑦ 이바지

5. 귀하께서는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담된다 → 5-1번으로 이동 ⑤ 매우 부담된다 → 5-1번으로 이동

5-1. 귀하께서는 결혼비용(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부담이 결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께서 결혼식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웨딩플래너(컨설팅 업체) ② 예식장, 물품 서비스 판매자 ③ 온라인 카페 및 블로그
④ 1인 미디어(유튜브 등) ⑤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⑥ 지인
⑦ 정부, 공공기관(공공서비스) ⑧ 기타(적어주세요:)

PART 3. 결혼문화 및 결혼문화 개선 방안

7.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결혼식 문화(결혼 비용, 의식, 절차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정적이다 → 7-1번으로 이동 ② 다소 부정적이다 → 7-1번으로 이동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긍정적이다 ⑤ 매우 긍정적이다

7-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 ② 고착화(획일화)된 결혼 절차와 형식
③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결혼 가치관(사교방식) ④ 주변의 이목과 체면 중시
⑤ 주고받는 축의금 ⑥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
⑦ 예의와 전통(절차)을 따르려는 의식
⑧ 기타(적어주세요:)

8. 귀하께서는 다음의 결혼문화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혼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예단비는 남들 만큼은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의 총비용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 친구만 오는 것은 초라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가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4. 공공예식장 인식 및 고려 사항

9. 귀하께서는 공공예식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모른다

10.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예식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공공시설(시·군·구청, 예산장, 공공 화관 및 문화센터)
- ② 공원 및 야외 공간(도립·국립공원 내 예산장, 도심 공원)
- ③ 공공기관 부속 시설(도서관·박물관 미술관 내 강당, 체육관 및 다목적홀)
- ④ 학교 및 교육기관(대학 캠퍼스 내 예산홀, 평생학습관 및 교육원)
- ⑤ 전통문화시설(향교·서원, 고궁 및 한옥마을)
- ⑥ 복지 및 공공서비스 기관(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공공연수원 및 수련원)
- ⑦ 기타(적어주세요:)

11. 귀하께서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저렴한 비용(대관료 및 부대비용: 음식, 장식, 추가 옵션 등)
- ② 시설 및 환경(조경, 청결도, 편의시설, 조명, 음향, 냉난방 시설 등의 기본 설비, 하객 수용가능 인원 및 공간 활용)
- ③ 접근성과 위치(대중교통 및 주차 편의성 등)
- ④ 예약 가능 여부 및 절차(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가능 여부, 신청 및 승인 절차의 복잡성, 이용시간과 대관 가능 시간대)
- ⑤ 예식 진행의 유연성(원하는 웨딩 스타일 연출 가능 여부: 전통혼례, 서양식, 간소한 결혼식 등,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여부)
- ⑥ 공공기관의 결혼 지원 정책(지역 주민 또는 신혼부부 지원 정책: 할인, 특별 혜택 등)
- ⑦ 기타(적어주세요:)

PART 5.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정책

12. 귀하께서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특별한 결혼식**이란 신랑·신부 양가의 친밀한 하객들과 함께 민간예식장, 공공예식장, 야외공간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비용을 통해 특별하고 행복함의 의미를 더한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모른다

문 항	전혀 필요하 지 않다	별로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 다	매우 필요하다
6) 기존의 결혼식장과 협업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7) 혼수비용 일부(가전제품 등)를 추가 할인 또는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결혼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①	②	③	④	⑤
9) 신혼부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경제적 인센티브	①	②	③	④	⑤
10) 예비부부 대상 의식 개선 교육	①	②	③	④	⑤
11) 대중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적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경상북도 내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 혼수비용 지원 등 가구당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400만 원

③ 400~600만 원

④ 600만 원 이상